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 10

서울문화재단

8
남산예술센터의 집들이가 시작됐다. 어떤 집이 지어졌는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도 꽤나 고심했을 터.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은 이 시대가 주목하는 연출가들의 시선을 빌어 동시대의 사회적 단면을 엿보는 무대로 꾸며졌다. '상실과 구원'이라는 테마 아래 차례로 초연되는 신작들이 한국 현대연극의 전성기를 재현해나갈 수 있을지, 남산예술센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38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10월 13일 '아날로그&디지로그'라는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국내외 40편의 작품들은 아날로그적인 '무대'와 디지털적인 '첨단 기술', 예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시도'들을 결합한 채, 관객과의 짜릿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서울」에서 그들의 목록을 미리 펼쳐보았다.

70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의 입주작가 이수영, 리금홍. 이들 작업의 주제는 '가리봉 옌벤타운'이다. 가리봉동 조선족의 음식문화를 요리책 형식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앞으로 일 년 동안 이어갈 생각이다. 이들의 작업실인 2층 첫 번째 방에서 나눈 2009년 9월 13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

2009 / 10 / Vol 32

Seoul Founation
for Arts and Culture

COVER STORY
한국 현대연극의 메카인 드라마센터가 미래지향적 공연예술의 산실을 지향하는 남산예술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실과 구원'을 주제로 열리는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에 대학로를 이끄는 대표 연출가들과 스타 인디밴드가 뭉쳤다.
표지사진작가 | 최은선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Contents

02 CULTURAL NEWS 10월의 공연전시 소식

10월의 문화+서울

08 남산예술센터의 푸짐한 첫 상차림 –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14 따로 또 같이, 각각의 맛이 어우러지다 – 〈오늘, 손님 오신다〉를 만든 사람들
20 명품이 아니어서 좋다 – 연극평론가 김소연이 본 〈오늘, 손님 오신다〉

다시 보는 서울

24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 (하)
32 비하人드 붓 장인을 만나다
38 IMAGE SEOUL 밤인데! 산에 오르다!

지금 서울은

42 HOT SKETCH 춤을 생산하는 공간, 문래동 '춤공장'
48 HOT SKETCH 일일건축설계사무실 이야기
52 HOT SKETCH 40일간 펼쳐지는 진한 예술의 무대 –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8 EMERGING SPACE 우리는 사진을 마신다 – Photo Gallery Cafe
64 서울을 말한다 골목이라는 보물지도

사람과 사람

66 FOCUS INTERVIEW 기억의 공간, 공간의 꿈을 만들어 가다 –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김성욱
70 YOUNG ARTIST 2009 이주(移住)요리책을 만드는 작가 –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이수영 · 리금홍

서울 안과 밖

76 OPEN REPORT_서울 너머로 축제의 두 얼굴, 형식과 탈형식을 만나다 – 브레겐츠 vs 오리악
82 I AM A SEOULITE The Smallest Café in the World
84 OPEN REPORT_서울 속으로 대중에 한발 더 가까이 – 오케스트라 대중화를 꿈꾸는 '코리아W필하모닉'
88 한 장의 쉼표 세 '한스'들의 지난한 성장기
90 재단사업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100 재단소식
106 문화 캘린더
109 독자엽서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 발행일 2009년 9월 25일 | **등록일** 2005년 6월 8일 | **발행인** 안호상 |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홍보마케팅팀장 이현아 | 이승민, 변현정, 김민지, 신동석, 김보연, 나오미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130-823)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 제작 AGI Society 02.3141.9902 | **사진** AGI Studio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의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www.sfac.or.kr

공연예술의 견본시장
2009 서울아트마켓

일시 2009.10.12~10.16
장소 국립극장, 남산예술센터
문의 02-742-8191~5
홈페이지 http://www.pa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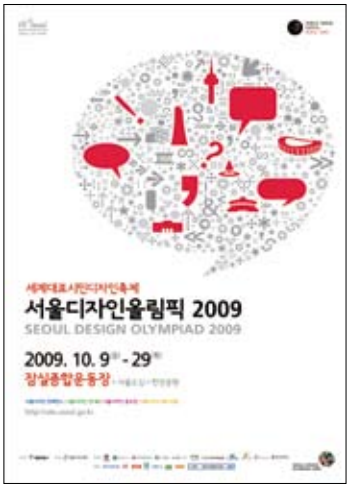
2009 서울아트마켓이 10월 12일(월)부터 10월 16일(금)까지 국립극장과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린다. 공연예술의 유통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아트마켓은 2005년을 시작으로 5회에 이르는 동안 200여 작품의 해외진출 교섭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연예술단체, 기관, 관련 기업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전시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정하여 쇼케이스 자리를 마련하는 팸스 초이스 2009(PAMS Choice 2009)가 진행되며, "창작에서 유통까지"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다양한 테마세션, 실무 워크숍인 월드뮤직과 북미공연예술현황 아카데미가 열린다. 또한 극장·축제 프로그래머, 기획사 및 프로듀서와 1:1 면담을 가질 수 있는 스피드 데이팅(Speed Dating), 세계의 권역별 공연예술정보를 알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연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부스 전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서 진행된다. 총 83개 부스를 설치하여 예술단체, 기관, 관련 기업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품과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아트마켓은 관심 있는 개인의 참관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자에 한해서 오픈하기 때문에 참관 신청이 필수다. 공연 공간 프로그램 담당자, 축제 프로그램 담당자와 공연예술 기획사 및 에이전트, 문화재단 및 협회 담당자 등의 문화행정가, 그리고 공연예술단체 기획자, 개인 예술가 등이 참가 대상이다. 사전등록은 9월 20일 완료되었으며 행사 중에도 현장등록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10월엔 '나도 디자이너'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



일시 2009.10.9~10.29
장소 잠실종합운동장, 광화문 광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한강둔치
문의 서울디자인재단 02-3705-0064
홈페이지 http://sdo.seoul.go.kr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가 10월 9일(금)부터 29일(목)까지 21일간 메인무대인 잠실종합운동장, 광화문 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한강둔치 그리고 홍대와 강남의 디자인 스트리트 등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을 통해 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간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세계디자인수도의 첫 공식 지정도시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i DESIGN(나는 디자인한다)을 주제로 남녀노소 모두가 디자인의 주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데,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Design is money'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미와 실용을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중 디자인 장터전은 디자인을 감상하고 다양한 디자인 아이디어의 상품화와 판매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 프로그램이다. 사고, 팔고, 교류하는 '장터'개념을 도입하며 창업 및 취업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메인 컨퍼런스는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 특별강연을 비롯해 국내외 유명 연사의 기조강연과 주제 강연, 라운드테이블 토론으로 구성된다.

전시회는 주제전시, 디자인교류전시, 시민참여전시, 특별전시 등 총 20여개의 다채로운 전시가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참여 가능한 디자인 세상'을 목표로 펼쳐지며, 시민, 기업,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 건축, 디자인, 예술의 각 영역을 넘나드는 탈 경계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첫 국제 레지던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개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서울시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Seoul Art Space_Geumcheon)이 오는 10월 7일(수) 개관한다. 서울시창작공간 중 처음으로 '국제 레지던시'를 표방한 금천예술공장은 국내외 예술가들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Global)미학과 로컬(Local)의 지역성을 실험,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 예술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스튜디오 22개실과 호스텔 5개실 및 공동작업실, 공동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각예술, 설치·영상, 공연·실험예술, 이론·비평·과학·인문학, 도시·자연미학, 글로벌 미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장르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및 산업·예술의 결합과 문화적 공공성을 실험하는 창작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금천예술공장에는 지난 8월 심사를 거쳐 선발된 14개팀 30여 명의 국내 예술가와 3개팀의 단기 외국 예술가들이 입주를 시작한 상태로, 작가들은 각자 작업 규모에 맞게 5~17평의 작업실에서 3개월에서 1년 단위(연장 가능)로 작업을 하며, 2010년부터 장기 해외 작가도 선정하여 명실공히 국제 레지던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게 된다.

한편 10월 7일 금천예술공장 개관식에서는 서울문화재단과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회장 홍남석, 이하 '가디컴')와의 문화산업 진흥 협력에 대한 상호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있을 예정으로, 두 기관은 향후 예술과 산업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실험을 도모할 계획이다.

개관식 행사는 10월 7일(수) 오후 2시 30분 금천예술공장 전 공간에서 펼쳐지며, 10월 8일(목)에는 '세계적인 창작공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금천예술공장 3층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창작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 시 창작공간 '뱅크아트(BankART1929)'의 디렉터 오사무 이케다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마트 프로젝트 스페이스(SMART Project Space)'의 디렉터 토마스 페즈(Thomas Peutz), 스페인 '앙가(Hanger) 레지던시'의 코디네이터 요아나 세르비아(Joana Cervia) 등이 참가해 발제할 예정이다.

문학, 한강에서 놀다
2009 한강문학축전

일시 2009.10.17
장소 선유도공원

서울의 중심에 흐르는 한강은 이제 시민들의 삶의 공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월 17일 선유도 공원에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예술과 놀이가 어우러진 문학축제, '2009 한강문화축전 – 문학, 한강에서 놀다'가 열린다. 상상력의 보고이자 문화 콘텐츠의 핵심인 문학을 통해 시민과 문인이 하나로 만나는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선유도 공원이 한국 문학의 허브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한강 헌장 선포식을 시작으로 행사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이어서 tbs 교통방송 라디오 공개방송을 통해 콘서트 형식의 축하 공연으로 한강 문학축전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KBS 1TV의 교양프로그램 '낭독의 발견'이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서울·경기지역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학교 대항전 및 개인전으로 진행하는 문학퀴즈, 문학 코스튬플레이, 개인기 자랑 등의 코너를 통해 각자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학청년들의 비상', 그리고 2009 한강문학축전의 사전 홍보를 위해 기획된 온라인 문학퍼즐 이벤트 〈당신이 진정한 문학의 고수〉 선발자와 가족이 문인들과 함께 선유도 공원 산책로를 돌며 문인의 작품과 한국문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인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산책'이 있다.

또한 문인들이 자신의 부스에서 작품에 대해 시민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가카페'도 열리며, 한강헌장 제정 선포식 축하 퍼포먼스에 사용된 100개의 걸개그림(만장)을 선유도 공원 일대에 전시하여 한국 현대문학 100년을 되새기는 '걸개문학 100년 전시회', 대산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현대문학 저명 작가 사진전시와 함께 주요 약력, 작품세계 등을 소개하는 '현대문인 사진展',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현대문학 베스트셀러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	메인 프로그램(방송 연계)	보조 프로그램	부대 행사
메인 프로그램	● **개막행사** 한강헌장 제정 선포식 11:00~12:00, 메인무대 (TBS TV)	● **축하공연**(TBS 라디오) 12:00~14:00, 메인무대 ● **문학청년들의 비상** 14:00~18:00, 원형극장 ●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산책** 15:00~17:00, 공원산책로 ● **작가카페** 14:00~17:00, 시간의 정원	● **낭독의 발견**(KBS TV) 19:00~21:00, 메인무대
상설 프로그램	● **걸개문학 100년展** – 공원 일원 ● **한국 현대문인 사진展** – 녹색기둥의 정원 ● **현대문학 베스트셀러展** – 선유마당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춤과 만나는 행복한 순간
제 12회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2009)

일시 2009.10.5~10.24
장소 예술의 전당, 서강대 메리홀, 고양아람누리, 도시 곳곳
홈페이지 www.sidance.org
문의 02-3216-1185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40개 단체 300여명 예술가가 참여해 서울시민을 찾아가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서강대학교 메리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고양아람누리, 남산 한옥마을, 이태원 등 13개 극장과 시내 곳곳에서 펼쳐진다.

한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목 받는 무용단들이 춤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줄 이번 행사는 외국 공식 초청작 11편과 국내 공식 초청작 17편,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5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국내외 무용비평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늘날의 무용문화와 비평에 대해 토론을 펼치고 새로운 담론을 생산해낼 공연저널리즘 서울포럼에 이어, 디지털 아트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무용이 만나 혁신적인 춤 장작과 장르 간 혼종의 방향을 모색하는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10.13~10.16 상상마당,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등이 연계행사로 열려 축제를 보다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놀라지 마시라'는 축제 기간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는 춤 여행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우연히 춤을 접할 수 있게 해 극장이라는 정형화된 무대가 아닌 도시 전체를 춤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무용친화 프로젝트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실험정신, 참신한 감각과 무대 밖 공간에 대한 열린 상상력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무용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10.9 한글날 개관하는
광화문 광장 지하 '세종이야기'

일시 2009. 10. 9 ~
장소 광화문 광장 지하
문의 02-120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담은 '세종이야기'가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옛 지하 보·차도(세종문화회관~KT 사옥) 공간에 마련된다. 디지털매체와 아날로그 연출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이 복합 연출공간은 한글날인 10월 9일 세종대왕 동상 제막과 함께 개관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 지하에 위치한 '세종 이야기'는 3,200㎡ 규모로 하단부와 30m의 지하터널을 새로 뚫어 동상과 연결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측·KT사옥 측 지하보도 입구와 동상 하단부에 설치될 입구 세 곳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세종이야기'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데스크에 점자 안내를 포함한 종합 안내사인은 물론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로 지원되는 음성안내 시스템을 갖추는 등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종이야기'는 세종대왕의 일생과 업적을 스토리라인으로 정리한 '인간 세종', '민본사상', '한글창제', '과학과 예술', '위대한 성군, 세종', 그리고 기획전시존 등 6개의 전시 존과 이벤트마당, 영상관, 뮤지엄 숍 등 기타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품을 홀로그램으로 연출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세종문화회관 출입구 쪽 로비공간에는 세종이야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훈민정음 서문이 음각된 이미지 벽을 구성할 예정이다.

세종대왕에 관한 콘텐츠 전시가 끝나는 곳에는 '소통의 뜰'을 만들어 기획전시 및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전문가의 강연과 시민들의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문화와 휴게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각종 세종대왕 관련 영상이 상영되는 '세종영상관'을 별도로 만들고, 휴게 공간 계단 쪽에는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관람을 마친 후에도 세종대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0월 9일 개관이후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일 12시간 무료로 개방된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점검 휴무이며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광화문 삼거리 정부중앙청사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영화나들이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일시 2009.10.18~11.3
장소 서울 용산 CGV, 아이파크몰 광장
홈페이지 http://www.siff.org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 용산 CGV를 중심으로 진행될 제3회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는 총 30여 개국 120여개의 장·단편 가족영화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는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테마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 가족들이 직면한 정신적, 환경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전하고자 하는 이번 축제는 장르의 구분 없이 가족코미디, 아동영화, 성장영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음악영화 등 가족이 함께 또 따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아직 자막을 못 읽는 3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위해 씨네자키가 자막을 대신 소리 내어 읽어주며, 진지한 성장영화부터 판타지, 어드벤처 영화들까지 청소년들의 나이대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또한 사전 진행된 UCC 페스티벌 당선작을 특별 상영하는 한편, 3D 단편 모음전에서는 깜찍한 캐릭터와 신나는 이야기로 구성된 3D 단편 입체영화들도 체험할 수 있다.

10월 29일 목요일 저녁 8시 영화 상영 후에는 SF를 사랑하는 영화인들과의 대화가 CGV용산에서 진행되며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심야상영에서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는 음악과 댄스 영화 세 편이 오른다. 이밖에도 B-Boy댄스, 초기 로큰롤 공연 등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게 할 예정이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할 야외상영은 CGV용산 아이파크몰 4층 이벤트 파크에서 이뤄지며, 대중적이면서도 가족단위 관람객 전체가 연령에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를 상영한다.

10월 24일 도심에서 펼쳐지는 감동의 레이스
2009 나이키 휴먼레이스

행사명 Nike + The Human Race Seoul 10k
일시 2009년 10월 24일 (레이스 : 오후 4시 / 콘서트 : 오후 5시 30분)
참가인원 20,000명

뉴욕, 파리, 베를린, 멕시코시티, 도쿄, 광저우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나이키 휴먼레이스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10월 24일 오후 4시,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휴먼레이스 세 팀을 이뤄 참가자들이 각 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는 '열정 연아의 passion'팀,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도전지성의 challenge'팀, DJ DOC와 함께하는 '명랑DOC의 Fun'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김연아 선수와 짝을 이뤄 참여할 예정이다. 레이스 참가자가 열정연아팀을 선택하면 저소득층 자녀의 예술영재 발굴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에 매칭 후원된다. '도전지성의 challenge'팀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체육 장학금을 지원하고, '명랑DOC의 Fun'팀에서는 결식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돕게 된다.

나이키 휴먼레이스는 10km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참가자의 넷 타임 기록이 기록칩에 의해 자동 기록된다. 20,000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가 선택한 팀이 승리할 경우, 연계된 팀의 기부처로 가장 많은 금액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휴먼레이스가 끝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콘서트도 마련되어, 서울시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리 | 심다혜(오픈리포터)

특집 10월의 문화 + 서울

1 남산예술센터의 푸짐한 첫 상차림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2 따로 또 같이, 각각의 맛이 어우러지다 **〈오늘, 손님 오신다〉를 만든 사람들**

3 명품이 아니어서 좋다 **연극평론가 김소연이 본 〈오늘, 손님 오신다〉**

10

남산예술센터의 2009 시즌이 시작되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즌 개막작인 〈오늘, 손님 오신다〉로
첫 선을 보인 남산예술센터의 무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문화+서울」 이번 호는 이 무대를 만든 사람들, 무대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무대를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담았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10월의 문화+서울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Contemporary & New Wave

남산예술센터의 푸짐한 첫 상차림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남산예술센터의 집들이가 시작됐다. 어떤 집이 지어졌는지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도 꽤나 고심했을 터.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은 이 시대가 주목하는 연출가들의 시선을 빌어 동시대의 사회적 단면을 엿보는 무대로 꾸며졌다. '상실과 구원'이라는 테마 아래 차례로 초연되는 신작들이 한국 현대연극의 전성기를 재현해나갈 수 있을지, 남산예술센터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본다.

6,70년대 한국 현대연극의 메카였던 드라마센터가 남산예술센터로 재탄생했다. 지난 9월 초, 남산예술센터는 연극을 초석으로 무용, 미디어, 음악 등 복합장르의 공연양식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새 깃발을 들어올렸다. 나아가 2010년부터는 상주예술가 시스템을 갖추고 작가와 연출가가 팀을 이뤄 공연작품을 완성시켜가는 제작중심 공공극장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2009년 첫 시즌의 테마는 '상실과 구원'이다. 동시대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는 이 두 단어가 라인업에 올라 있는 작품들에 어떤 모습으로 담겨 있는지 살펴보자. 이번 시즌에는 이성열, 최용훈, 박근형, 고선웅, 안경모, 구태환 등 한국 현대연극의 미학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3,40대 연출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며, 개막작의 옴니버스 구성에 참여한 작가와 연출가의 조합도 흥미롭다.

개막 프로그램인 **오늘, 손님 오신다** (9.11~9.20)는 세 명의 작가, 세 명의 연출가가 오늘, 인간, 도시라는 화두를 놓고 2009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최치언 작, 최용훈 연출의 〈얼굴들〉, 고연옥 작, 고선웅 연출의 〈가정방문〉, 장성희 작, 구태환 연출의 〈미스터리 쇼퍼〉는 각각 독립된 에피소드로 창작되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었다. 연극은 광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서울의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준다.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체인 햄버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한국사회 종말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단절된 공간에 갇힌 아이들을 찾아온 선생님의 가정방문은 가정과 교육의 일그러진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공통되지만 다의적인 공간, 서울을 통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박근형 연출, 김민정 작의 **바다거북의 꿈** (9.26~10.4)은 극단 골목길, 박근형 연출의 신작이라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높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창작 팩토리 우수상 수상작인 '바다거북의 꿈'은 섬이라는 상징적이고도 고립된 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섬의 터줏대감 갑분 할머니가 죽은 뒤 아들 찬반이 돌아

10월의 문화+서울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오늘, 손님 오신다〉 리허설 무대

오자 섬은 조금씩 진통을 겪는다. 자신이 버려두고 간 딸 학자와 더불어 살고, 보상을 핑계로 강탈한 포크레인을 끌고 다니며 찬반은 섬의 무법자가 된다. 찬반이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쓸수록 일은 자꾸 어긋나기만 한다. 극단 골목길에 간판 배우인 윤제문, 고수희, 주인영, 김주완, 이달형, 이덕재, 이승준이 출연하며 지난 봄 연극 〈하얀 앵두〉의 호연으로 주목 받은 박수영이 극단 골목길과 첫 작업을 한다. 무대에 올려질 1.5톤의 포크레인은 또 하나의 등장인물 로 특별 출연한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인 **FESTIVAL 場** (10.7~10.16)은 1997년 국내에서 개최된 젊은 문화축제 場을 남산예술센터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공연장 브랜드 축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신진예술가를 발굴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게 기획진의 의지다. 올해는 극단 몸꼴, 4관객 프로덕션, 김윤진 무용단,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와 도쿄데스락의 합작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그동안 〈오르페〉, 〈리어카, 뒤집어지다〉, 〈구도Ko-Do〉 등 극단 몸꼴의 신체극에 열광했던 관객이라면 신작 〈허기진 휴식〉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지, 그런데 마음이 고플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작은 방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남녀의 애처로운 자살 시도를 보여준다. 서로를 향한 외침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몸짓이 때로는 우스꽝스럽지만 숨기고 싶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4관객 프로덕션의 〈The Blue〉에서는 시로 재탄생한 햄릿을 만날 수 있다. 4관객 프로덕션은 그동안

서양의 고전 작품을 현대적 무대기법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온 젊은 실험극단으로 연극, 음악, 미디어, 무용 등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미디어가 대체적 이미지로서가 아닌 배우와 함께 호흡하는 제2의 배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김윤진 무용단의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는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에서 착안, 마술적인 미디어 영상과 억압된 몸의 현존을 그린 작품이다. 안무, 무용, 시각예술가로 구성된 세 여성예술가들의 협력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이 공연은 언어로 해명하기 어려운 몸의 징후와 욕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다. 때문에 전문 무용수가 아닌 시각예술가와 무용수가 무대에서 공연자로 출연, 무대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실험해본다. 시각예술가가 무대에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영상으로 실시간 투사하는 미디어와의 만남도 주목해볼만하다.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와 도쿄데스락의 합작 공연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타다 쥰노스케의 연출로 해체와 재구성을 시도한다. 때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같은 친숙한 유희가 원작의 이야기에 실리며, 거친 록 음악과 최신 댄스음악이 인물들의 정서를 뒤덮기도 한다. FESTIVAL場은 매년 차세대 공연예술단체의 젊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앞으로 한국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실험축제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한편, 중국 상해연극예술센터의 **선비와 망나니** (10.19~10.20)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기간에 무대에 오른다.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는 선비 서씨가 검객이었다가 우연히 지역 대표 고깃집 주인이 된 마씨의 고깃집에 합류하여 그곳에서 삶의 재미와 철학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짧은 공연기간이니만큼 미리 예매하여 놓치지 말기 바란다.

안경모 연출, 김민정 작의 **길삼봉뎐** (10.27~10.31)은 연우무대 〈해무〉의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공연이다. 길삼봉뎐은 왜란의 전운이 감도는 조선시대, 동서로 나뉘어 당파싸움만 일삼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선조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민심의 동요로 정여립의 역모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빌미삼아 조정은 길삼봉이라는 허깨비 모주를 잡아들이기 위해 피를 부르는 사화를 일으킨다. 천재 선비 1,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기축옥사가 바로 그것. 피를 부른 참혹한 사화는 3년이나 계속되는데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고서야 길삼봉은 잡지도 못하고 끝이 난다. 그때 눈먼 자들이 벌이는 조정의 정치판을 보고 백성들이 울분과 한탄 섞인 노래를 부른 것이 등등곡(等等曲)이었다고 한다. 공연은 시종일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형식과 내용으로, 산자들의 역할 놀이를 하는 기괴한 형상의 코러스들이 노래와 춤, 음악으로 등등곡 판을 벌일 예정이다. 길삼봉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로 수천 명의 선비와 백성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역사적 순간을 재조명해보며 1589년에 일어난 기축사화를 통해 2009 기축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라마 콘서트〈정말 별 일 없었는지〉는 젊은 세대들의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을 만한 시즌 프로그램이다. 작년 한 해 88만원 세대, 갈 곳 없는 청춘들의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면, 그것은

10월의 문화+서울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상실과 구원'

1

2

3

4

5

1 장기하와 얼굴들의 드라마
콘서트 〈정말 별 일 없었는지〉
2 바다거북의 꿈
3 선비와 망나니
4 운현궁 오라버니
5 Festival 場–김윤진 무용단의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일 것이다. 20대의 허무한 일상과 심정을 담은 자기 고백적 서사를 노래로 풀어내는 '장기하와 얼굴들'은 이제 젊은 세대의 대변자이자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별일 없이 산다〉의 1집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신인가수로서,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시간과 단상들을 테마로 하여 드라마 콘서트를 꾸린다. 장기하와 젊은 연출가 지영의 공동연출로 만들어낼 이번 드라마 콘서트는 포크와 록의 감수성을 조화시킨 음악, 극적 요소가 풍부한 노래들로 구성했다.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연극적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형태의 퍼포먼스 음악공연이 될 것이다.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할 공연은 이성열 연출, 신은수 작의 **운현궁 오라버니** (12.4~12.13)다. 1933년 조선,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던 이우가 방학을 맞아 그를 보좌하는 요시나리와 함께 운현궁을 찾는다. 나라를 잃은 시대에 그 의미를 퇴색한 왕실에서 거주하는 이우의 동생 혜원과 이광, 비운의 역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형 이건, 나라의 형편과 정세에 맞춰 입장을 교묘히 바꾸며 사는 박영효, 나라를 앗아간 일본인이면서 한국과 가깝고자 한 요시나리 등 이우를 둘러싼 인물과 시대의 쓸쓸한 분위기를 그린다. 2009 옥랑희곡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 역사적 소재에서 끌어낸 일상성의 무대 미학을 보여줄 것이다.

첫 시즌인 만큼 프로그램 모두 창작 초연으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신진작가들의 작품과 40대 연출가들의 만남도 눈길을 끈다. 남산예술센터는 앞으로 동시대 관객들과의 소통을 꿈꾸는 공연, 실험적이고도 현대 연극의 미학적 다양함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이 창작공간에서 탄생되는 작품들이 현대 연극의 활로가 되기를, 젊은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본다.

공연문의 758-2150 **예매처(인터파크)** 1544-1555

기간	제목	연출	작가
9.11~20	**오늘, 손님 오신다**	최용훈, 고선웅, 구태환	최치언, 고연옥, 장성희
9.26~10.4	**바다거북의 꿈**	박근형(극단 골목길)	김민정
10.7~16	**Festival 場**		
10.7~8	The Blue	4관객 프로덕션	
10.13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김윤진 무용단	
10.14	허기진 휴식	극단 몸꼴	
10.16	로미오와 줄리엣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도쿄데스락	
10.19~20	**선비와 망나니**	상해연극예술센터	
10.27~31	**길삼봉뎐**	안경모(극단 연우무대)	김민정
11.24~29	**정말 별 일 없었는지**	장기하, 지영	
12.4~13	**운현궁 오라버니**	이성열	신은수

※〈선비와 망나니〉는 인터파크 외 서울국제공연예술제(3673-2561)에서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글 | 김민정
22센티미터의 작은 발로 평생 밟을 수 있는 땅은 얼마나 될까, 누구를 만나러 다닐까, 무엇을 보러 다닐까, 몇 번이나 진흙탕에 빠지게 될까, 넘어지지 않고 잘도 돌아다니는 게 용하다는 생각을 하며 산다.

따로 또 같이,
각각의 맛이 어우러지다

〈오늘, 손님 오신다〉를 만든 사람들

예술감독 이병훈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개막작 〈오늘, 손님 오신다〉는 새롭게 태어난 남산예술센터의 첫 무대,
국내 초연의 창작극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작품은 무려 6명의 연출가와 극작가,
28명의 배우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실험적이고 모험적이었다.
우리나라 현대연극의 가파른 흐름 속에 새로운 방향의 물길을 여는 도전, 이 의미 있는 작업에
자신의 끼와 열정을 던진 사람들을 만났다.**

예술창작은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모험 **예술감독 이병훈**

큰 작품들로 내공을 쌓은 이병훈 예술 감독에게도 이번 작품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새롭게 태어난 남산예술센터를 한국연극의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순수한 예술적 야심, 그 원대한 목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개막작으로 초연하는 창작극을 선택한 것이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창작은 늘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야말로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배가 중간에 험한 파도를 만나 난파될지, 보물이 가득한 보물섬을 찾아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떠나야 해요. 이 극장을 실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작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관객과의 약속이기도 하니까요."

남산예술센터가 표방한 중요한 시대정신은 바로 동시대성. 이병훈 예술감독은 개막작의 내용과 형식이 모두 이러한 극장의 정신을 담보한 동시대적 연극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한국연극의 현재를 대표할만한 작가 3명과 연출가 3명을 한 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다함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개성이 확연히 다른 연극인들이 모여 함께 동시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한 시대를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동시대성'과 '도시'라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극본은 서로 너무 달랐다. 하지만 이병훈 예술 감독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창조의 가능성을 보았다. 각자의 세계로 충만했던 여섯 연극인은 동료의 눈을 통해 자신을 되살피고 새로운 상상력을 얻어 함께 작품을 발전시켜 나갔다. 설사 다다른 그곳에 보물이 없더라도 이병훈 예술감독은 또 다른 보물섬을 찾아 모험을 떠날 것이다. 연극이야말로 인간 내면의 깊은 물음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예술임을 믿기 때문이다.

극본의 진정성과 회화적 표현양식의 조우 **〈가정방문〉 연출가 고선웅**

공연 오픈을 5일 앞두고 〈오늘, 손님 오신다〉 리허설이 있던 날, 고선웅 연출가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빛은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보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의 설렘과 흥분에 가까웠다. 개막작의 연출을 맡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그는 3개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편집되어 무대에 오른다는 새로운 제작방식에 마음이 끌렸다.

"나와 스타일이 전혀 다른 연출가, 작가들과 함께하는 작업은 어떨지, 다른 연출가의 작품을 통해서만 만나본 작가의 작품이 나를 통해 형상화되면 어떤 작품이 될지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각자가 고민해온

〈가정방문〉 연출가 고선웅

〈얼굴들〉 작가 최치언　　〈가정방문〉 작가 고연옥　　〈미스터리 쇼퍼〉 작가 장성희

연극의 동시대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죠."

그는 고연옥 작가가 건넨 두 번째 에피소드 〈가정방문〉의 대본을 손에 들고, 작가의 의도를 어떤 그림으로 그려낼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동안 극작과 연출을 함께 해온 그에게는 다른 작가와의 작업이 익숙하지 않았다.

"제가 쓴 작품을 연출할 때마다 제 안의 야누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작가로서의 저와 연출가로서의 제가 서로 다른 관점의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죠. 이번 작품은 작가의 진정성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양식에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쓴 대본은 내 맘대로 찢고 꿰매면서 고쳤는데 남의 작품이라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다'는 그에게 이번 작업은 끊임없이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면서 가장 멋진 하모니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가정방문〉을 회화적인 느낌으로 풀어냈다. 인물들의 대사뿐 아니라 쓰레기더미 공간도 하나의 중요한 무대언어가 되어 관객들에게 말을 건다. 이제 남은 미션은 실수 없이 공연을 마치는 것. 자신의 연극이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일조할 수 있다면, 그는 언제라도 기꺼이 연극을 만들 생각이다.

내가 발견한 이 시대의 얼굴들 **〈얼굴들〉 작가 최치언**

첫 번째 에피소드 〈얼굴들〉의 극본을 쓴 최치언 작가는 극작가이자 시인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대사들은 시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동안의 작품에서 보여준 사회비판적인 풍자와 상징적인 이미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어내는 날카로운 시선도 여전하다.

'동시대성'이란 키워드가 던져졌을 때 최치언 작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광장'이라는 단어였다. 시청 앞 광장의 개방과 폐쇄를 둘러싼 갈등으로 '광장'이 현시대의 소통과 단절을 상징하는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늘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단어였다. 그는 '광장'을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얼굴로 기록하고, 이어 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또 다른 얼굴들을 찾아 나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그 중에서도 서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천루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어딘가에 있는 감시카메라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고 끔직한 일이죠. 감시카메라 자체가 우리를 따라 다니는 하나의 얼굴이에요. 또, 실제 얼굴을 바꿔주는 성형외과라는 공간이 있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 누구처럼 고쳐달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의 얼굴이 비슷비슷해져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높은 건물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서로를 고립시키며 살아가죠. 이러한 소통의 단절 역시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찾아낸 동시대의 서늘한 얼굴들은 〈얼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자신의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만나 어떻게 연극적으로 형상화될지 기대하며, 그는 또 기대한다. 남산예술센터가 이러한 실험정신을 끝까지 지켜 젊은 예술인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역사에 남기를.

정신적 구원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찾기 **〈가정방문〉 작가 고연옥**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물리적인 억압은 줄어들었지만 제도적인 억압과 정신적인 억압은 오히려 강력해진 것 같아요. 인간이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는 개체로 전락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사라지는 등, 제가 느낀 이 시대의 암울한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가정방문〉 극본을 쓴 고연옥 작가가 착안한 동시대적인 이미지는 '획일화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억압'이었다. 무겁고 방대한 주제였지만, 주변에서 소재를 끌어온다면 충분히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애의 입학식에 참석해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내용이 그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며 들었던 훈시와 일목요연하게 똑같았던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와 나라를 빛내는 어린이'가 되지 못하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공교육의 현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그녀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약한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그리고 TV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던 한 여자. 〈가정방문〉에 등장하는 '엄마'는 이러한 그녀의 고민을 품고 탄생했다.

동시대의 다른 작가, 연출가와 함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역시 신선한 경험이었다.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예상할 수 없어서 더 재미있었다는 고연옥 작가. 연극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날카로운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그녀가 있어 우리 시대의 연극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상징적 공간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간군상 **〈미스터리 쇼퍼〉 작가 장성희**

세 번째 에피소드 〈미스터리 쇼퍼〉는 장성희 작가가 어느 때보다도 재미있게 써내려간 작품이다. 중견작가로서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이번 작업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자 흥미진진한 모험이었다. 남산예술센터로 바뀌기 전, 드라마센터 시절부터 그녀는 남산 언덕배기에 오롯이 서있는 이 작은 건물과 무대를 특별히 사랑했다.

"서울예술대학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오가면서 정이 든 곳이에요. 하지만 교육공간으로서 만나는 무대였기에 마음 한구석엔 항상 아쉬움이 있었죠. 연극인으로서 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 꿈을 이번에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개막공연에 창작초연으로 평소 좋아하던 작가, 연출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더 설레고 즐겁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내 감각도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중견작가에게 슬며시 찾아온 기우를 단숨에 날려주는 신선한 바람. 그녀는 쾌활한 소녀처럼 통통 튀는 에너지로 후배 연극인들과의 작업을 즐겼다. 상징적 공간을 통해 소시민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품들을 써온 장성희 작가에게 '동시대성'이란 주제는 그리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 고민 없이 아이디어창고에 보관해 놓았던 단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를 끄집어냈다.

"미스터리 쇼퍼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서비스산업이 발달하고 기업의 고객서비스 정신이 강조되면서 각 매장의 청결과 서비스를 몰래 점검하는 직업이 생겨난 건데, 어떤 사람이 정체를 감추고 몰래 행동을 살펴본다는 사실이 좀 오싹했어요."

여기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패스트푸드점이란 공간을 접목시키고 다양한 인간군상을 불러왔다. "여섯 사람의 에너지가 시너지를 발휘해 멋진 제3의 언어로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진지하고 웃기고 때론 사무치는, 극예술만의 흥미를 모든 관객이 경험하게 되기를 그녀는 꿈꾼다.

〈가정방문〉 배우 최성희

비현실적 이미지로 현실적 공감을 끌어내다 **〈가정방문〉 배우 최성희**

두 번째 에피소드 〈가정방문〉에서 '엄마'로 출연하는 배우 최성희는 강한 카리스마 속에 소녀의 꿈꾸는 눈빛을 간직한 중견배우다. 대학동아리에서 '관심'으로 처음 만난 연극과 '사랑'에 빠지면서 순애보를 지켜온 지 어느새 18년. 하지만 그녀에게 연극은 아직도 만나면 설레고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미지의 연인이다. 가슴 뛰게 하는 삶의 에너지다.

엄마 역을 제안 받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엄마가 다 있나' 싶었다. 쓰레기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엄마. 외계의 파란별에서 아버지가 자신과 아이들을 구원하

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엄마. 그런데 대본을 한 번, 두 번 다시 읽다 보니 '이런 엄마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학교는 아이들을 죽이는 곳이라고 믿으며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엄마나, 아이를 학교와 학원에 잡아놓고 끊임없이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나, 결국 똑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란별은 그들이 꿈꾸는 구원을 의미하죠. 설정은 매우 연극적이지만 그 속에서 현실적인 공감을 끌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무엇보다 관객들이 자신의 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극 중 엄마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 눈 녹듯 서서히 인물에 스며들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 속에 감추어진 상처와 아픔,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에 공감할 수 있기를.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감정은 무뎌져가는 세상에서, 연극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즐거운 카타르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객이 자신의 연기를 보고 웃고 울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녀는, 천성 '배우'다.

〈미스터리 쇼퍼〉 배우 임지환

이미지의 벽을 깨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다 **〈미스터리 쇼퍼〉 배우 임지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 번째 에피소드 〈미스터리 쇼퍼〉에는 다양한 인물군상이 등장한다. 그중 20대 커플이 등장해 끊임없는 연애행각을 벌이는데, 여기서 끈적끈적한 남자친구 역할을 맡은 이가 배우 임지환이다. 진한 눈썹, 오뚝한 콧날과 섬세한 얼굴선. 학창시절 여학생들이 꽤나 쫓아다녔을 것 같은 외모를 지녔지만, 나름 '반듯한' 생활을 해온 탓에 처음 해보는 멜로 연기가 쉽지 않았다고.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연기하려니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더구나 처음 만난 상대 여배우와 스킨십을 하려니 자꾸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연출자에게 혼도 많이 났어요. 좀 더 과감해지라고. 이 작품을 통해 제 경험과 이미지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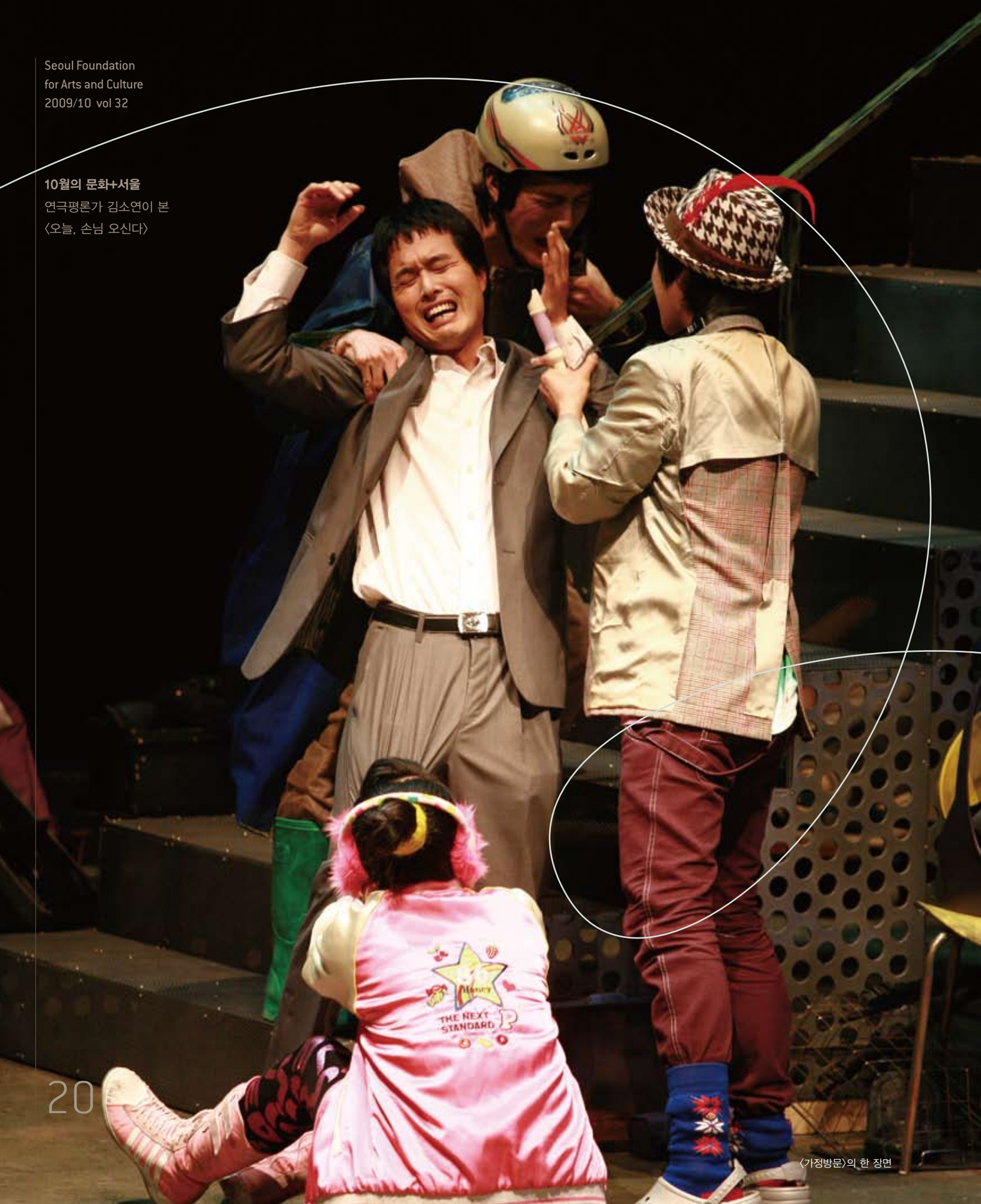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냐는 듯, 무대 위의 그는 진짜 '문제아' 같다. 소위 남의 시선 의식 안 하고 노는 애들,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 시대 젊은이들의 단면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은 절대 참지 못하는 청춘들. 하지만 알고 보면 극중 커플에게도 나름의 애환이 있다. "할아버지, 눈물 젖은 햄버거 먹어봤어? 할아버지가 인생을 알아?"라는 대사를 뱉어낼 때, 관객은 그가 겪었을 깊은 사회적 소외감에 함께 아파한다.

원래 대본대로라면 힙합 춤을 현란하게 춰야 했지만, 자신 없는 춤을 연습하느라 알맹이를 놓치는 대신 그는 과감하게 춤을 포기했다. 그리고 작품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 자신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기만의 반항적 이미지를 창조해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그 길이 창창해 더욱 기대되는 배우 임지환.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는 그가 '큰 배우'로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볼 시간이다.

글 | **이현구**
잡지기자, 사보기자, 광고기획사 카피라이터를 거쳐 현재 프리랜서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다양한 기업의 사보 및 간행물 필자로, 광고 카피라이터로, 매체를 넘나들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

사진 | **강진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졸업. (주)AMANA JAPAN을 거쳐 현재 AO STUDIO를 운영하고 있다.

10월의 문화+서울
연극평론가 김소연이 본
〈오늘, 손님 오신다〉



〈가정방문〉의 한 장면

명품이 아니어서 좋다

연극평론가 김소연이 본 〈오늘, 손님 오신다〉

남산예술센터가 대학로 소극장과 접속했다.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른 〈오늘, 손님 오신다〉는 기존의 소극장 공연이 어떻게 중극장에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뜻 깊은 무대였다. 완벽한 어우러짐이었다고 하기에는 2% 부족할지 모르나, 그 시도와 일관된 구성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 작가와 세 연출가가 각각 만든 세 편의 단막극으로 하나의 공연을 만든다? 남산예술센터 2009 시즌 개막작 〈오늘, 손님 오신다〉의 이러한 계획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작품 자체만큼이나 궁금했다. 그리고 막을 연 〈오늘, 손님 오신다〉는 세 편의 단막극이 오롯이 제각각의 모습을 한 한 편의 공연이었다.

하여 그 모습은 이러하다. 무대 중앙은 미스터버거 매장이다.(〈미스터리 쇼퍼〉 장성희 작, 구태환 연출) 오늘은 마침 매장의 서비스를 불시에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점장은 매장 직원들에게 꼼꼼히 주의를 주고 매장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유난히 신경을 쓴다. 미스터버거의 매장 뒤,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은 무대 뒤편에 자리 잡은 쓰레기 집하장과 연결된다.(〈가정방문〉 고연옥 작, 고선웅 연출) 이곳은 학교가기를 거부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오늘 이곳에는 엄마와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 그리고 무대 양쪽 발코니와 후면 천장에서는 쿵쿵 울리는 발자국

1 〈미스터리 쇼퍼〉의 한 장면
2 〈얼굴들〉의 한 장면
3, 4 〈가정방문〉의 한 장면

1

2

3

4

소리에 불안에 떠는 가족, 얼굴을 도둑맞았다는 여자와 얼굴을 고쳐주겠다는 여자, 그리고 폐쇄화면 모니터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는 이들이 있다.(〈얼굴들〉 최치언 작, 최용훈 연출)

세 편의 단막극은 이렇게 무대 위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교차로 진행된다. 각각의 작품은 서로 다른 공간에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도리어 이런 이야기들의 동거는 거대한 도시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층적으로 펼쳐놓는 매력적인 드라마의 구성을 보여준다. 무대 중앙 〈미스터리 쇼퍼〉가 햄버거 매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이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을 통해 미처 다 알 수 없는 도시인의 조각조각의 사연을 펼쳐놓는다면, 무대 상단의 구석 구석에서 전개되는 〈얼굴들〉은 햄버거 매장을 들고 나는 바로 그 도시인들이 일상의 공간에서는 채 드러내지 않았던 불안과 공포, 관음증과 증오가 숨어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무대 깊숙이에서 전개되는 〈가정방문〉은 도시의 배설물이 가득한 쓰레기 집하장을 무대로 이 도시인들을 거대한 도시의 부속품으로 훈육시키는 현대사회의 제도와 그에 대한 저항을 그린다.

한편 '따로 또 같이' 세 작품의 동거는 남산예술센터라는 공간이 한국연극의 생산기지라 할 대학로 소극장 연극과 접속하는 데에도 유효했다. 〈오늘, 손님 오신다〉에 참여한 세 작가와 세 연출가는 대학로 소극장 연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각각의 단막극들은 그간 소극장 연극에서 보여 온 이들의 스타일과 성취의 연장에 놓여 있으면서도 세 작품의 동거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과 시선을 만들어낸다. 소극장의 성취를 중극장에 접속하는 영리한 드라마트루기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시도는 매우 값지다. 최근 문을 열고 있는 공공극장들이 '명품극장'을 내세우면서 고전을 명품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남산예술센터는 출발부터 동시대 작가들과 같이 호흡하는 첫걸음이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따로 또 같이'의 긴장이 연극의 마지막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매끄럽게 연결되는 장면들의 교차는 각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시선을 대비하기보다는 연극의 원활한 전개에 머물렀다. 특히 연극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다. 〈미스터리 쇼퍼〉에서 북핵에 대비한 등화관제 경보 사이렌이 극장 전체를 울리던 마지막 장면은 각 공간의 시선에 대한 결론을 채 묻지 않은 채 서둘러 막을 내리는 아쉬운 선택이었다.

글 | **김소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 위원, [컬처뉴스] 편집장을 지냈다. 무대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연극평론을 쓰고 있다. '상업지구 대학로를 다시 생각하다' '이 철없는 아비를 어찌할까' 등의 비평이 있다. [weekly@예술경영] 편집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사진 | **최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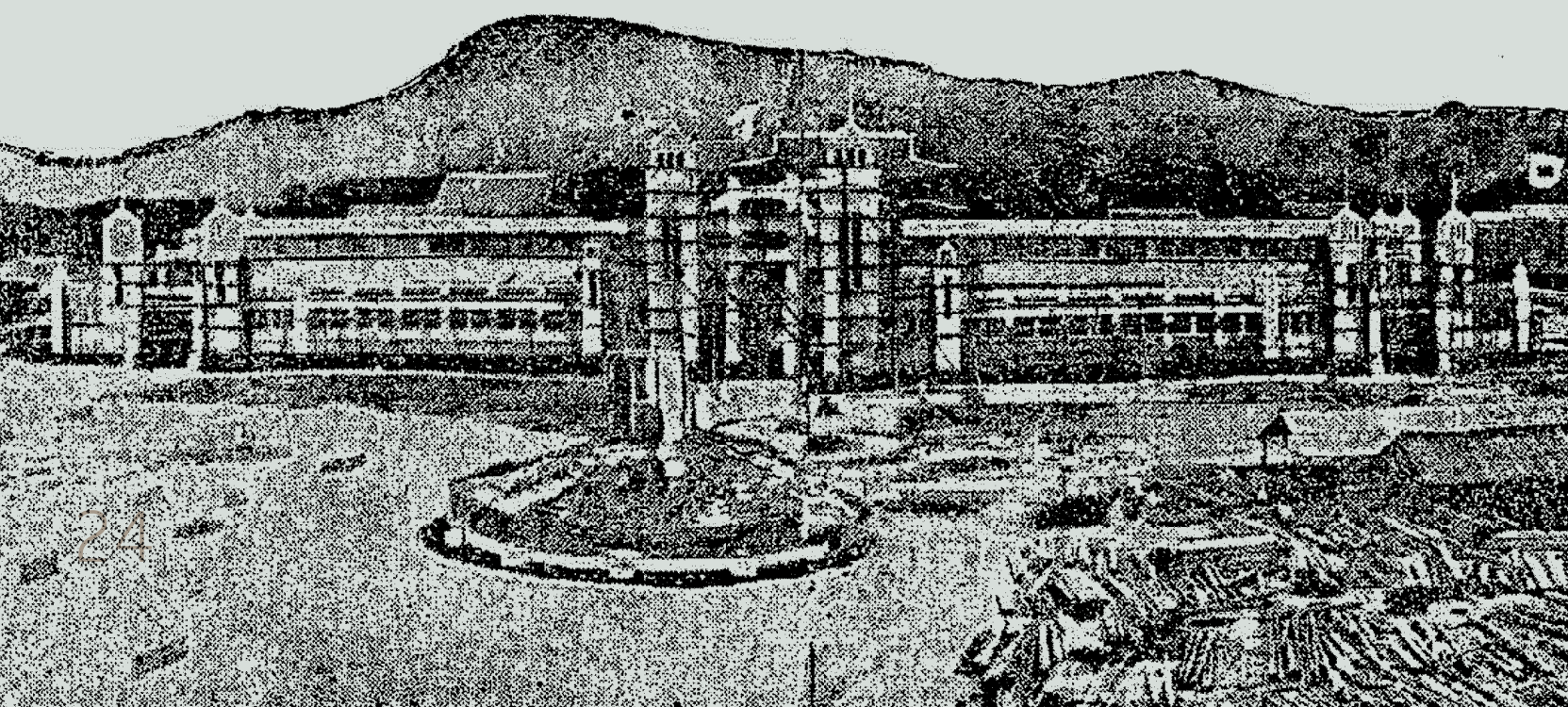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다시보는 서울
이경민의 경성 산책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하)

9월호에 실린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상)에
이은 속편입니다.

80년 전인 1929년, 경성에서는 시정 20년을 기념하는 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달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상)'에서는 이 박람회에서 벌어진 사건사고와 당시의 박람회 규모에 대해 소개했다. 조선을 들썩이게 했던 경성 박람회, 이번에는 그 뒷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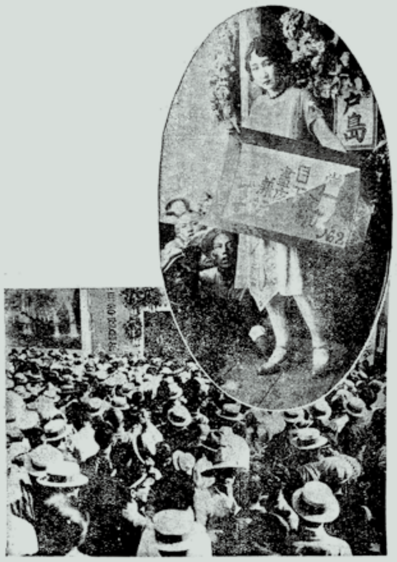


마네킹 걸과 키스 걸의 등장

'구보씨, 박람회에 가다'(상)편에서 언급했듯이, 경성협찬회는 조선박람회의 사업을 협찬하고 그 성공을 돕기 위해 경성의 상공인과 각계 유지들로 조직되었으며, 각 지방에도 협찬회가 조직되어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였다. 특히 경성협찬회에서는 입장권 판매를 비롯하여 각종 매점의 설비 및 회장 내 음식점과 유흥업, 그리고 광고 등의 사무 처리, 여흥 설비, 사진엽서와 안내도서 등의 제작 및 판매, 관람자의 권유 알선, 선차(船車)와 여관 등 관람자의 편의 도모, 내빈의 접대, 관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역설명 업무 외에도 각종 대회 등의 알선, 명소 고적 소개, 그 밖에 박람회의 성공을 돕는데 필요한 사업을 조선총독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였다. 협찬회는 이러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각종 선전과 설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개회 전부터 문서 및 인쇄물, 신문, 선전 데이(day), 비행기, 점두장식, 마네킹, 라디오방송 등을 이용하여 홍보에 나섰으며, 연예관, 접대관, 야외극장, 어린이 나라, 매점 및 음식점, 만국가 및 마네킹 걸 무대, 안내소 등 건축물 및 조영물 설비에 만전을 기했다.

협찬회의 선전 방법 중 흥미로운 것은 조선에 처음 소개되어 대중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마네킹 걸'이었다.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앞 광장과 회장 내 사법경무위생관 앞 광장 등 2개소에 마련된 무대에 마네킹 걸을 등장시켜 9월 5일부터 개회 당일까지 매일 주야 2회씩 박람회를 선전했으며, 매 회마다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프랑스 파리가 원조인 마네킹 걸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 유입되어 유행되었다고 한다. '10분이고 20분이고 눈동자나 손끝발끝 하나 꼼짝 못하고 많은 호사객들의 앞에 서서 몇 푼의 보수를 받는' 마네킹 걸은 모던 걸들의 새로운 직업이었다. 요즘도 의류매장 쇼윈도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상을 입고 마치 마네킹처럼 포즈를 취한 채 일정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있는 남녀 모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마네킹 걸과 마네킹 보이의 기원을 조선박람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편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이러한 선전방식에 대해 당시 조선 지식인의 시선은 곱지 않았으며, 일본에서는 한 마네킹 걸이 당 조합의 마수에 걸려 비관하다가 자살을 기도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적도 있었다. 조선일보의 안석영은 1929년 9월 8일자 신문에 게재한 만문만화에서 경성부 구청사(현 신세계백화점 자리) 앞에 운집하여 일본에서 초청한 마네킹 걸 일행을 보고 있는 조선의 신사숙녀 모던 걸, 모던 보이들을 향해 '마네킹 걸이나 관중들의 눈동자나 몸짓이 똑같아서 어느 게 마네킹인지 모르겠다'며, 이 땅의 사람들을 모두 마네킹으로 만들어 놓은 협찬회의 크나큰 복안에 그저 놀라워했다. 그의 말마따나 140만 명에 달한 박람회 관람자는 주최 측이 전 조선에서 동원한 식민지 마네킹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마네킹 걸이 언제까지 유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33년 8월 종로네거리에 있던 화신상회 화장품부에서 조선박람회 이후 처음으로 마네킹 걸 두 명을 일본에서 데려와 제품 홍보에 동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무대에 나타난 마네킹걸과 구경꾼들 모습, 1929. 9. 7

마네킹 걸과 더불어 '키스 걸'도 이때 등장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고용된 여간수들 중 일부가 일금 50전에 키스를 팔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 이들을 두고 '키스껄'이라고 불렀다. 예의 안석영은 1929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만문만화를 통해 '키스 껄의 출현' 원인이 생활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들의 직업으로는 꽤 비싼 직업으로 장차 번식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전망을 했다. 키스 걸은 '버스 걸'이나 '마네킹 걸'처럼 새롭게 등장한 근대 여성의 직업에 붙여진 이름 중의 하나였지만, 식민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조선 여성이 겪어야 했던 기생과 같은 역할을 대변하는 용어이기도 했다. 최근 뉴스보도를 통해 신종 퇴폐업소의 하나로 '키스 방'이란 것이 소개되곤 하는데, 성을 사고파는 자본주의의 병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다.

경성협찬회의 비리와 각종 분규

협찬회는 마네킹 걸을 동원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박람회를 선전하는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러한 노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박람회가 개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먼저 개장 당일까지도 일부 전시관과 특설관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시간에 쫓겨 시공하는 바람에 60mm의 폭우가

◇『키쓰껄』의 出現◇
『스톱껄』쯤이야 간판붓치고 해먹자는안엇지만조
선에도잇섯다 고볼수잇고 『마네킹껄』은 협찬회의
소개로구경도하엿지만 박람회에서 『키스껄』이생
길줄은 뜻밧기다 박람회녀간수(女看手) 중에 일
금오십전에키스를팔다 가내여쫏긴녀자가잇다원
인은 생활난이라할수도잇겟지만 녀자들의직업으
로는 꾀빗싼직업은 장차로번식될듯 키스껄의 직
업일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서 이러한새류행이 생
기리라고는 누구나뜻도못한일이엿겟지! 뜻도못
한일이 곳잘생기는곳은조선이라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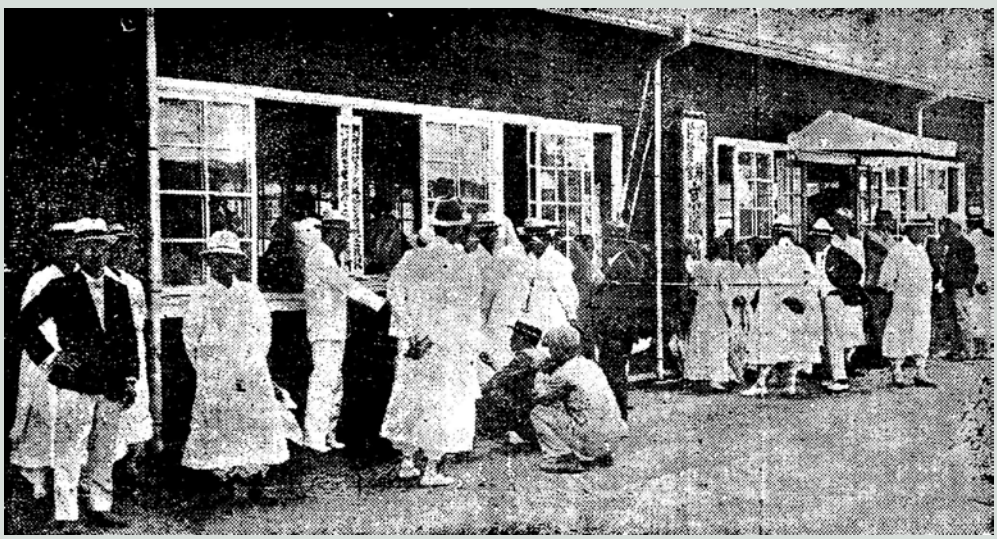
안석영, '키스껄의 출현', 〈조선일보〉, 1929.9.22

내린 9월 14일에는 본관과 특설관에 비가 새어 진열품들이 물에 잠기고 광고탑과 전등주 등이 피해를 보았다. 사실 개장 전인 8월 26일에도 경성역 앞 광장에 세워놓은 너비 30척과 폭 20여 칸의 박람회 환영문이 날림공사로 인해 5분간의 폭풍우조차 견디지 못하고 의주통행 전차선로와 신용산 전차선로에 쓰러져 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있었다.

더구나 협찬회가 직영하는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했는데, 설계서와 준공된 건축물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보였으며 공사비도 청부금과 차이가 많아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회장 안의 연예관, 어린이나라, 비행탑과 거리에 세운 장식탑 등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소문이 일자 협찬회장이자 경성부윤이었던 마츠이(松井房治郎)는 부정공사에 대한 비밀조사를 지시하였는데, 만국가의 경우 1천원의 경비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 장부에는 3천원으로 기재되었으며 경성역 앞에서 태평통 동아일보 사옥 앞에 이르는 양쪽 도로에 세운 장식등도 하나에 18원씩 청구되었으나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10원 정도면 훌륭히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회와 관련된 추문은 이미 박람회 개장 전부터 들려왔다. 회계를 맡은 한 간부가 일반 민간의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가 하면, 매점 설치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도 일어났다. 회장 출구 쪽에 마련된 60곳의 매점 운영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서 일본인에게 43곳을 배분해준 반면, 조선인에게는 17곳만을 내주는 불공정한 분배를 했던 것이다. 조선인 상인에 대한 차별대우뿐만 아니라, 조선인 상가 가로에 대한 불공정한 사업 운영도 구설수에 올랐다. 즉 협찬회는 경성부민으로부터 일정한 기부금을 받아 가두장식을 공평히 해주기로 했으나, 일본인 거리인 남촌에는 화려한 장식을 해준 반면 조선인 거리인 종로 일대에는 장식이 좋지 않은 등롱대를 멀찍이 세워주었을 뿐이었다.

또한 협찬회는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회장 안팎의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수많은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업종 중의 하나는 여관업이었다. 지방 구경꾼들을 손님으로 맞기 위해 종로 관내에 평소 140여 처에 불과했던 조선인 운영의 여관이 박람회를 앞두고 급조되어 300여 곳에 달하였다. 그러나 개장 이래 열흘이 지나도록 손님이 들지 않자



협찬회사무소에 담판하러
몰려온 여관업자들, 1929.9.15

지방에 내려가 호객행위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렇게 급조한 여관 중 협찬회와 계약을 맺은 박람회 지정 여관에도 지방 관람객들이 투숙하지 않자, 임시 여관업자들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여관업자들은 협찬회 측이 박람회를 맞아 많은 손님이 예상되므로 설비에 충실하라고 하여 모두 수백 원 내지 천 여원의 비용을 들여 새 단장을 마쳤으나, 단체 손님을 한 곳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지정 여관 350여 곳의 수용력은 5만인 이상이었으나 매일 상경하여 투숙하는 손님은 1,500명에 불과하여 단체 상경객을 공평히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지정 여관업자들의 손해는 불 보듯 뻔했다. 이는 협찬회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결국 파산자만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협찬회의 지정을 받은 동부여인숙조합원 29인은 10월 16일 식도원에 모여 대책을 강구했는데,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잘못된 수효 예측에 의한 피해는 여관업자만 입은 것이 아니었다. 경성협찬회의 흥행 선전을 믿고 많은 비용을 들여 매점을 불하받은 상인들 또한 예상 외로 고객이 오지 않자 협찬회 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분규를 일으켰다. 협찬회 측과의 교섭 끝에 매점으로 건너가는 육교의 폭을 넓혀 왕래를 편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분규가 타결되자 이번에는 장외 흥행업자와 음식점 영업자들이 사활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람회장 출구인 제2회장 문 밖 장소에 상당한 금액을 내고 음식점을 비롯하여 인류관, 세계제일관, 동물원, 중국 연극 같은 흥행물을 만들었는데 관객 전부가 출구로 나가지 않을뿐더러 장내에 허가하지 않기로 한 만국가와 서커스장이 설치되어 장외의 흥행물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잃게 된 것이 이유였다.

협찬회의 추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선전과 기념품으로 제작한 사진엽서 대금 1만여 원을 갚지 않아 12월 26일 협찬회장이 고소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해를 넘겨 1930년 2월 대금지불을 약속하고서야 고소가 취하되었다. 결국 박람회는 온갖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채 몇몇 업자만 수입을 올렸을 뿐, 폐회하자마자 온갖 후유증으로 전 조선이 몸살을 앓게 되었다.

조선박람회 특수를 노린 조선총독부철도국의 신문광고, 〈조선일보〉, 1929.9.12

박람회가 남긴 것, 조선인 상계와 농촌경제의 몰락

박람회가 치러진 경성의 경제는 개장 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폐회 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박람회 기간 중 경성은 지방 관람객들이 일시에 6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소비한 결과 반짝 호경기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0월 중순 당시 언론들은 박람회 종료와 함께 그 반동으로 한 층 더 심각한 경제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당장 박람회의 개최기간 동안 임시 고용되었던 3천여 명이 실직자로 전락했으며, 빚을 내서 각종 시설과 물품에 투자했던 상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경우들이 속출했다. 거리에 실직자들이 급증하자 경찰당국에서는 경제사범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특별 경계에 나섰으며, 결과적으로 전년 동기 범죄율이 종로경찰서에서만 5할이나 증가하였다.

박람회 이후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 상계(商界)는 치명상을 입었다. 종로의 상인들은 박람회 특수를 기대하고 수형(手形, 어음)을 발행하여 물건을 있는 대로 사 모았고, 설비투자에도 비용을

안석영, '목 놓아 우는 여관업자들', 〈조선일보〉, 1929.9.22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구매력은 예전의 공진회만 못했으며 오히려 한산할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다. 포목상, 잡화상, 금은상 등의 거상은 물론, 오방재가(伍房在家), 양복점, 시계포, 양화점 등의 소상에 이르기까지 매매가 극히 부진했으며, 반찬가게, 이발소, 목욕탕 등의 영세 영업자들도 전년 동기 절반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김장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더욱 한산하여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빚을 얻은 상인들은 여관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은 물론 돌아오는 어음도 막지 못해 파산자로 전락했다. 조선인 상계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정통(현 충무로)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상계는 세련된 상가 장식과 풍부한 상품을 구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할 정도의 매상을 올려 자못 은성(殷盛)하였다.

남촌의 일본인 상인들처럼 박람회 특수로 매상을 올린 업종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수익을 낸 곳은 대개 유곽과 요릿집 같은 유흥업과 음식업 그리고 기차와 전차, 부영버스 등의 교통업이었다. 이는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성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에 불과했다. 교통업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곳은 철도국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여만 원이 증수되었고, 경성전기회사도 전차 승객이 예년에 비해 2~3만 명이나 증가했다. 192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부영버스도 상당한 수입의 증가가 있었으나, 박람회를 기회로 거액을 설비 투자하여 수지면에서는 오히려 결손이 났다. 택시영업의 경우도 수효면에서 100대나 증가하고 수입도 매일 한 대당 10원 내외의 증수가 있었으나, 빚을 내고 택시영업에 뛰어들거나 무리한 영업확장을 했기 때문에 박람회 이후 여러 곳의 업체가 문을 닫아야만 했다.

경성의 조선인 상계가 몰락하고 실직자들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농촌의 경제상태도 박람회를 계기로 더욱 황폐화되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군·면장들의 독려로 박람회 관람에 나선 농촌 사람들 대다수가 금융조합에 적게는 10~20원에서 많게는 40~50원씩 빚을 내어 그 돈으로 여비를 충당하였는데, 1인당 평균 여비를 최소 10원씩만 잡더라도 약 600만원의 막대한 돈이

경성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며 그만큼 농촌경제는 일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간파한 재무국에서는 박람회 독려가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한편 농촌 1호당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지정 면(面)에는 70원, 보통 면에는 50원이나 되는 세금징수에 체납이 없도록 소속당국에 주의를 시켰다. 총독부에서도 각도 경찰부장으로 하여금 박람회가 끼친 민중생활상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재산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박람회를 보고 조선 문물의 변화에 대하여 경이와 감탄을 느낀다. 그러나 일반인은 경성과 박람회의 설비를 당장은 경이의 눈으로써 바라보나 지방의 금전이 경성으로 집중되어 가뜩이나 피폐한 농촌의 경제 상태는 더욱 핍박을 보게 되리라고 우려된다'는 보고가 경무국에 제출됐다. 행정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로 인한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식민지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선의 발전을 촉진하고 조선반도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는 조선박람회는 결국 조선총독부와 경성협찬회의 온갖 선전과 현란한 구호와는 달리, 경성과 농촌의 모든 가계에 빚을 늘게 하고 조선인 상계의 몰락과 실직자의 급증만을 불러왔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박람회의 성공을 담보한 140여만 명의 관람객 숫자는 허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헐리는 동십자각 궁장, 1929.7.4

박람회의 정치학, 조선왕조의 흔적을 지우다

제국주의 시대의 박람회는 경제적 산업적 목적 이외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일제는 1907년 고종의 퇴위 이후 본격적인 식민지배에 들어가면서 조선 고유의 재현체계를 일본의 근대적 재현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무엇보다도 조선 왕조의 상징성을 해체하고자 노력했다. 대한제국 황실의 복식제도와 어진제도를 일본식으로 대체했으며, 1910년 강점이후 조선총독부는 초기의 도시계획인 '시구개정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선 왕조의 상징성을 체계적으로 지워나갔다. 특히 박람회를 빌미로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을 훼손시켰는데, 조선물산공진회(1915년)와 조선부업품공진회(1923년) 그리고 조선박람회(1929년) 등의 박람회가 차례로 열리면서 고종 시대 330여동에 달하던 경복궁의 건물들이 대부분 철거되어 근정전과 경회루 등 일부 건물만 남게 되었다.

1915년 경복궁의 전면부를 박람회장으로 삼았던 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조선총독부는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있던 흥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진열관 제1호관을 세웠다. 그리고 제1호관은 광화문 정면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면 이 건물 때문에 근정전이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웅장하게 건축된 진열관의 외관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교묘한 시각적 배치를 통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을 볼 수 없게끔 하여 조선 왕조의 상징공간을 시야에서 배제하고, 그들이 보여주고자 한 공간만을 선택적으로 가시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임시로 가설된 제1호관은 공진회 이후 철거되었으나, 곧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 청사가 신축되어 그러한 시각적 효과를 이어갔다.

광화문 위에서 바라본 공진회장 모습, 1915

1929년 조선박람회 당시 입구로 사용했던 광화문도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공되자 철거하려다 여론에 밀려 1927년 건춘문 동편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정문 자리로 이건했다. 경복궁 동편 망루인 동십자각의 궁장(성벽)도 조선박람회 당시 회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 당국이 7천원의 경비를 들여 1929년 7월 헐어버렸다. 행정당국은 박람회가 끝나면 원상회복하기로 했으나 결국 현재의 모습처럼 동십자각만 홀로 떨어진 채 서있게 되었다. 현재 광화문 복원사업이 한창이다. 또한 박람회를 치루면서 사라져간 전각들도 하나둘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1923년 전차선로 부설로 철거된 서십자각과 역사적 질곡 속에서 다행히 살아남은 동십자각의 복원도 이루어져 온전한 경복궁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조선박람회 당시 세워진 직영관 또한 이전에 개최 되었던 공진회의 진열관과는 달리 '조선색'(local color)을 강조하여 건축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대건축 양식의 일본의 내지관과 특설관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건축의 전근대성과 원시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쪽에서는 조선왕조의 흔적을 지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 고유의 양식을 반대로 악용하여 진열관을 지었다는 점에서 식민담론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람회는 '산업의 디스플레이인 동시에 제국의 디스플레이'의 장이라고 불릴만하다.

2009년 8월 1일 광화문광장이 개장되었다.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려 첫 주말에만 40만 명 내외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마치 80년 전 조선박람회의 성적을 두고 그랬던 것처럼 방문객수를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광장에 대한 이러한 폭발적 관심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유야 어찌됐건 방문객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일제가 그토록 지우려고 했던 광화문(경복궁)의 상징성이 그들 가슴 속에 면면히 유전됨을 보게 된다.

글 | 이경민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2005년 중앙대 첨단 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며 근대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진사 연구에 관심을 두고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왔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10월호부터 새롭게 연재되는
〈비하人드〉는 숨겨진 문화예술계
장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일상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비하人드

❶ 붓 장 인 을 만 나 다

붓을 매고 붓에 매이다

천개의 붓, 천개의 혼… 유필무 붓 장인을 만나다

글을 쓰기 위해서 지금은 컴퓨터 자판을 이용한다. 그 전에는 펜이었고, 그보다 예전에는 붓이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 붓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붓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 일명 붓장이, 붓 장인이다. 필무산방에서 만난 유필무 붓 장인을 통해, 그저 붓이 좋아 붓을 매며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물었다.

한 남자가 정적이 감도는 방안에서 손바닥 위에 놓인 털을 한 가닥 한 가닥 고르고 있다. 삼십 년을 한결같이 붓장이로 살아온 유필무 붓 장인(48)이다. 꼭대기에 틀어 올린 상투에 비녀를 꽂고 가슴까지 닿는 긴 턱수염과 앞치마를 두른 행색보다도, 뿔테 안경의 유리알 아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더욱 예사롭지 않다.

"못 찾아오시는 줄 알았어요." 유필무 붓 장인의 작업실인 충정북도 마동창작마을을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네비게이션에서 일러주는 길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 불콰한 얼굴의 동네 아저씨의 안내대로 진입로를 찾기 시작했다. 서화가들의 필수품 문방사우(文房四友) 중에서도 으뜸은 붓이라고 할 수 있을진대 정작 그 붓을 만드는 붓 장인이라는 직업은 화가나 서예가에 비해 알려지지 않았다. 숨겨진 문화예술계의 장인들을 찾아 소개하는 비하인드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평생 붓만 매며 살아온 유필무 붓 장인을 초대한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었다.

공돌이, 붓에 마음을 빼앗기다

유 장인의 필무산방 내부에 가을 오후의 햇볕이 은은하게 쏟아졌다. 천장에 매달린 채 일렬횡대로 늘어선,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붓대들이 저마다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 시절에 월급이 있었나? 가끔 용돈이나 받고 그랬죠." 붓장이가 되기 전, 유필무 장인은 공돌이였다. 충북 충주 앙성면에서 열세 살 나이에 서울에 무작정 상경, 이름도 없이 '꼬마'라고 불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도 감사하며 성수동 가발 공장에 다녔다. 어느 날 붓 공방에 가보니 별의별 멋진 붓들이 진열되어 있어서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었다. 크기와 재료도 다양해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때 유 장인은 막연히 이 일을 하면 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 일을 배워서 내 손으로 붓을 맬 수 있으면 시쳇말로 평생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은 없겠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입문한 후에는 붓 일이 하도 고생스러워서 잠깐씩 그만두고 제빵사, 주방장, 막노동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일도 결국은 붓 일만큼 그를 사로잡지 못했다. 이제 유 장인은 이 일을 천직이라고 믿고 있다.

유필무 장인은 한때 고향에서 유림필방을 운영했지만 더 이상은 도매 일을 하지 않는다. 유명 필방들의 주문대로 일을 하면서 받았던 지독한 상처 탓이다. 순진한 붓장이들을 마치 아기 손목을

비틀듯 간단하게 속이면서 가격을 인정사정없이 깎아댔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로 한국 붓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산 붓들의 쓰나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현재 한국 붓 시장의 90%이상을 중국산 붓들이 점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의 붓 장인들은 붓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업했다. 유 장인처럼 계속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미련하다'며 그는 너털웃음을 웃었다. 중국 붓의 물량공세가 유 장인으로 하여금 '귀한 붓'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 수요자들을 위한 붓에서 오브제로서의 붓, 즉 작가주의적인 붓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유 장인은 그 뒤로는 필무산방의 붓들을 도매 없이 실수요자들과 수집가들에게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다.

유 장인이 알려진 계기는 90년대에 초필(草筆, 풀로 만든 풀)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부터였다. 공중파 TV에서는 그의 갈풀(칡으로 만든 붓)에 주목했다. 그는 커다란 눈을 더 크게 뜨면서 식물성 소재로 붓을 만든 장인이 자신이 최초는 아니라고 말했다.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온 초필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하여 재현해냈을 뿐이라고. 영화 〈취화선〉을 보면 오원 장승업이 수양버들가지를 돌로 짓이긴 후 물감을 찍어 채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듯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모필 대용으로 주변에 있는 자연소재들을 활용해왔다. 300년 전에는 유일한 서사도구가 붓이었다. 특히 모필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활동하던 시절에 상질의 붓 한 자루 값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다. 유 장인은 아마도 현재보다 과거에 식물성 소재로 붓을 만드는 방법이 훨씬 다양했을 거라 예상한다. 가난한 서생들은 집 뒤뜰의 갈대밭에서 붓 재료를 찾았으리라.

그래도 나는 붓장이로 산다

그림은 '그린다'고 하고 서예는 '쓴다'고 한다. 그런데 붓은 '맨다'고 한다. 농부가 논밭을 매는 것에 비유해서 붓은 맨다, 라고 한단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벼를 한 포기 한 포기 추수하여 엮듯이 털 한 가닥 한 가닥을 정성스럽게 모아 엮으니 '맨다'가 된 것이 아닐까. 붓은 붓 장인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순도 높은 완성도에 이르지 못한다. "붓은 마음을 비워야 잘 맬 수 있습니다." 상질의 양가죽 열두 장에서 상질의 털은 한 움큼 밖에 안 나온다. 그 한 움큼 밖에 안 되는 상질의 털로 붓을 매면 그 붓이 명품이 된다. 유필무 장인은 그동안 여러 번 전시를 했고, 수집가들을 대상으로 판매도 꽤 했다. 갓 난아이의 태모를 이용한 태모필 등 다양한 붓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 그는 한 달에 500자루씩 붓을 매었다. 그 때에는 붓이 그저 사고파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요즘은 이모저모 개발하느라 한 달에 100자루 안짝으로 붓을 매게 되었다. 숫자를 줄이고 나니 이제는 붓이 물건이 아니라 작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게다가 그의 붓은 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일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필대를 장식하는 일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조각, 색실매기, 칠보공예, 옻칠 등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가지다. 맨 붓을 꽂아 고정시키는 필관만 해도 대나무 같은 일반 나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금속대, 목탁, 필통, 도자기와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모필(毛筆)의 경우는 붓털을 염색하지 않지만 초필(草筆)의 경우는 천연재료로 염색을 하여 한껏 멋을 부린다. 치자, 쪽, 소목으로 노랑, 파랑, 적색의 색을 내서 돋보이게 한다. 유 장인이 초필을 들어 보여주며 설명했다. "오브제로서의 붓은 현재 과도기죠. 예전에는 지금의 제 방식을 시도하는 붓장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붓걸이도 전부 직접 만듭니다. 남의 손 안 빌리고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만들어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죠."

"이 붓의 경우도 (한 붓을 들어서 보여주며) 붓꼭지 위에 쪽매듭을 지었는데 매듭짓는 방법을 몰라서 책을 사서 스스로 배웠습니다. 붓꼭지는 율무열매를 썼고 필관에는 당초무늬(덩굴무늬)를 직접 조각했지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은 물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 붓만 해도 전승공예전에서 너무 현대적이라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껏 해왔던 길을 포기하거나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유 장인은 붓알 하나를 물에 묻히더니 나무 바닥에 한자성어를 순식간에 써내려갔다.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 것을 알면서 새 것도 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함). 사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초필을 스스로 궁리하여 개발해낸 장인답다. 붓의 미래는 어떨까? 어쩌면 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 장인의 미래는 어떨까? 그는 전수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붓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사진과 글로 자료화할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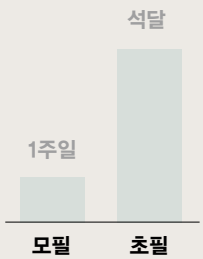
올해로 33년 째, 유필무 장인은 붓을 매며 붓에 매인 인생을 살아왔다. 작별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타니 차창 너머로 작업실로 다시 들어가는 유필무 장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제부터 새벽까지 홀로 풀을 두들기고 털을 골라내리라. 이토록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토록 변함없는 그의 장인정신이 아름다운 구속처럼 느껴졌다.

〈붓 제작 과정〉

1. **원모선별** 털 재료를 늘어놓고 상질의 털을 골라낸다. 모필(毛筆)의 경우에는 동물성 털의 특징인 지방질을 잘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름기를 빼지 않고 붓을 매면, 나중에 먹 흐름이 빨라지고 먹을 머금어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2. **배합과정** 털의 무게를 달아 일정량을 나누고 다른 털과 섞는다.
3. **재벌정모** 섞은 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좋지 않은 털을 버린다.
4. **작편** 최종 선정된 털들을 묶는다.
5. **물끝보기** 털끝을 가다듬는다.
6. **테스트** 물을 묻혀 바닥에 글씨를 써 본다. 그림붓은 그림을, 서예붓은 글씨를 써서 테스트한다.

모필과 초필의 제작기간

모필 – 1주일 정도면 완성한다. 필관을 장식할 경우는 2주 걸린다.
초필 – 칡, 띠풀, 억새 같은 식물성 소재의 초필은 3개월 정도 걸린다. 식물성 소재의 경우 9번을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여 섬유질을 질기게 만들고 식물 속에 들어있는 진이나 지방질 같은 것들을 뱉어내게 한다. 또한 식물성 털이 붓으로서 기능하려면 고무망치로 만 번 가까이 두들겨서 섬유질을 단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천연염료를 써서 식물성 털을 염색한다.



유필무 장인의 하루일과

유필무 장인은 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을 빼고 평균 16시간 정도를 작업에 쓴다. 이는 어려서 일 배울 때부터의 습관이다.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나면 일하고 계속 일하고 일하다가 졸릴 때까지 일해야 일이라고 배웠다. 붓 일은 기계 돌리는 일이 아니고 전 공정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한 나절만 일을 쉬어도 표시가 난다. 칡으로 만드는 갈필의 경우는 실패율이 높아서 10개 중에서 9개를 버리고 1개만 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붓 매는 과정은 참으로 지난한 과정이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미니인터뷰〉

Q1. 앞으로의 계획은?
저의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붓 매는 능력을 접목해서 계속 세상에 새로운 붓을 내놓고 싶습니다. 작년 〈천개의 붓〉 개인전 이후로 오브제로서의 붓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관심을 갖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해서 조금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에 열리는 '2009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오브제로서의 붓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업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 초필이 런던 주영한국문화원과 독일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영구소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람 있는 성과들이 붓을 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Q2. 붓장이란, 붓장이에게 붓이란?
감히 제가 붓장이의 대표라고 할 수는 없으니 붓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붓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하루 종일 작업실에 처박혀서 일만 하니,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붓을 매개로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창일 수밖에 없지요.

Q3. 좋은 붓은 과연 어떤 붓일까?
좋은 붓의 4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굳셀 건(建), 둥글 원(圓), 뾰족할 첨(尖), 가지런할 제(濟) – 건원첨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쁜 붓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붓은 나름대로 제작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 그것이 좋은 붓입니다. 그저 내 손에 잘 안 맞으면 나쁜 붓, 잘 맞으면 좋은 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붓에 대한 환상을 빨리 버릴수록 좋은 붓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글 | **박초로미**
琎 그라우 갤러리 대표. 본업은 미술인이지만 부업은 프리랜서 기고가이다. 인터뷰, 여행, 문화예술 관련 원고를 쓰고 있다. 와인에 사족을 못 쓰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분위기 좋은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사진 | **김도훈**
현재 포토스튜디오 〈라운드테이블 이미지 컴퍼니〉의 팀장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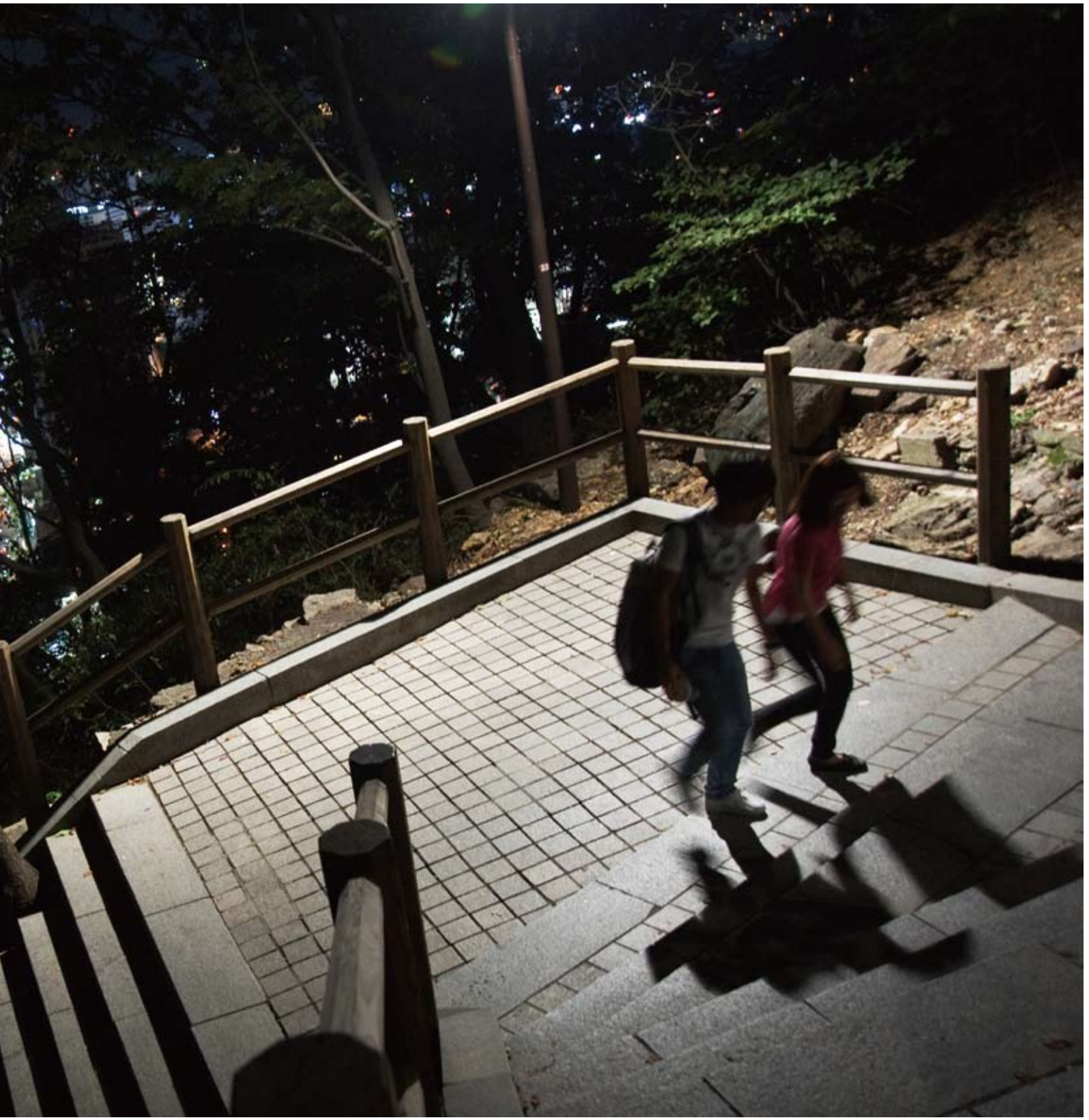
마동창작마을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동1구 83–1

마동창작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가장 훌륭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1995년 폐교였던 회서분교를 예술창작 공간으로 개조하여 해마다 종합예술 창작촌으로서 변모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4명의 상주작가와 2명의 외부작가가 회화, 조각, 도예, 붓 공예 등을 통해 작업의 공간이자 삶의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Image Seoul

밤인데! 산에 오르다!



산은 도시를 도시는 산을 바라본다. 반짝거림에 눈부셔 숲으로 눈 돌리는 발길들 그 산을 오른다. 어느새 그 산도 도시의 반짝거림에 물들어 버린다. 더 이상 바라볼 필요도 없이 말이다. 산에 오른 이들 도시의 반짝거림이 그리워 고개를 돌린다. '저기봐 너무 예쁘지 않아?' '와! 진짜네!' '저기, 저기야. 저기가 우리 동네.' '아니지, 잘 봐. 니네 동네는 저 새로 지은 건물 뒤편이지, 너희 동네 안 보인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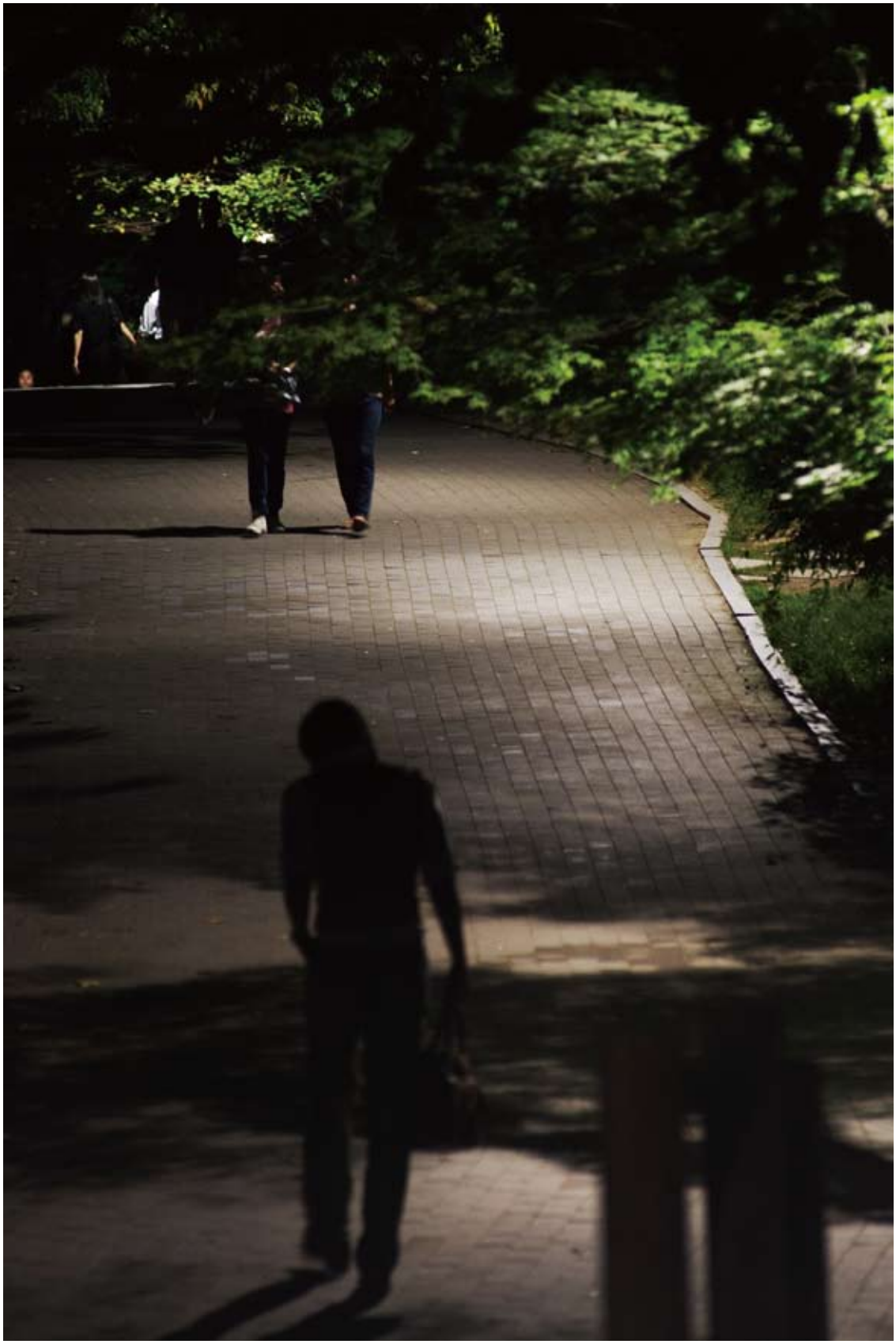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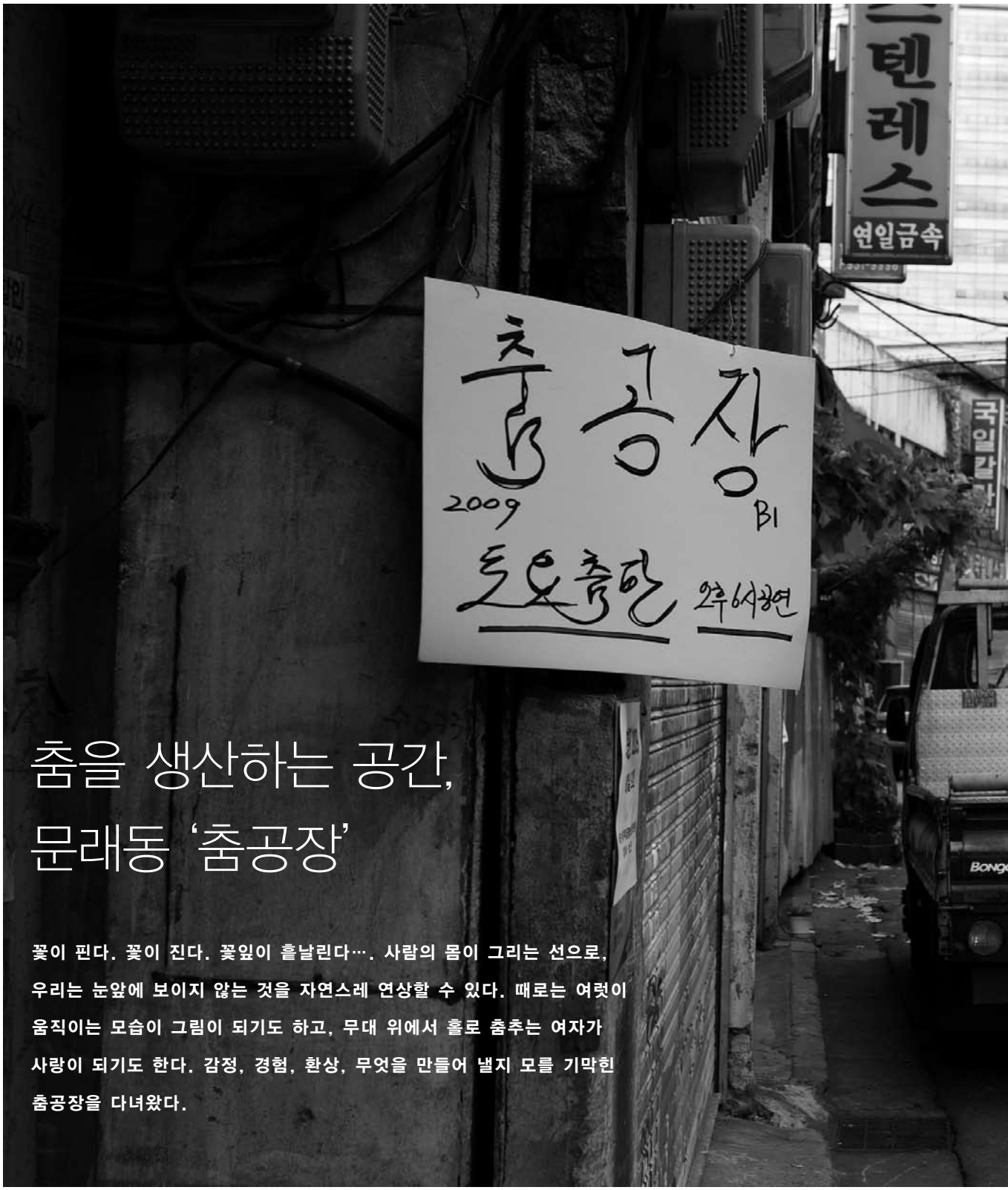


사진 | 한금선

판자촌, 독거노인, 거리의 아이들 등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진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집시 바람새 바람꽃〉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작업을 발표해 왔다. 현재 월간 〈인권〉에서 사진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춤을 생산하는 공간, 문래동 '춤공장'

꽃이 핀다. 꽃이 진다. 꽃잎이 흩날린다…. 사람의 몸이 그리는 선으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연스레 연상할 수 있다. 때로는 여럿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림이 되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홀로 춤추는 여자가 사랑이 되기도 한다. 감정, 경험, 환상, 무엇을 만들어 낼지 모를 기막힌 춤공장을 다녀왔다.

춤공장을 마주하고

낮은 천장의 아늑한 느낌과 최소한의 조명, 눅눅한 냄새, 콘크리트 벽돌이 채 마감되지 않은 날 것의 몸체를 마주하자 곧 이 공간과 시선이 맞물려 흡착되는 듯했다. 삶의 퀴퀴하고 실체적인 심연의 진실을 은유하는 극장의 어둠, 여기에 춤이 더해지면 곧 살과 살이 맞닿는 현장이 생성된다. 막과 객석의 선을 억지로 그을 수 없는 이곳에서 춤을 추는 이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관객의 시선과 함께 자신을 끊임없이 그 시선 속에 저울질해야 하는 실존의 감각이 몸에 배어든다. 그리고 관객은 직접 춤을 추지 않는 대신, 시선을 통해 춤추는 이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감각적 경험을 체화하게 된다.

시선과 몸이 뒤섞여드는 이 공간은 허름한 문래동 한 건물의 지하에 위치한 '춤공장'이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는 중장비의 둔중한 움직임과 소음을 간직한 문래동 철제공장들이 있어 무섭기도 하고, 한편 호기심이 일기도 한다. 79년 철재상가 단지가 조성되고 90년대 시흥단지로 정부의 이주 조치가 내려진 후, 80년대에 활황을 누리던 철강 회사와 철재 도매상가의 사무실로 이용되던 이곳은 건물 2,3층이 거의 비워지고 대신 예술가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1층에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70년대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기계가 가진 육중한 생명력이 귀에 웅웅거리며 강력하게 전이되어 온다. 매끈한 스타일의 도시 이면에 시간을 전치시킨 듯 이곳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문래동 아티스트들의 축제, 물레아트페스티벌

처음 문래동에 발을 디딘 것은 2007년 어느 날 여름 저녁이었다. 문래동에 거주하는 무용수나 연극인, 뮤지션 등이 주축이 된 자발적 모임이자 비공식 파티 현장에는 즉흥 잼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고, 무대가 아닌 경계 없는 바닥에서 하나가 되어 노는 모습들은 당시 많은 자극이 되었다. 이후 정식 축제의 형태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난 것은 그해 10월

의 물레아트페스티벌로, 전시와 공연들이 문래동 철제시장 주변의 춤공장, Laboratory 39, 철제시장거리 등에서 무료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축제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다수 모여 불 꺼진 공장 주변을 이동하며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프랑스 비주얼 아티스트 Nada와 Reno가 각각 레트로·비디오 프로젝터를 통해 공장 벽면에 영상을 입혔다. 그리고 각종 춤꾼들이 가세하여 급박하고 격렬하게 몸과 몸의 리듬을 뒤섞으며 나아갔다. Laboratory 39에 이르자 호흡을 늦추고서 각자 누웠다. 그리고 끈을 형성하듯 몸과 몸을 이어 건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잠들어 있는 철제상가를 깨우고 새롭게 위치시키는, 전유하는 예술가들의 의식(意識)이 원초적 에너지를 간직한 의식(儀式)으로 빚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러한 강렬한 기억의 자국이 문래 예술가들의 자발적 동기를 불러일으켰고, 다음 해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8 물레아트페스티벌은 야외에서 공간의 에너지를 머금고 진행되기도 했지만, 주로 춤공장에서 많은 공연들이 펼쳐졌다. 그렇게 작년 10월에는 국내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5개국 70여 개 팀에서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크게 확대된 규모의 공식적인 페스티벌이 열렸다. 춤공장은 축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기능했다.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신진 예술가들의 실험적 소품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각 개인의 작품뿐 아니라 「아시안즉흥예술교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르와 국적의 경계를 상정하지 않은 즉흥 춤판이 5일 동안 계속됐다.

춤공장의 2009년 정기 프로젝트 〈토요춤판 2009〉 두 번째 시간

"춤공장은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과 공연이 이루어지는 실험적 예술 창조의 장이다. 또한 정체된 기성의 무용예술을 부흥시킬 미래지향적인 실험과 도전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춤 연구의 터전이기도 하다.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나갈 잠재력 있는 무용가들의 창조적인 실험과 함께 서로의 작업을 교류하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10월에 열리는 물레아트페스티벌이 한시적인 성격의 축제라면, 축제 기간 외에 춤을 생산하는 춤공장에서는 조금 더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토요춤판 2009〉를 지난 8월부터 열고 있다. 춤공장의 안주인인 온앤오프 무용단의 김은정과 한창호의 〈바다는 없다 (부제 : 달팽이 집)〉, 안무가 박서한의 〈일어나!〉가 그 첫 춤판이었고, 12월까지 총 5회의 춤판이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돌출춤판 2009〉(미정)가 '〈토요춤판 2009〉를 정리하고 집대성하는 넓은 의미의 축제'로 이어진다고 한다.

지난 달 5일에 열린 두 번째 춤판에서는 안무가 김정현과 미술작가 정원교의 〈섬〉(안무·움직임 : 김정현, 빛·영상·라이브 드로잉 : 정원교)과 안무가 김수현의 안무 및 출연으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를 볼 수 있었다.

〈섬〉은 병치와 중첩기법을 이용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영화에 가까운 환영의 세계를 출현시켰다. 원래 무용을 하고, 또 김정현과 미술을 하는 정원교의 움직임은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는 대등한 위치를 점하는데, 이는 곧 두 사람이 각각 존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동일선상에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었다.

흰색 장막이 바닥에 깔리고 몇 장의 캔버스가 스크린 역할을 했다. 첫 번째 상영된 영상에서 카메라는 김정현의 신체와 그 옆의 레몬들을 더듬더듬 훑는다. 몸을 뒤적이며 유령처럼 일어서 테이블 앞에 앉은 그녀는 전구를 켜고 테이블 위 레몬들을 칼로 모두 자르고 나서 연필을 깎는다. 이어 스케치하고 있는 김정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놓듯 캔버스를 그녀 앞에 가져다놓고 정원교 역시 커다란 캔버스 안에 들어가 스케치를 시작한다. 음악이 고조되며 여자는 전등을 켰다 껐다 한다. 둘의 존재는 상대와의 만남을 기다리듯

안무가 김정현과 미술작가 정원교의 〈섬〉

서로의 주변을 맴도는데, 직접적인 마주침은 없어도 각자의 행위가 상대방의 존재를 상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즉, 타자는 직접적인 출현 대신 눈앞에 아른거리며 상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무용의 움직임을 발동시키지 않는 김정현은 정원교가 걸어놓은 캔버스 안에서 되살아나 춤추기 시작한다. 공기는 무겁고 숨은 안착되어 있고, 의식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춤은 그 안에서 자취로만 남는다. 처음 영상에서 레몬이 김정현의 신체 표피가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며 하나의 오브제가 되었다면, 이어 그가 실제 레몬을 자르는 광경에서 역시 레몬은 신체와 유사성을 띠며 살의 직접적인 느낌을 안겼다. 레몬을 자르고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행위에는 항상 상대방의 존재가 깊이 배어있었고 정원교가 그리는 그녀는 끊임없이 상기되는 김정현이 되어,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세밀한 감성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각자의 섬은 역동적인 내면의 풍광으로 비유되고, 한편으로는 타자의 시선과 타자에 대한 그리움을 상기시켰다.

두 개의 작품이 모두 끝나고, 아티스트와 관객이 둥그렇게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Post talk'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김정현은 카페에서 정원교와 이야기를 나누다 물에 레몬을 담가 주는 것을 보고 레몬을 작품에 다양하게 활용하게 됐다고 했다.

팀 색깔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곧 즉흥(improvisation)의 impro, 거기에 길(road)이 조합된 Improad와 바닥이 결합된 'Improad바닥'이란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둘에게는 매체나 장르, 결과에 얽매이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실험하고 무엇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협업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 보였다. 주위의 시끄러운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롭게 작업하기 위해 스스로를 '섬'의 환경에 놓는다는 김정현과 그녀의 파트너 정원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이 대화하고 이미지들을 자연스레 쌓아가는 그 둘의 작업 방식을 곧 '섬'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이어서 안무가 김수현이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처럼 사랑의 절절한 감정이 온 몸에 배어드는 생생한 춤의 광경을

안무가 김수현의 〈사랑입니다…〉

그려냈다. 울분과 한을 담아내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들에 자신을 담금질하며 정화의 의식을 겪는 그 과정에는 한국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났다. 시종일관 눈을 감고 추는 그녀는 숨과 움직임은 단단하게 간직한 채 온 몸에 홍수가 일듯 발산하고 거두는, 고조와 가라앉음의 다양한 변화를 이어나갔다. 끊임없이 돌면서 천천히 흐느끼듯 접고 또 부드럽게 펼치는 움직임, 마음을 감싸고 식히고 다시 어루만지고 순간적으로 자국 같은 흔적이 몸으로 튕겨져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녀의 신체는 남김없이 표출되었다.

공연 중간 흰색 얇은 상의를 걸치고 춤을 추던 그녀는 어떤 의상이냐에 따라 춤출 때의 감정도 달라진다고 했다. 2007년의 어느 '따뜻한 날'과 대조해 2009년의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 같은 날을 공연 중 짧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러한 자기고백조의 내레이션을 통해 작품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녀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듯했다. 실제 사랑을 하고 깊게 아파하면서 2008 물레아트페스티벌에서 〈달빛 꽃〉이란 작품을 선보였고, 이별 후 온 상처와 그 감정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지금에 이르러 선보인 작품이 〈사랑입니다…〉 라고 했다. 사랑의 절절한 감성을 온몸으로 구현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도취되어 자신을 감내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단한 안무기초를 바탕으로 하여 감정의 선을 즉흥적인 춤으로 승화해내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녀의 현실로부터 깊이 유래된 춤은 시간을 머금고 다른 형태로 내비쳐졌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입니다…〉를 2008년에 선보였던

〈달빛꽃〉의 연속선상으로 본다면, 이번에 그녀가 보여준 움직임의 진정성은 이날 한 순간에 온전히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춤공장의 안주인 김은정의 말에 따르면 대학로에서 2005년 '돌출춤판'이 시작된 것은 기존의 큰 무용제에서 벗어나 고착화된 인맥이나 기성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젊은 춤꾼들이 분명 있을 것이니, 그들이 설 수 있는 작은 춤판을 만들자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이후 한동안 끊겼던 돌출춤판은 2009년 토요춤판을 안고 다시 모습을 보이게 됐다.

"춤공장에서는 누구나에게 실험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춤공장의 소개에 있어 무엇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눈에 띈다. 특히 '누구나'라는 말이 중요하다. 기존의 현실은 누구나에게 실험적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춤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춤공장 김은정의 말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실험을 펼쳐낼 젊은 춤꾼들에게 시선을 주는 것은 곧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아직 12월까지의 안무가가 모두 구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기회는 예술가에게도 관객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글 | **김민관**
인하대학교 독일언어문화 전공. 다원예술 현장 비평풀으로 활동했고 이후 『비평, 나쁘게 말하다』 공동 발행, 독립웹진 인디언밥 기고 및 온라인 뉴스 아츠인(artzin)에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한국실험예술정신과 제작한 『세계 실험예술의 메카, 홍대 앞』, 자주 출판물로 『B:OM LINK』 등이 있다.

사진 | **최성복**

〈섬〉

김정현

정원교

레몬을 특별히 사용한 이유는?
정현 레몬은 일상과 결합하기 힘든 감각적인 사물 같아요. 경계에 놓인 사물 같은 느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물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죠. 색감, 향기, 약간의 이국적인 느낌 같은 것들.
원교 우연히 발견한 사물이지만 저희에게는 의미가 깊어요. 공연을 했던 행위들을 영상을 통해 정리하는데, 지금 공연은 안 끝난 것 같아요.

공연할 때 느낌이 특별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정현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스스로 상상을 표현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상 속의 고정된 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원교 임프로드 바닥에서 활동할 때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손끝으로 뿜어내는 느낌, 그러한 움직임에 집중해요.

〈사랑입니다…〉

김수현

슬픈 감정들이 절절하게 다가오던데, 어떻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처음 춤출 때 이미지들을 그렇게 잡고 시작해요. 억지로 그렇게 하면 부자연스러운데 이전 만들어 놓은 안무들, 겪었던 감정들, 일들을 생각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하나의) 움직임에 박히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고 저다운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춤을 출 때 예전의 감정에 다시 사로잡히는지?
감정이 걸러져야 해요. 제가 처음에 이걸 작품으로 했을 때는 우느라 춤을 못 췄어요. 생각하고 정리하고 조금 내려놓으니까 춤이 되는 거예요.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일일건축설계사무실 이야기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것은 꿈의 완성에 가장 가까운 현실이다. 현대인들은, 더구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보금자리, 몸 누일 곳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이 좁은 땅에 뜻대로 내 집을 짓기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 일일 건축설계 사무실에서, 그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과의 조금은 엉뚱한 만남을 가졌다.

건축가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시위가 아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건축가라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반인들에게 말을 건네는 행사를 연 것이다. 지난 8월 29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서울문화의 밤'(건축부문 총괄프로그래머 : 건축문화학교 본부장 홍선희)의 일환인 '건축가 말 걸기'에 김재관 소장(무회건축연구소), 최재만(작스건축), 최영철(공간건축), 이두호(해안건축), 정현희(해안건축), 정호건(한양대 5년) 등이 모여 하루 동안 존재하는 설계사무실을 동네 한가운데(종로구 가회동의 재동초등학교 네거리)에 차린 것이다.

>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건축建築'이라는 것이 정화조나 하수도 수리나 시멘트 블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설계사무실이 부자들만이 집을 짓기 위해 들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느 건축가(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지진희 역)처럼 꽃무늬 벽지를 요구하는 건축주를 속물로 여기는 뻣뻣한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살 집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
>
> –홍보 포스터 중에서–

그 날 받은 손님들

첫 손님 50대 중년으로 면목동 사는 아저씨였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도착한 그는 주변을 오래도록 배회한 후 우리에게 왔다.

"저기….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건축업자와 계약을 하나요?"

"설계가 아닌 공사계약 말이죠?"

"예. 계약서는 어디서 구해요?"

"서류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으시고 그걸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설계사무실도 업자랑 다 '짜'고 한다면서요…?"

그가 면목동이 아닌 재동의 이곳까지 온 이유는 건축가에 대한 신뢰가 아닌 의심 때문이었다. 설계사무실과 시공업체가

다 한통속이라며 신문에까지 나온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하는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지독한 의심이었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 집을 설계할 욕심이 없습니다. 절대 절대 설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시겠지요? 저는 '짤' 시간과 기회가 없었었으니까요. 그쵸? 견적이란…."

두 번째 손님 그들은 부부였다.

"우리는 저 동네의 한옥에 살아요. 학교 뒤에요. 집이 워낙 작아서(부끄러워하며) 방은 두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늙으셔서 같이 살아야 해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방도 하나 더 내고 화장실도 따로 있어야 해요. 아침에 복잡하거든요. 애들도 학교가고 저희도 다 일을 나가니까요. 근데…."

"말씀하세요."

"지을 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워낙 작아서요. 골목에 트럭도 못 들어와요. 좁아서."

그녀가 그린 집의 그림에는 내가 기대했던 쓸 만한 공터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웃과의 담장은 이미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정원은 더욱 없었다. 빈곳은 하늘뿐이었다.

"이렇게 하시죠…. 필요한 집을 미리 만든 후에 기계를 이용해서 번쩍 들어다 놓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집을 앉힐 곳은 먼저 손을 봐야 해요. 전기도 꽂고 하수관도 연결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는 쇠기둥을 몇 군데 박고 그 위에 집을 올려놓는 겁니다. 원두막처럼.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부모님은 지금 아이들이 쓰는 방으로 모시고요."

세번째 손님 곱게 양산을 쓴 채 한사코 배낭을 풀지 않는 아주머니였다. 그의 손아귀에는 신문에서 오린 나의 얼굴이 쥐어져 있었다.

"아… 맞군요. 신문에 있는 그분이시죠?"

"예. 사진이 구겨지니까 얼굴이 더 고약해 보이는군요."

"저희집이천안인데요예전에땅을샀거든요근데요새들어땅값이막올라가는거예요아들은도장을하고요서른두살먹었지요아직장가안갔구요거기에게스트하우스를지어야하는데땅이막파헤쳐져서요옆에서공사하는사람들이남의땅을먹고들어왔구요옆에는학교인데그뒤는또교회가들어온다네요참나동네가다어떻게되려는지모르지요하여튼우린집을천천히질려고해요뭐그리급하지는않구요그리구요샌교통이좋아서여기까지전철이있더라구요나이들면그것도공짜구요그래서한번구경온거예요아이고늦었네집에가봐야겠어요멀어서요그럼안녕히계세요"

그녀의 집은 천안에서도 시골이다. 버스를 타고 천안역으로 와서 전철을 한두 번 갈아타면 안국역까지 얼추 두 시간이다. 가는 길도 그럴 것이다. 천안에는 믿을 만한 건축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집이 너무 빨리 지어지기 때문이란다. 말하자면 그는 꽁꽁 동여맨 마음의 배낭을 풀 만한 건축가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당연하겠지만 물건의 내역을 먼저 들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네번째 손님 얼굴이 붉고 웃을 때면 길쭉한 앞니가 환하게 드러나는 소녀틱하고 인디언틱하며 앤틱하신 아주머니였다. 눈빛도 목청도 또랑또랑했다. 그녀의 한손엔 '우리 집 짓기'라고 쓰인 노란색 공책 한권이 들려있었다.

"대문,마당,담장,계단,1층마루배관,2층단열,1,2층보일러,문짝,2층싱크대,칠,도배,에어컨,8,500만원,전원속의내집,건축자재쇼핑몰,한옥,전통에서현대로,한옥의구성요소,철저한설계와공정관리,이영희HOUS단열환기벽돌이용이중구조,국제가구인테리어상업대전;8.27~8.31,정순왕후생가,황토벽돌,연와조스라브위기와집주택…"

예닐곱 장쯤 될까? 그녀의 선한 눈 마냥 정돈된 글씨들이 또박또박 박혀있었다. 나는 눈빛보다 사람이 그은 금(線.line)을 더 믿는 사람이다. 신뢰가 듬뿍 든다.

"결혼 30주년인데 집을 리모델링한 후 남편에게 선물하려고요."

"집을…."

"네~에(Why not? 이라고 묻듯). 집은 작아요. 위층을 모두 전세로 주었는데 얼마 전에 방을 뺐거든요. 사실 애들 아빠가 집 짓는 분이고 우리 아들도 건축과 나와서 지금 건설회사 다녀요. 근데 있으면 뭐 해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나더러 다 알아서 하래요. 호호호. 그리고 이 나이 되면 한 다리만 건너면 설계사무실 하나씩은 알거든요. 근데 아는 분들은 오히려 일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도 따질 수가 없고요."

"걱정 마세요. 가벼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작 한 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설계자를 바꿀 수 있는 계약을요."

"네에.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오실래요?"

그녀의 집 앞 4미터 도로는 인도가 따로 없는 무뢰(無賴)한 길이며, 경사진 벽들로 도열된 척박(瘠薄)한 길이며, 맞은편 집의 안마당을 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불온(不穩)한 길이며, 빤히 내려다보이는 것을 빤히 알고도 그 민망함을 빤히 삼켜야 하는 환장(換腸)할 길이며, 거실에서 민소매를 입을 수도 그렇다고 아니 입을 수도 없는 애매(曖昧)한 길이며, 커튼을 내리면 답답하고 올리면 불안한 우울(憂鬱)한 길이며, 맛난 음식을 몰래 해 먹을 수조차 없는 알미운 길이다.

만약 그녀가 그 길을 통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집에 살게 된다면, 만약 그녀가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면, 만약 그녀가 그 길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몰고 나갈 수 없는 곳에 산다면, 만약 그녀가 그 길의 건너편이 아니고선 눈을 둘 곳이 없는 곳에 산다면, 만약 그녀가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이웃과도 왕래할 수 없다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집에서 다시금 살겠다고 작정한 그녀로부터 자신이 살집을 그려 달라고 당부를 받는다면 그때 우리는 그 길을 무엇으로서 인식해야 할까. 길일까? 골목일까? 도로일까? 해자(垓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망가져버린 동네의 풍경이라고 해야 할까?

–그녀의 집을 다녀와서 쓴 일기–

그녀는 일보다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일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과정에 소꿉놀이하듯 참여하고 싶어 했다.

일일설계사무실을 접으며

우리 설계사무실은 설립한지 두 시간만에 폐업했다. 참 짧다. 그래도 열댓 명의 손님이 방문했다니 이만하면 성업이다. 그들은 설계도면을 통째로 들고 오신 아저씨부터 당신의 말씀만 한참하신 후 쌩하니 돌아선 고집 센 할아버지, 건축과로 전공을 바꾸고 싶다는 대학생(상담자인 최영철은 '죽어도'와 '절대로'라는 말을 연거푸 하며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시장바구니를 들고 와 요즘 자신의 동네에 지은 빨간 집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 하냐며 자기는 좋다고 대답하고 돌아간 아주머니, 장래에 건축가가 되고싶다는 초등학생과 이러한 아들의 재능을 믿고 싶어 하시는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내가 받은 네 명의 손님들과 폐업 이후 찾아온 낯 모르는 손님들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게끔 한 가장 매혹적인 말은 '무료상담'일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건축가를 찾는 것을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건축가들로부터 찾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그것이 건축가들에게 좋은 일감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이다. 그러한 불일치를 가속화시킨 것 중의 하나는 텔레비전일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건축가들은 하나같이 부(副)티 나고 뽀대 나며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로 묘사되어 만만하게 만나기 어쩐지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있다. 스스로 옷을 벗는 싹싹한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다. 그날 내가 받은 손님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축(ARCHITECTURE)과 그들이 알고 있는 건축(建築)사이에 무언가 이질적 간격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유익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엇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지가 아닐까?

※ 이 글에서 사용한 건축가와 설계사무실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한 호칭과 다르다.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을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했음을 밝힌다.

글 | 김재관
건축사. 1962년 충청북도 옥천의 무회마을에서 태어난 시골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마음에는 나무, 물, 숲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하다. 건축가 곽재환의 조수로 설계 일을 배웠으며 영국 옥스퍼드 부룩스대학교에서 석사를 한 후 런던의 홉킨스 설계사무실에서 일했고 현재 무회건축연구소(www.moohoi.com) 대표이다.

사진제공 | 김재관

HOT SKETCH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러시아 연출가와 헝가리 연기자의 합작품, 체홉의 희곡 〈플라토노프 Platonov〉

40일간 펼쳐지는 진한 예술의 무대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10월 13일 '아날로그&디지로그'라는 주제로 4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국내외 40편의 작품들은 아날로그적인 '무대'와 디지털적인 '첨단 기술', 예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시도'들을 결합한 채, 관객과의 짜릿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서울」에서 그들의 목록을 미리 펼쳐보았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가 진한 문화의 향기로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 등 12개국의 40개 작품이 10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 간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의 무대에 오르는 것. 국내 우수 작품뿐 아니라 세계에서 주목 받는 해외 유명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연극, 무용, 인형극, 댄스, 창극 등의 다양한 장르를 골고루 즐길 수 있으니, 잘 차려진 문화 뷔페가 따로 없다.

이번 예술제의 주제는 '아날로그&디지로그'이다. 공연예술의 장르가 크로스오버 되고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매체까지 결합되고 있는 요즘,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해 새로운 지평을 넓힌 대표적인 해외 작품들을 선보인다. 관객들은 한정적인 무대에서 벗어나 대형 버티컬 스크린, 현장에서 생중계되는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적 요소가 기존의 아날로그적 예술과 결합한 작품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탄탄한 구성과 신선한 예술적 시도가 돋보이는 수작들이 여럿 기다리고 있으니,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오픈이 어찌 기대되지 않겠는가. 밀봉된 연서를 살며시 열어 보는 설렘으로,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를 들여다보았다.

예술, 하이테크놀러지와 손잡다

2009 테마에 부응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준비한 디지로그 작품은 총 4편. '노만', '디 에이지', '예스터데이', '모스크바. 사이코'가 이들이다. 21세기 디지로그의 대표작 '노만(Norman, 노만 맥라렌을 위한 헌정)'은 캐나다 영화, 애니메이션의 거장 노만 맥라렌에게 바치는 작품으로 그의 작품과 생전 모습을 홀로그램 막에 영상으로 투사한 뒤 무용수의 몸짓을 결합한 4D 예술을 구현한다. 노만 맥라렌을 모른다고 이 공연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각적 경이를 일으키는 멀티미디어의 정교함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트로츠머(무용수)의 열정의 향기는 현실과 가상, 연극과 무용, 그리고 영상의 접목을 넘나들며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킬 테니.

10.26~10.27,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HOT SKETCH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디 에이지(The Age I'm in)'는 15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세대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 무용수들이 TV 모니터를 들고 자신의 몸을 투사하며 창출하는 교묘한 시청각 효과와 80여 명의 인터뷰 내용이 흘러나올 때 무용수들이 하는 립싱크와 마임이 볼거리다. 10.30~10.31,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영국 무용단 자스민 바르디몽 컴퍼니의 10주년 기념 작인 '예스터데이'는 이전 작품들의 하이라이트를 옴니버스로 엮은 현대 무용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이다. 무대 위 카메라로 포착한 무용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무대 뒤 대형 버티컬 스크린에 투사하는 영상미학으로 색다른 묘미를 선사한다. 10.31~11.1,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출신의 실험극 연출가 안드레이 졸다크의 '모스크바. 사이코'는 영화 '사이코'의 장면들과 무대 위 카메라맨이 직접 중계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장면을 스크린에 교차 투사하며 현대사회의 폭력과 광기를 포착한다. 11.9~11.11,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의 장면과 어우러진 러시아 연극 〈모스크바. 사이코. MOSCOW. PSYCHO〉

아시아 3국이 펼치는 연극 열전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16회 베세토 연극제를 끌어안았다. 베세토는 1994년 이래 베이징(Be), 서울(Se), 도쿄(To)의 연극인들이 모여 무대예술의 창조정신을 고무해온 모임. 올해 서울 출품작은 서울시극단의 '다윈의 거북이'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서 데려와 2006년 175세로 숨진 암거북 해리엇을 의인화한 작품으로 19세기 말 이후의 세계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본다. 거북이 엘리엇이 유럽의 각국을 옮겨 다니며 근현대사의 현장을 목격하다 점차 인간으로 진화해간다는 기이한 내용이 관객들의 흥미를 더할 것이다. 10.9~ 11.1, 세종M씨어터

일본 출품작으로는 실력은 뛰어나지만 거대한 코 때문에 열등감을 지닌 무사 시라노를 통해 근대 일본의 서양 콤플렉스를 풍자한 '시라노 드 벨쥬락'을 주목할 만하다. 10.16~10.17, 명동예술극장

또한 2003년 '서울노트'로 각색돼 국내에 소개됐던 일본의 '도쿄노트'도 이번 예술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서서히 붕괴해가는 현대 가족의 모습이 미술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10.18~10.19,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중국 현대극을 이끄는 상하이화극예술센터의 '선비와 망나니'는 할 줄 아는 것은 공부뿐이지만 과거를 보는 족족 떨어지는 선비 서씨와 검객이었다가 우연히 고기집 주인이 된 마씨의 우정과 인생의 즐거움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명한다. 10.19~10.20, 남산예술센터 서유기의 한 에피소드를 묘사하는 연극 '불타는 산'은 중국 전통극의 한 갈래인 천극으로 변검, 불쇼 등의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0.20~10.21 명동예술극장

실험성과 작품성이 돋보이는 해외 초대작

한국에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자주 공연되는 극작가인 체홉의 초기 미완성 희곡 '플라토노프'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다. 그의 후기작과 달리 자아의 해방을 부각시킨 낭만주의 성향이 짙은 이 작품이 세계가 주목하는 러시아 연출가 유리코르돈스키의 연극적 상상력으로 재탄생했다. 배우와 무대, 음악과 조명을 절묘하게 배치해 하나의 교향곡으로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11.4~11.6,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축구에 대한 애정이 높은 한국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축구 예찬'은 그야말로 축구의, 축구에 의한,

1 미셸 르미유와 빅터 필론이 연출한 캐나다 복합장르 〈노만, A Tribute to Norman McLaren〉
2 다윈 탄생 200주년, 〈종의 기원〉 출판 150주년을 기념하는 연극, 서울시극단의 〈다윈의 거북이〉
3 2009 더블린 페스티벌 초청작인 호주 무용극 〈디 에이지, The Age I'm In〉
4 최근 몇 년 상해 연극계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선비와 망나니〉
5 중국의 복합장르 〈불타는 산, 火焰山〉.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천극의 한 형태이다.

HOT SKETCH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

1 발레의 대중화를 모색하는
유니버설발레 II 가 만든
모던발레 〈This is your life,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2 국립창극단의 젊은 창극
시리즈 〈로미오와 줄리엣〉
3 최원종의 작품을 업그레이드한
송선호 연출의 연극
〈청춘의 등짝을 때려라〉

2

3

축구를 위한 공연이다. '스포츠를 무용화'한 독특한 작품으로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다이내믹한 움직임, 축구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코믹한 표현이 무대와 객석을 유쾌한 시간으로 이끌 것이다. 11.20~11.21, 세종M씨어터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는 김세정이 연출과 음악을 맡은 '에코'는 기존 예술의 틀을 깬 형식으로 주목 받는 작품. 무대에 선 퍼포머들이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정형화되지 않은 안무와 이들의 동작을 따라 즉흥으로 연주되는 음악의 앙상블은 일상에서 느끼는 희로애락과 같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결합된다. 11.14~11.15, 세종M씨어터

폴란드 새니아프스키 드라마극장의 '옛날 옛적에 폴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 폴란드 사람 그리고 악마가 있었네'는 좀비 영화 형식을 빌려 현실을 비판하는 정치 타블로이드극으로 칸토르, 그로토프스키를 탄생시킨 폴란드 연극의 저력을 엿볼 수 있다. 11.5~11.7,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놓치기 아까운 국내 공연작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전라도 남원과 경상도 함양 사이, 호남과 영남을 이어주는 팔량치 고개에서 벌어지는 로맨스로 각색한 작품이다. 대사도 우리 판소리 어법에 맞게 구성해 때로는 신명 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극으로 탄생시켰다. 한국의 동서화합과 세계의 동서를 아우르는 공연물로 꼽을 수 있다. 10.14~10.15,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한편 2007년 서울문화재단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문학 부문에 선정된 희곡 '청춘의 등짝을 때려라'도 무대에 오른다.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겪는 성장통에 관한 이야기로, 이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탐독하는 감성세대로 불리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극은 이들의 감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10.21~10.25,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세계모던발레의 메카인 뉴욕 조이스 시어터 초청에 빛나는 무용극 'This is your life'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작품. 공연은 5-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했던 TV쇼의 한 장면처럼 등장인물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남편의 바람을 묵인하는 아내, 불행한 비즈니스 맨 등 개인의 이야기가 발레로 표현된다. 슬픔과 아름다운 로맨스, 익살스런 유머가 위트 있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11.6~11.7,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공연 관람뿐 아니라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해외 공연예술가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2004년 유네스코 연출혁신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연출가 안드레이 졸닥과 일본 연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마츠모토 유코 연출 등이 한국을 찾는다.

본 공연 못지않은 다양한 부대행사도 빼놓을 수 없다. 기성 작가와 극작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2회 신작희곡페스티벌, 공연예술 비평의 틀을 넓히는 제6회 젊은 비평가상, 세계로 뻗어갈 젊은 무용수들을 찾는 제3회 서울댄스컬렉션 등이 펼쳐진다.

글 | 이은아
세상의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프리랜서 에디터. 글 쓰고 사진 찍는 걸 세상 무엇보다 사랑한다. 현재 잡지, 사보,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EMERGING SPACE
Photo Gallery Cafe

우리는 사진을 마신다

Photo Gallery

우리는 일상 곳곳에 카메라를 들이댄다. 음식점에서 갓 나온 접시 앞에,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심지어 지하철에서 앉은 채로 손을 치켜 올려서까지.
사진 찍는 날이 집안의 행사 날이었던 시절은 갔다.
한가로이 차 한 잔 하는 시간에도, 그런 사진이 스며들었다.
음미와 감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서울의 대표적인 사진갤러리카페 세 곳을 다녀왔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Cafe

사진 갤러리 카페 루 내부

EMERGING SPACE
Photo Gallery Cafe

1 공간 루 내부 인테리어
2 공간 루 내부 갤러리

어깨에 걸린 DSLR 카메라, 가방 속에 든 '똑딱이' 디지털 콤팩트 카메라, 휴대폰 속 '폰카'까지. 1인 1카메라의 시대다. 사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이제 사진은 편하게 찍고,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인화의 과정이 생략되고, 대신 모니터의 시대가 열렸다. 카메라와 사진의 보급, 대중화와 함께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도 사라졌다. 어떤 때는 사진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사진 전공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자랑하기도 한다.

사진이 그저 찍는 행위로 그친다면, 사진가들의 커뮤니티는 필요 없을 것이다. 그저 자기만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 자신이 보고 느끼고, 셔터를 눌러 찍어 현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말이다. 자신만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진 갤러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대부분의 DSLR 카메라가 전문 사진가보다 아마추어를 중심으로 보급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다. 전시뿐 아니라 사진을 보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의 갤러리는 왠지 모르게 출입문을 여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거대한 공간, 엄숙한 분위기는 보고 싶은 전시에도 선뜻 발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갤러리 카페의 출현이 반갑다. 쉽게 전시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원초적인 이유에서다.

카페 '속'의 갤러리, 공간 루

공간 루는 대학로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맞은 편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대학로의 분위기를 안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외양이 갤러리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카페의 모습에 가깝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느낌은 여전하다. 넓은 공간에 여유롭게 놓인 테이블이 그렇다. 벽면을 장식한 사진이 보통의 카페보다 많긴 하지만 여느 대학로 카페와 다른 분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진으로 가득한, 엄연한 갤러리 카페다. 철저한 공간의 분리가 가지고 온 성과다. 공간 루를 운영하는 조인숙 관장은 이야기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갤러리 카페의 존재 가치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갤러리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다"고. 이것은 사진을 보러 이곳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다. 카페를 지나 갤러리 공간으로 들어서면 좁지 않은 83m^2 4면 공간이 사진으로 가득하다. 사진전은 1~2주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거의 매주 새로운 전시가 이곳에서 열린다. 사진전은 주로 조인숙 관장이 주도한다. 일본 동경 종합사진전문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한 그녀는 처음 사진전을 여는 개인이나 그룹에게 자신이 간직한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수한다. 덕분에 개인 작업은 거의 하지 못할 지경이다. 기획전 역시 마찬가지다.

공간 루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사진을 공부했건, 혹은 DSLR을 구입하면서 그제야 사진을 찍게 된 아마추어건 상관하지 않는다. 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 대관료 역시 무료다. 덕분에 전문 사진작가보다 아마추어 작가의 전시 비율이 좀 더 높다. 동시에 조 관장이 노리는 것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게 목표에요." 그래서 공간 루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공연과 세미나는 물론 사진 관련 강좌도 마련돼 있다. 특히 이제 막 사진 찍기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마련하게끔 도와주는 '생각하는 사진하기' 강좌가 인기가 좋다. 갤러리로서 빠질 수 없는 마켓기능 역시 공간 루의 주요역할이다. 지금 전시 중인 사진 대부분에 이미 판매됐음을 알리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활발한 마켓 활동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카페 한 부분을 꾸미고 있는 사진들 역시 조 관장의 작품과 함께 그녀가 직접 구입한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 공간 루의 역사는 유명세만큼 길지 않다. 작년 8월에 시작해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 하지만 올해는 물론 내년 초까지 스케줄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다. 조 관장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획전 구상도 다양하다. 10월은 다양한 동호회의 전시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마추어의 사진에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전시다. 대중음악 전문웹진인 가슴 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홍대 뮤지션 사진 전시 역시 10월에 예정돼 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한 공간 루는 무엇보다 문화와 대중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조인숙 관장의 목적은 잘 달성되고 있는 것 같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188-4 인성빌딩 1층
문의 02-765-1883
오픈시간 오전 11시~새벽 1시
홈페이지 www.spacelou.kr

스튜디오 벽 너머의 카페, 마다가스카르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역에 내리면 과연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싶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이기 때문이다.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효창운동장이, 옆에는 기사 식당을 둘러싸고 택시가 줄을 서있다. 그 가운데 마다가스카르는 작은 테라스를 품고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득이다. 마다가스카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확실한 하나의 콘셉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여행'이다. 사실 마다가스카르를 운영하는 신미식 관장은 여행사진 전문가다. 신 관장은 사진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사진을 찍어 이곳에 전시한다.

마다가스카르는 갤러리와 카페는 물론 스튜디오까지 분리되어 있다. 본래 이곳이 스튜디오였던 덕에 보통의 갤러리나 갤러리 카페에서 볼 수 없는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는 것. 그리고 북카페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양한 책이 가득하다. 벽면과 기둥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카페 벽면을 장식한 사진 역시 마찬가지다. 커피와 함께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소 가득한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디로든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싶은 충동이 인다. 이곳을 장식한 다양한 소품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숱한 여행 중 사 모은 기념품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곳을 여행하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해진다.

도시 생활에 지칠 때 그리고 여유를 찾고 싶을 때 마다가스카르를 찾으면 좋겠다. 여행의 숨결로 가득한 이곳은 휴식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1인용 테이블이 마련돼 있는 것이 좋은 예다. 굳이 어딘가로 떠나지 않아도 이곳에는 여행이 날 것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132-22 아람빌딩 1층
문의 02-717-4508
오픈시간 오전 10시~밤 11시
홈페이지 www.madagascarlove.com

1, 2, 4 마다가스카르 내부
3 마다가스카르 외관
5, 6, 7 포토텔링 내부

'카페'갤러리? 카페 '갤러리'! 포토텔링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중간 사진기자재가 보인다. 먼지가 쌓이긴 했으나, 손때가 더 눈에 띈다. 대학로에 위치한 포토텔링은 현상실과 같은 곳이다. 사진작가에게는 전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진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카페는 굳이 전시가 아니더라도 편히 찾을 수 있는 분위기다. 우선 문을 열면 사진이 걸린 하얀 벽이 눈에 띈다. 왼쪽을 길게 돌아 정면까지 이어진 두 면의 전시 공간은 갤러리 카페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갤러리와 카페를 동시에 대변한다. 게다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구입한 커피 원두 덕에 커피 맛도 뛰어나다.

포토텔링의 전시는 15일을 기준으로 바뀐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정도의 일정을 차지하는 전시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진이 2주 간격으로 바뀌어 걸릴 뿐 아니라, 사진에 따라 공간이 변화한다. 테이블과 의자, 책장까지 위치를 달리한다. 효율적인 전시와 관람을 위한 이현석 관장의 배려다. 이 관장의 손길은 포토텔링 내부 곳곳에 배어있다.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아담한 서재 공간이 특히 그렇다. 물론 전시에 대한 노력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진작가 발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다른 갤러리와의 교류도 활발하다.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작가와의 만남'은 갤러리 투어와 비교된다. 서로 비슷한 콘셉트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들이 각기 다른 갤러리를 순회하며 만나고 이야기를 한다. 이 관장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공간에 있는 갤러리 카페들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 문화 공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갤러리 카페가 또 생긴다고 해도 환영이에요." 찍는 것의 대중화 그리고 작품의 대중화. 그것이 이 관장의 생각이다. 또 '누구나 편하게 사진을 선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토텔링은 엽서 크기로 인화한 사진을 1,000~2,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작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누구나 쉽게 지갑을 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사진 시장이 확대되길 꿈꾼다. 이러한 이 관장의 노력은 갤러리와 카페의 합리적인 공존을 위한 것이다.

사실 이현석 관장은 다큐멘터리 전문 작가다. 그래서인지 포토텔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구축이다. 5개월여의 전시와 앞으로 계속될 전시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다. '포토그래피'와 '스토리텔링'을 합쳐 포토텔링이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 관장이 선호하는 사진 역시 이야기가 스며있는 사진이다. 그래서 이곳의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전시를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관장의 새로운 시도는 포토텔링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진다. TV를 통한 프레젠테이션, 다큐멘터리나 패션 등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까지. 10월에 예정된 포토텔링의 전시 역시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아이템이다. 트랜스젠더가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아닌 패션모델로 카메라 앞에 선다. 매번 기대되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공간. 포토텔링은 특이한 공간으로 사진작가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며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할 것이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85-10 지하 1층
문의 02-747-7400
오픈시간 오후 12시~밤 12시
홈페이지 www.phototelling.net

글 | **김용현**
몇 개의 매체를 거쳐 현재 주간지 〈M25〉에 적을 두고 있다.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외 다양한 방면의 문화 활동에 관심이 많다. 최근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는 문화와 산업의 결합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V10이다.

사진
공간 루 : 조인숙 관장
마다가스카르, 포토텔링 : 한금선

골목이라는 보물지도

본 꼭지는 이 시대의 문화예술인들이 보고 느끼는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꼬불꼬불 미로를 그린다. 사람 냄새 배어있는 가녀리고 길게 뻗은 무수한 골목. 모르면 무섭고 알면 아늑한 곳, 어딜 가든 동네의 진수는 골목에 있다. 사람 소리 고이고 발자국 겹겹이 쌓인, 골목은 보물지도다.

중학교 2학년 초봄, 혼자 기차를 타고 어둑어둑해진 서울의 영등포역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버지는 내게서 책가방을 뺀 나머지 보따리를 받아들고 묵묵히 앞장서서 걸어갔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연과 먼지로 기침이 쏟아졌다. 기침 끝에 눈물이 났다. 버스에서 멀미로 고개를 숙인 채 헛구역질을 했다. 휙휙 지나가는 차창 바깥의 풍경에조차 적의가 숨어있는 것 같았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는 시커먼 땅바닥에 뿌려놓은 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넘어졌다. 창피했다. 편안하게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 앙상한 가로수와 줄지어선 가게들의 간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속에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었다. 찻길에서 시멘트 포장이 된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 골목이다."

나무의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가 갈라지고 거기서 다시 더 작은 줄기가 갈라진 뒤에 마지막으로 잎과 꽃, 열매가 매달리듯 골목이 있었고 집들이 있었다. 키 큰 전봇대에 매달린 보안등에,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집에 다가갈수록 골목은 깊어졌고 골목이 깊어질수록 안전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제야 서울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골목은 늘 나를 키우고 지켜주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다른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과 흐느낌을 알 수 있었다. 합격했다, 당첨됐다는 환호도 골목에서는 쉽게 들렸다. 바깥세상을 거세게 후려치는 바람도 골목에 들어오면 순해졌다. 친구와 꼬불꼬불한 골목을 따라 돌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든 것이 다가올 인생의 피와 살이 되었다.

오래된 도시에는 골목이 있다. 골목에는 집이 있고 사람이 산다. 삶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개개인의 역사가 있다. 그런 것들로 골목은 한없이 깊어지고 길어지며 지혜로운 사람의 표정을 닮아간다.

골목을 만드는 건 담과 벽, 하늘과 땅이다. 벽에는 그림과 소문의 문장이, 땅에는 지붕을 거쳐 홈통으로 여행해온 빗물이 그려내는 자연의 낙서가 있다. 담벼락 아래 풀이 돋아나고 벽을 기어오르는 덩굴에 밤하늘의 별처럼 꽃이 매달린다.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며 노래를 흩뿌린다. 연인이

손을 맞잡고 오래오래 아쉽게 이별하는 곳이 골목이다. 눈이 오면 가래를 들고 나와 인사를 나누던 골목, 연탄불이 꺼지면 이웃집에 불을 빌리러 가던 골목.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혼자서 살 수는 있지만 재미는 없을 것임을 골목은 가르쳤다.

나는 어떤 도시에 갈 때마다 골목에 들린다. 거기서 숨을 쉬어보면 안다. 이 도시가 살 만한 곳인가. 이 도시의 품격이 어느 정도인가. 꼭 옛날식 골목이 아니라도 사람 사는 데는 골목이 생긴다. 아파트 사이에도 세월이 흐르면 골목이 생기게 되어 있다. 거기서는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번쩍번쩍하는 새 건물과 바둑판처럼 뻗은 대로로 만들어진 신도시, 골목이 없는 도시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가 된 느낌이 든다. 나는 그런 곳에서 이물질이고 외계인일 뿐이다.

서울은 무수한 골목을 품고 있다. 골목길은 서울의 보물지도다. 골목이 보물이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평범한 보물이 아니라 아름답고 품위 있는, 삶을 삶답게 해주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보물이다.

글 | 성석제
196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문학사상』 시 부문 신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를 간행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 『재미나는 인생』 『번쩍하는 황홀한 순간』 『홀림』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참말로 좋은 날』 등이, 장편소설로 『아름다운 날들』 『도망자 이치도』 『인간의 힘』 등이 있다. 산문집으로 『즐겁게 춤을 추다가』 『소풍』 『유쾌한 발견』 등을 냈다.
한국일보문학상, 동서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을 받았다.

일러스트 | 김은혜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를 졸업한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무언가 이루는 삶보다 탐구하고 탐미하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 중이다. 그림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 창작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다.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9/10 vol 32

FOCUS INTERVIEW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김성욱

기억의 공간, 공간의 꿈을 만들어 가다

서울 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김성욱

켜켜이 먼지 쌓인 책 기둥 사이로 원하던 책을 찾았을 때의 기쁨,
수많은 LP판 가운데 희귀앨범을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
낡아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역설적인 욕구다.
점점 위축되어 보이는 종로의 영화관들을 찾을 때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심리이리라.
잘 살아 남아라, 끈질기고 당당하게 살아 남아라,
오늘도 중얼거리며 극장을 나선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 온 해, 542번 버스를 타고 종로 서적에 가는 일은 나의 유일한 일탈이었다. 5층 소설 코너에서 다리에 쥐가 나도록 읽었던 박완서나 이청준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8할 이상의 공을 세웠다고 믿는다. 지금은 사라진 공간, 종로 2가를 지날 때면 나는 그냥 눈을 감는다. 유령처럼 떠도는 그 시절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김성욱 프로그래머를 만나러 서울 아트시네마로 찾아가는 길, 머지않아 낙원상가 4층을 오르며 영화를 보러가던 이 길도 추억으로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낙원상가 재개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데다 임대 재계약의 문제도 늘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황량한 옥상이지만 그곳에는 시네마 천국의 토토에게처럼 조각난 필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비디오로 본 영화, 극장에서 본 영화

"재개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고 이 건물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전용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낙원상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서울아트시네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단지 공간을 옮겨갈 뿐인데…."

공간이 바뀌면 그 공간과 함께 한 기억은 어디로 가는 걸까. 소격동 아트시네마와 낙원동 아트시네마는 전혀 다른 기억의 공간이다. 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추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은 최근 씨네큐브의 이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 아트시네마는 한국 시네마테크 협회의 출범과 함께 2002년 소격동 아트선재센터 지하에 문을 열었다. 임대 만료를 앞두고 아트선재센터 측과 재계약이 되지 않아 허리우드 극장이 있던 자리, 지금의 낙원상가 4층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나란히 있는 두개 관 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실버영화관이고, 오른쪽 한 관이 서울아트시네마, 예술전용관이다. 여느 영화관처럼 팝콘 냄새가 진동하고 영화인들의 사진전시와 쉴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지만, 멀티플렉스 영화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야릇한 향수가 느껴진다. 김성욱 프로그래머는 이곳에서 상영할 일 년간의 영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

"아트시네마는 일 년 내내 기획전, 회고전, 특별전으로 이루어져요. 외국의 고전영화 프린트를 들여오고 보내고 하는 일이 가장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걸리죠. 필름 아카이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럴 여건은 안 되고, 최대한 좋은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영화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뜻이 맞는 영화제나 의미가 있는 작은 영화에는 대관도 하고요."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는 영화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누구와 어디서 보았던가. 혹 비디오방은 아니었나, 집에서 DVD로 보지는 않았나, 아니면 골방에서 불법 다운로드로 접한 영화를 당당히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성욱 프로그래머는 우리가 익히 아는 명작으로 남은 영화들, 그러나 제대로 보지 못한 영화들을 엄선한다.

"서울아트시네마는 주로 고전영화들, 오랜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예술영화들을 상영하는 재상영관이에요. 영화는 극장에서 보기 좋은 영상미학으로 만들어집니다. TV에서 보는 서부영화와 극장에서 보는 서부영화는 다를 수밖에 없죠. 영화를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젊은 관객들이 많지만, 고전영화의 추억을 가진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하세요."

2009년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후원 영화제,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2002년 한국 시네마테크 협회가 출범할 때부터 함께했으니, 김성욱 프로그래머가 서울아트시네마와 보낸 세월도 8년이 되어 간다. 낙원동으로 와서는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여름마다 선보이는 '시네 바캉스 서울'이라는 두 개의 큼직한 기획 영화제를 만들어 냈다.

시네마테크의 친구들은 일종의 후원 영화제다. 시네마 엔젤이라는 배우들의 후원모임에서 영화 프린트를 구하는 기금을 마련하고, 영화제 기간에는 서울아트시네마 후원 사진전 등이 열린다.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관객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과 대화를 나눈다. 올해는 박찬욱, 오승욱 감독이 게스트 프로그래머가 되어 상영할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했다.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어 내년 영화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의미 있는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간 독립영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송사의 영화 프로그램들이나 홍보 가능한 지면도 상업영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홍보할 수 있는 창구는 거의 막혀 있지만 그나마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는 꾸준히 관객의 사랑을 받고 호응도가 높아지는 영화제에요. 이 영화제를 통해 시네마테크 전용관에 대한 필요성도 알리게 되었고요. 대중적인 관심이요? 글쎄요, 마틴 스콜세지를 초청하면 좀 더 화제가 될까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봐요."

예술전용관 설립이 절실하다

자칫 멀티플렉스와 예술전용관의 양립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인다. 성경에는 다윗이 승리하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있지만, 어디 현실은 그런가.

"이러한 문제들을 자본의 논리로 따질 수는 없다고 봐요. 멀티플렉스에 걸리는 영화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시장의 상업적 논리에 의해 흥행에 성공하고 재미있다, 좋다고 평가받는 영화들이 10년 ,20년 후에 명작으로 남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좋은 영화, 꼭 봐야할 영화가 무엇이냐는 기준이 애초에 다른 선상에 있다는 말이다. 김성욱 프로그래머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의 존재는 결국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떤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가의 문제로 남는다고 말한다. 고전영화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 영화를 보는 다양한 눈을 기

르는 것이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여러 기획을 가지고 매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 속 작은 학교를 열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다.

"영화관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곳이에요. 찾아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가 필요한데 여기, 서울 아트시네마에 오는 사람들은 그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곳에 찾아오는 관객을 보면서 이들 중에는 미래의 영화학도, 영화감독, 영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들이 영화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영화인들이 길러지고 모이는 곳, 예술전용관이 필요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건물 임대료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하는 서울 아트시네마는 비영리 운영의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관객들의 호응으로 선전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CMS 후원회원 1,000명 모집 캠페인으로 매월 무료 상영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협회 출범 10주년이 되면 무언가 결실을 맺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예술 전용관을 설립할 수 있다면 좋겠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도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구요. 내년에 그 씨앗을 뿌리고 내후년에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었으면 합니다."

10주년의 청사진은 그렇지만, 서울 시내에 전용관을 갖는다는 것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예술영화관에서 감당해내기엔 벅찬 일이다. 올해 들어 독립영화 '워낭소리'의 소리 소문 없는 흥행과 함께 양익준 감독의 '똥파리' 해외 단편 영화제 수상으로 작은 영화의 힘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지만, 예술영화의 존재 가치를 믿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일처럼 다루어진다.

"외국의 경우, 국가와 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성행해도 예술영화를 위한 전용관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반기에는 브라질 영화제, 루키노 비스콘티 회고전, 아네스 바르다 특별전, 존 카사베츠 특별전이 서울 아트시네마의 주요 라인업에 올라있다. 생소한 영화 제목일지라도 결코 지성의 사치가 아니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러보는 것도 괜찮겠다. 단, 블록버스터의 짜릿함을 기대하진 마시길….

〈시네바캉스 서울〉 포스터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포스터

내 나이보다 오래된 티셔츠를 입고, LP판의 잡음을 즐기며 음악을 듣는 일, 인터넷 서점보다는 굳이 서점에 찾아가 훑어보며 책을 고르는 일.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추억을 더듬는 것은 우매한 일인가. 김성욱 프로그래머는 서울 아트시네마의 면면을 가꿔주는 조력자일 뿐,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은 서울 아트시네마가 되어버렸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없어도, 상영 중인 영화포스터를 길거리에서 볼 수 없어도 이곳은 마음속의 영화를 갖게 해주는 곳, 즐겨찾기 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은 곳이 되기에 충분하다.

글 | 김민정

사진 | 손승현
한국인을 비롯하여 역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 글, 비디오, 영상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2 광주비엔날레, 뉴욕의 데니스 비브로 파인아트, 최근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에세이로 기록한 〈원은 부서지지 않는다〉가 있다.

YOUNG ARTIST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이수영 · 리금홍

인천차이나타운 옛 청요리집 〈공화춘〉 앞에서 두 사람이 근대 복장으로 분하고 찍은 사진. 올해 입춘에 '짜장면'을 기리기 위해 기념 촬영을 했다.

어슬렁어슬렁, 속닥속닥, 뚝딱뚝딱 이주(移住)요리책을 만드는 작가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이수영 · 리금홍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의 입주작가 이수영, 리금홍. 이들 작업의 주제는 '가리봉 엔벤타운'이다. 가리봉동 조선족의 음식문화를 요리책 형식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앞으로 일 년 동안 이어갈 생각이다. 다음은 이들의 작업실인 2층 첫 번째 방에서 나눈 2009년 9월 13일의 대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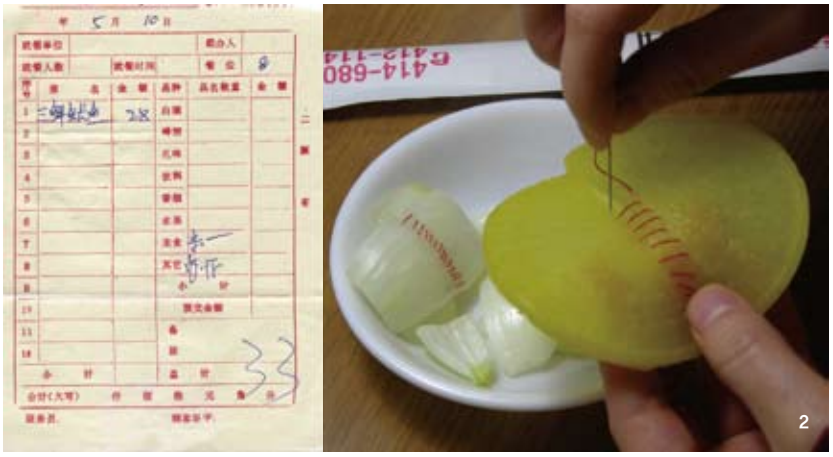
새집에서 슬슬 가리봉 엔벤타운을 어슬렁거려볼까?

페인트 냄새가 나는 새 집에서 그녀들을 만났다.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덕분에 천장은 구불구불 내장처럼 파이프라인들이 지나간다. 아마도 굵은 배관은 공기를 주입하는 길, 가는 배관은 잉크 원료가 다니는 길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가끔 천장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수영(42세), 리금홍(37세) 작가는 삼 년째 같이 느끼며 작업을 해오는 중이다.

작업실은 아직 그들에게 새 옷이었다. 나흘 전, 일요일 4시쯤 그들은 짐을 싸서 트럭에 싣고 작업실로 왔다. 월요일에는 을지로에서 맞춰온 작업대들을 칠하고, 화요일에는 각자 볼 일을 봤으며, 수요일에 작업대를 완성하고 짐을 슬슬 푸는 중이었다. 짐 중에는 쥐덫이 종류별로 있고, 빈 병이며, 도대체 저것이 어디에 쓰일까 싶은 소품들이 비닐 봉투에 담겨 있었다. 버리지 못해서 갖고 왔다고 했다. 버리지 못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어디 짐뿐일까?

리금홍 작가가 전에 작업한 춘화는 벽 한 켠에 서있고, 이수영 작가의 책상 위에는 수유시장에서 사주를 봐주고 받은 복채들이 늘어서 있었다. 손바느질을 해서 만든 핸드폰 고리, 인쇄가 조잡한 면 손수건, 목도리, 모자, 빈 요구르트 병, 각종 명리와 관련된 메모들…. 그것들은 수유시장 사람들과 교감한 흔적이다. 이를테면 면 손수건을 파는 아저씨는 사주를 보고 손수건을 몇 장 집어주고, 좌판을 벌여놓은 할머니는 목마를 테니 마시라며 요구르트를 하나 주었을 것이다. 별 것 아닌 소품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수유시장과 그곳 사람들을 상상하게 한다.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삶은 허섭스레기들의 실체며, 지극히 사소한 교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혹시 삶 또한 버리지 못해서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든다. 이 작가가 봤다는 수유시장 상인들의 사주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소품들처럼 곤고해 보이고 땀내가 났을까?

YOUNG ARTIST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이수영 · 리금홍



1 이수영_첨단철가방, 철가방에 기계부속, 2009
2 이수영_아픈 짜장면, 복합매체, 2009
3 리금홍_짜장면의 생산방식, 싱글채널, 4분, 2009
4 리금홍_짜장면 조리법 취재와 레서피, 산동성 연태시, 화첩, 2009

부암동 43-2번지 빈 집에서 만나, '짜장면' 프로젝트를 만들다

그들은 2년 전, 부암동 43-2번지에 있던 비어 있는 집에서 작업을 같이 했다. 누군가 빈 집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만났다. 이수영 작가는 남겨진 쓰레기들을 뒤졌다. 각종 세금 고지서와 영수증이 나왔다. 만약에 누군가가 길에서 죽는다면, 그가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졌고,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를 한 치과기록이나 병원수술기록, 동사무소에서 날인한 지문 '670****'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을 증명할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삶의 공적인 혹은 사적인 증거물들이 그 삶을 증언한다. 지극히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허섭스레기 같은 삶의 증거를 모음으로써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수영 작가 작업의 고갱이를 이룬다.

이수영 작가의 그 동안의 개인전 역시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 개인전은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범죄경력증명서 따위의 자신에 대한 '관공서 기록',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반공웅변대회 상장 따위의 '교육기록', 핸드폰 통화 내역, 교통카드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신에 대한 '공적기록'들을 모아 아카이브를 만들어 전시했다. 두 번째 개인전은 발에 습진을 앓았을 때 발랐던 연고, 붕대, 벗겨진 피부각질, 한의원에서 침 맞은 혈 자리, 진료기록 등을 모아 전시했다. 일명, 습진의 기억이다. 발이 아프니까 발이 안 아플 때는 몰랐던 발에 대한 존재감이 되살아났다. 2007년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불광천 생물도감을 만들었다. 동네 어린이들과 개천에 사는 생물들을 조사한 다음 그것을 벽화로 그리거나 불광천 징검돌에 음각으로 새기거나 모자이크 작업을 했다.

리금홍 작가는 문화의 충돌을 기록함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접해있는 단면을 보여준다. 빈 집 작업을 할 때는 왕희지 서체로 〈반금련〉을 새겨 탁본한 다음 그것을 벽에다 붙였다. 빈 집은 비행청소년들의 성적 일탈의 장소일 수도 있고, 그집을 가득 채웠던 어떤 흔적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미술을 전공하기 전 중국어 공부를 한 그녀는 중국어의 음감과 질감, 시각적 감흥을 작업에 이용하곤 한다. 올 3월에 연 첫 개인전 〈신장개업〉에서 그녀는 부지불식 중 '우리는 백의민족이고 단군의 자손'이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의 사고의 정체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자 했다. 아이소핑크(진분홍)로 현판을 제작하고, 온갖 싸구려 재료들로 현판에 새겨진 말들을 설명했다.

'짜장면'에서도 그녀는 문화의 '엇갈림'을 기록하는 작업을 했다. '짜장면' 요리책을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다. 조리법을 한자로 적어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을 하고보니 엉터리였다. '오이를 채 썬다'는 말은 '비단 오이'가 되어 버렸다. 가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리금홍 작가는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한다. 중국에 가서 자신이 만든 '짜장면' 요리책을 보여주었더니 "이게 뭐야?" 라고 했다. 누가 '짜장면'을 중국에서 온 음식이라고 했는가? 최소한 '짜장면'은 정반합처럼 이질적인 두 음식 문화가 서로 부닥치면서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에 '짜장면'은 없으며, 한국에는 '짜장면'이 있지만 순수한 한국 음식은 또 아니듯이.

YOUNG ARTIST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
이수영 · 리금홍

시간 추적자와 문화 추적자, 가리봉 탐색에 나서다

그들은 며칠 뒤부터 짐을 풀면서 가리봉시장 주변부터 답사할 예정이다. 짐을 정리하는 사이사이 이야기를 툭툭 던질 것이고, 그것은 어쩌면 작업의 작은 실마리들이 될 것이다. 같이 작업을 하는 동안의 그들은 샴쌍둥이다. 서로 다른 얼굴과 영혼을 가졌지만 장기를 공유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작업을 하지만 한 가지는 공유한다. 가리봉 옌벤타운.

두 작가는 이미 작년에 '짜장면' 작업을 하면서 조선족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슬슬 다니면서 단골집을 찾고, 맘에 드는 아줌마를 찾을 것이다. 작업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이 작업의 매력이다. 본래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오히려 유쾌하다. 대화는 교접인 동시에 유쾌한 충돌이다. 흥미진진하면 흥미진진한대로, 뻔하면 뻔한대로 이들은 받아들일 것이다.

대화하는 내 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이들 작업의 일부다. 무엇인가를 가늠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들 작가를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다. 일상은 완고한 고정관념이다. 삶, 살아내는 시간은 도대체 뭘까, 내가 가진 문화란 무엇일까, 소통은 무엇이며, 소통되지 못한 엇갈림은 또 무엇일까? 시간을 생각하고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떠오른다. 어찌 보면 이수영 작가는 시간의 추적자, 리금홍 작가는 문화의 추적자이다. 이들은 고정관념에 찬 세상을 뒤집어보고 헤집어보며 일상에, 일상에 들어차 있는 시간에 접근한다. 이 시간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잘게 쪼개어 보면 얼마나 낯선가?

이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 대상을 대하는 두 작가의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대화 내내 이들은 늘 예민하게 탐색한다. 누가 인터뷰를 하고 누가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도 오랜 작업에서 배어난 습관일 것이다.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므로.

이들의 이 헐렁헐렁해 보이는 작업은 현대미술 중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 라고 불린다. 대상과 대화, 관객과의 소통이 없는 예술이 있는가? 이들이 '커뮤니티 아트'로 굳이 지역과의 교류에 힘쓰는 것은 미술치료를 하든지, 혹은 불광천처럼 대중이 찾는 곳을 작업의 무대로 하든지 작가는 대중 속에서 부닥쳐서 얻어지는 질료로 작업하기 때문이다. 결과물뿐 아니라 작업의 과정까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내며, 그 과정까지 모두 이들 작가의 작업 내용이다.

이들은 옌벤을 거쳐 몽골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입주신청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낸 작업계획서에는 양꼬치 등 음식을 통한 비교 문화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음식을 추적해가다 보면 사람과 사회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사회의 문화라는 바닥에 닿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 작업은 아마도 책의 형태를 빌리지 않을까 예상된다. 왜 요리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은 "양고기를 잴 때는 술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 양고기 요리를 만드는 연변 아줌마를 만나고, 양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유목민들을 만나고, 어쩌면 칭기즈칸의 후예인 회색 눈의 사람들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이들이 만드는 요리책은 일반 요리책과는 다르다. 일반 요리책이 지극히 실리적이고 계량화된 음식을 싣고있다면 이들의 요리책은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하고 감각적으로 음식 문화를 보여준다. 또 비주얼 작업을 통해서 맛과 냄새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다. 그래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대미술은 작가 맘이라는 게 허술하나마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수영과 리금홍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책의 형태를 취한 것은 가장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삼청동이나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를 찾아, 구불구불 골목을 지나, 지하로 된 계단을 내려와 그들을 만나러 오는 관객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1년 동안의 작업 일정은 헐렁하다면 헐렁하고 빡빡하다면 빡빡하다. 올 9월과 11월에는 조선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단골식당을 물색하는 등 가리봉 옌볜타운 주변에서 있을 것이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인터뷰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주요리책에 쓸 자료 구성을 시작할 것이다.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길림성을 한차례 답사할 것이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개인사를 구술하고, 이미지 원고를 마감할 것이다. 내년 6월부터 8월까지는 작업의 막바지 단계다. 책 원고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결과발표회 즉 전시회를 열 것이다. 그러면 1년 계약이 끝이 난다. 다시 이삿짐을 싸든 다른 프로젝트를 맡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이다. '짜장면' 프로젝트를 할 때는 경기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연태시(옌타이 시)까지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애초부터 계획을 공개하고 기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신청해야 한다고. 두 작가의 계획은 가리봉오거리에서 옌볜을 거쳐, 유르트(몽골식 집)에 앉아 양고기 냄비에서 꼬치를 꺼내 먹는 몽골까지 가는 것이다. 그들은 과연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가 닿을 수 있을 것인가?

글 | **김수영**
92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했다.
시집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며, 술을〉 〈오랜 밤 이야기〉
산문집 〈안식월〉을 펴냈다.

사진 | **한금선**

브레겐츠페스티벌 2009년 Floating Stage 작품 'Aida'

축제의 두 얼굴, 형식과 탈형식을 만나다

브레겐츠 vs 오리악

서울의 대표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하면서 변화의 굴곡을 넘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발전의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 어떤 이미지를 더할 수 있을지 여기 유럽의 두 축제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갈 축제의 미래를 그려본다.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창의산업(혹은 창조산업 : Creative Industries)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인 문화예술의 활약을 예고했던 대로, 오늘날 수많은 창작집단과 예술가집단이 빠르게 기업화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 도시 재생은 혁신적인 도시마케팅의 사례가 되었고, 특정 문화나 장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는 급증하는 관광객 덕분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누리며 창의산업을 이끌어갈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불안정한 금융업으로 야기된 사회불안을 희석시킬 대안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타 영역과 연계하기 쉽고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의 어떤 점이 사람들과 사회를 매료시킨 것일까. 무엇을 문화예술의 핵심 에너지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의 미학이 어우러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축제'다. 지난 8월에 다녀온 유럽의 주요 축제 탐방을 통해 유희의 인간 'Homo Ludens' 에 대한 우리의 현대적 갈망과 이를 이용한 치밀한 도시생존 전략을 살펴보고, 축제가 갖는 현대적 의미, 특히 도시축제에서 참고해야 할 축제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다.

형식, 브레겐츠페스티벌

Bregenz Festspiele

오스트리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소도시 브레겐츠는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보덴호수(Lake Constance)를 사이에 두고 독일과 스위스를 건너다보는, 유럽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휴양도시다. 올해로 64회째를 맞이한 브레겐츠페스티벌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호숫가에 바지선(Barge ship) 2대를 엮어 'Bastien und Bastienne'(모차르트의 초기 오페라)를 시작한 것이다. 이후 반세기를 넘기며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와 더불어 세계 3대 음악축제로 명성을 쌓기까지는 공연장 하나 없던 시골마을 브레겐츠만의 매력으로 축제적 요소를 개발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온 지역민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조직적인 참여가 있었다. 1949년 지역민을 중심으로 'Festival Community of Bregenz'을 결성한 후 이들은 기부와 직접 참여를 통해 브레겐츠페스티벌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 이르러서는 축제 운영조직이 재단(법적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인 GmbH)으로 바뀌면서 'Friends of

1 브레겐츠페스티벌 2009년 Floating Stage 작품 'Aida'
2 브레겐츠 페스티벌하우스 앞 광장 및 Floating Stage 객석
3 브레겐츠페스티벌 안내판

the Bregenz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고, 기부를 포함한 축제 프로모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매년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세계 최대의 호상무대(Floating Stage)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공연의 일부로 끌어들인 발상의 전환, 초보 관람자도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브레겐츠 스타일의 연출기법,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공동 마케팅,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들만의 특징과 매력은 다양하게 개발되어왔다.

브레겐츠페스티벌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Floating Stage는 초창기 목재 말뚝을 이용해 만들었던 것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완하고(197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리노베이션 및 확장공사를 통해 기계식 장치와 첨단 음향시설을 갖추면서 지금과 같은 현대식 시설로 거듭났다. 현재 6,880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에 오픈한 페스티벌하우스와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기상 악조건 속에도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연 레파토리는 베르디와 푸치니, 모차르트 등 고전 작품을 위주로 하며, 1985년 이후에는 한 작품을 두 시즌에 걸쳐 공연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Sense & Sensibility>로, David Pountney 예술 감독의 지휘 아래 "모든 예술의 본질인 감각을 주제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의 감각에 다가서는 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공연작품은 베르디의 오페라 'Aida'로, 지난해까지 진행된 'Tosca'에 이어 더욱 파격적이고 현대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평온한 호수에 내려앉은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규모의 공연은 그 자체로도 장관이다. 거기에 건설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타워크레인을 활용, 막간 휴식없이 장면전환을 이루어내는 획기적인 연출방식을 통해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밖에도 페스티벌하우스 내에 실내공연장(1,660석)과 스튜디오, 컨퍼런스룸, 갤러리 등을 갖추고 Floating Stage 공연과는 차별화된 현대극과 오페레타 공연, 유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한다. 이처럼 브레겐츠페스티벌은 다양한 축제 참가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지역사회 관객 개발을 위한 예술교육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제기간 중 페스티벌하우스 앞 광장을 활용해 운영하는 'Gourmet Tent' 역시 클래식 공연과 함께 다양한 음식과 와인을 즐기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이 관광객인 축제 참가자들이 자연스러운 사교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여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이 모든 것이 브레겐츠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이고, 페스티벌은 그 경험을 유료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있다. 현재 브레겐츠는 한 달간의 축제를 통해 도시 전체가 일 년을 지내는데 필요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한 시즌이 끝나는 순간 다음 시즌을 위한 프로모션 체제로 전환된다. 그 명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밀한 체계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탈 형식,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

Aurillac Festival International de théâtre de rue

파리에서 기차로 6시간, 560km를 달려야 만날 수 있는 중부 산간 오베르뉴(Auvergne) 지방 깡딸(Cantal)에 속한 오리악. 작고 조용한 산간도시인 이곳은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는 8월의 마지막 주말을 낀 4일 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거리공연과 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거리마다 쉼 없이 공연이 진행되는 사이 어둠이 짙어 가면 술과 축제의 열기에 취한 젊은이들이 고래고래 노래와 환호를 쏟아내고, 또 저들만한 개와 뒤섞여 길바닥 아무 곳에나 널브러진다. 피아노를 매단 포크레인을 따라가다 길을 잃기도 하고, 독특한 기계음의 퍼포먼스에 빠져 춤을 추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펼쳐지는 광대극을 보며 신나게 웃다 옆에 앉은 사람과 눈이 맞기도 한다. 공연과 현실이 뒤섞이고 사람만큼 많은 개와 쌓여가는 개똥에 무덤덤해지는,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카오스다. 이런 축제를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오리악은 전통적인 우산 생산지로, 20세기 말 제조 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1960~70년대 심각한 도시공황을 겪은 후, 1980년대 초 도시 재생을 위한 문화설비의 확충과 함께 거리극에 주목하게 된다. 이후 1986년 프랑스 거리극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미셸 크레스팽(Michel Crespin)과 그의 수제자이자 현 축제 예술감독인 장-마리 송지(Jean-Marie Songy)에 의해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가 시작되었다.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축제의 재정과 행정지원을 담당했던 오리악시의 기대를 뛰어넘어 현재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거리극축제로 손꼽힌다. 축제 첫 해의 기록(2일간 6개 작품, 2천명의 관객)을 돌이켜보면 올해로 24회

제24회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 거리 전경

1

2

3

4

5

1 제24회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에 참가한 '경계없는예술센터'의 'Tarantela a venir' (연출 이화원) 공연장면
2, 3, 4 제24회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 거리공연장면
5 제24회 오리악세계거리극축제 'Professional Desk'가 있는 Jules Ferry School 전경

째를 맞은 이 축제가 얼마나 큰 성장(4일간 600개 작품, 약 20만 명의 관객)을 거듭해왔는지 알 수 있다. 축제 창설 이후 우산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으며 현재 프랑스 전체 우산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게 된 것도 축제로 인한 파급효과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런 오리악축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성공요인은 무엇보다 축제 콘셉트에 충실한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가 진행되는 4일간 오리악의 주요 거리는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끊임없이 공연이 펼쳐진다. 실내 공연도 있지만 그야말로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이 주를 이룬다. 공연 이외의 부대행사는 최대한 지양함으로써 짧은 축제기간에 보다 많은 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축제 참가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둔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전략적인 제작방식에 있다. 작품료와 여비, 숙박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공식초청작을 소수로 엄선하여 매년 오리악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거리극의 동향을 이끌고, 비공식 참가작(통상 Off공연으로 지칭)은 자유롭게 참가 신청토록 해 축제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유지한다. 특히 2004년부터는 국제거리극창작연구센터인 'Parapluie'를 개관하여 축제 공식초청작의 현지 창작과 공연단체간 공동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축제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와 축제기획자 등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Professional Desk'를 운영하여 리셉션, 공개토론 등 각종 네트워킹 교류와 작품 거래를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공연축제이면서 아트마켓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오리악축제의 주요 성공요인은 프랑스인 특유의 자유와 관용 정신이다. 거리극의 특성상 거친 풍자와 혹독한 비판의식이 불가피하지만, 프랑스인 특유의 관용정신(Tolérance) 덕에 거리극의 전위적, 전복적 성격이 축제적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탈형식, 현대 도시축제가 나아갈 길

축제는 인류 역사와 더불어 '제의(祭儀)'라는 공동체의 목적과 '일탈'이라는 개인의 시의적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통로가 되어왔다. 그러다 근대 이후 지역공동체가 도시와 상업기구로 대체되면서 점차 공동체적 욕구보다 개인적 욕구 충족의 필요가 강해졌고, 그 기능 중 '놀이'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현대 도시사회에 와서는 도시 재생, 도시 마케팅을 위해 축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서 축제가 사회와 함께 변화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변화요인을 활용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이 더 이상 특정 양식과 이데올로기를 주장하지 않으며 총체적인 믹스(Mix)와 매치(Match)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듯, 축제 역시 보편성(형식)과 개별성(탈 형식)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브레겐츠와 오리악은 그런 측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동시에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7년째, 횟수로는 10회를 넘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그동안 주제와 프로그램에 집착한 많은 실험을 통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2010년 국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언어장벽이 없는 '넌버벌(Non-verbal)'로 또 한번의 승부수를 던질 예정이다. 서울의 어떤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가 아닌, 서울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글 및 사진 | 임미혜(서울문화재단 축제제작팀장)

본 꼭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찻집

때로는 작은 것이 더 가치를 발하는 법이다. 크고 번쩍거리는, 눈에 띄는 것들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숨겨진 서울의 미를 찾아내어 소개해보면 어떨까. 단아한 얼굴을 하고 소박한 멋을 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서울에는 수많은 카페가 있고 인사동에는 많은 찻집이 있지만, 내게는 앉아서 무언가를 마시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찻집이 있다. 바로 '귀천'이다. 이 작은 인사동 찻집의 이름, '귀천'은 '하늘로 돌아가다'라는 뜻이다.
시인 천상병(1930~1993)이 쓴 유명한 시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의 아내 목순옥이 아직도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그 자신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잃게 된 히로시마 폭격의 생존자로, 그 비극이 일어났을 때는 겨우 9살이었다. 당시 그녀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 그늘 속에 앉아 있어서 폭발에 의해 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내가 귀천에 데리고 간 손님들은 항상 그녀가 오빠의 친구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놀란다. 천상병이 심각한 병을 앓고 난 후인 1971년이었다. 그의 친구들 중 몇 명은 1968년 동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천상병 역시 그런 사람들의 친구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구금됐다. 몇 년 후 그는 행방불명되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신병원에서 발견되었다. 신경쇠약에 걸린 것이다. 목순옥은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없는 그와 결혼하기로 했다. 20년 동안 그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서울 동쪽 교외에 있는 월세집을 전전하였다. 마침내 친구들이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어 인사동에 방을 구했고, 찻집을 운영하여 겨우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1985년, 귀천이 처음 문을 열었다.
천상병이 타계한 직후인 1990년대 초반, 내가 그 찻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평범하고 네모난 방에 불과했다. 4개 테이블에 20여 명의 손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곳엔 책, 잡지, 그림이 가득했다. 어떤 것들은 천상병이 직접 사용하던 것이었고, 그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도 있었다. 당시도 인사동은 재미있고 활기찬 곳이었다. 유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기타 다양한 예술가들이 배회하고 다니다가 술을 마시기 전 귀천에 들르곤 했다.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아쉽게도 옛날의 귀천은 사라지고 없다. 땅 주인이 크고 흉측한 상업건물을 세우려고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새로운 귀천은 훨씬 좁은 공간에서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천상병은 자신의 시에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찻집"이라고 쓴 바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작아졌다.
귀천은 인사동 남쪽 거리, "해정병원"이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 바로 맞은편에 있다. 이곳의 차는 맛있고, 즉석 커피(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손수 다린 것들이다. 대부분은 과일차이며, 모과차와 유자차가 가장 인기 있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도 마실 수 있으며, 땅속에서 2~3년 정도 숙성시켰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같은 이름으로 파는 차와는 맛이 사뭇 다르다. 지리산 관향에서 가져 온 녹차도 매우 특별하다. 적은 양을 손수 건조시킨 것으로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학생들과 외국인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간다. 특별한 차가 있고 훌륭한 인품의 목순옥 여사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번역했던 작품 중 그녀의 자서전은 무척 특별하다.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처럼 훌륭한 사람을 알게 되어 기쁘다.

The Smallest Café in the World

There are plenty of cafés in Seoul and quite a lot of tea-houses in Insa-dong, but for me there is one that stands out as much more than just a place to sit and drink something. Its name is "Kwich'ŏn", and the name of this tiny Insa-dong café means 'Back to Heaven,' the title of the most famous poem by the poet Ch'ŏn Sang-pyŏng(1930~1993) whose wife Mok Sun-ok still runs it. She herself is a very special person, a survivor of the Hiroshima bomb that killed her father; she was only 9 when that tragedy happened, she was saved from being burned by the flash of the explosion because she was sitting in the shadow of a tree in her school playground.

Visitors I take to Kwich'ŏn are always impressed on hearing how she agreed to marry her brother's friend, the poet, in 1971 after he had recovered from a severe illness. Some of his friends had visited the North Korean embassy in East Berlin in 1968, and on returning to Seoul were arrested as pro-North Korean agents; the poet was arrested, tortured and imprisoned just for being such people's friend. A few years later he disappeared, and was assumed dead until he was found in a mental hospital, victim of a breakdown. Mok Sun-ok agreed to marry him since he could not fend for himself alone. For 20 years they endured great poverty, living in rented rooms in the remote north-eastern suburbs of Seoul. Finally, friends lent Mok Sun-ok money to rent a room in Insa-dong where she could earn enough for them to live by running a café. Kwich'ŏn first opened in 1985.

When I first started going there in the early 1990s, just after the poet's death, it was located in a simple, square-shaped room, just large enough for 20 customers to cram together, sharing the four tables. It was full of books, magazines, paintings, some of them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poet, gifts from his friends. Insa-dong in those days was still a fun kind of place, with famous writers, artists, movie directors and assorted bohemians drifting around and they often visited Kwich'ŏn before moving on to get drunk somewhere else. It used to be a woderful place to meet interesting people. Alas, some years back the old Kwich'ŏn was demolished so the landowners could build a large ugly commercial building and a new Kwich'ŏn was allowed to open in a much reduced space. Ch'ŏn Sang-pyŏng once wrote in a poem that the original café was "the smallest café in the world"but it is much smaller now.

Kwichŏn is in the southern half of the main Insa-dong street, directly opposite a large sign indicating 'Hae Jeong Hospital.' The teas are delicious, entirely home-made except for the instant coffee(available in emergencies!). They are mostly fruit teas, quince(mogwa) and citrus(yuja) being the most celebrated. They can be drunk hot or cold and arequite unlike the teas with the same name served anywhere else, having matured for 2~3 years underground. The green tea that is also available is from the Kwanhyang house in Chiri-san, a very special tea, dried by hand in small quantities and not available elsewhere in Seoul.

I always take my students and foreign visitors there, because the teas are wonderful and Mok Sun-ok is a remarkable person. The book she wrote telling the story of her life is a very special one (I translated it) and I am grateful to know such a remarkable person in such a beautiful place.

글 | 떼제 공동체 수사 안소니(안선재)
영국 태생으로 1980년 한국에 왔다. 떼제공동체 소속. 서강대 명예교수.
천상병의 시를 비롯해 한국의 많은 근대시를 번역했다. "The Korean Way of Tea"(Seoul Selection)의 저자이다.

Brother Anthony of Taizé(An Sonjae)
Born in Britain, Brother Anthony came to Korea in 1980. He is a member of the Community of Taizé. He is an emeritus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He has translated many volumes of modern Korean poetry, including the poems of Ch'ŏn Sang-pyŏng. He is the author of "The Korean Way of Tea"(Seoul Selection).

OPEN REPORT
서울 속으로
코리아W필하모닉

대중에 한발 더 가까이

오케스트라 대중화를 꿈꾸는 '코리아W필하모닉'

본 꼭지는 문화예술활동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클래식 음악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음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연장의 문턱이 높을 뿐이다.
그래서 코리아W필하모닉은 무료 공연을 택했다.
자세한 설명과 쉬운 선곡만이 능사는 아니다.
천천히 한발 한발 다가가 마침내 손닿을 거리에
클래식이 놓일 때까지, 그들은 오늘도 시민들의
곁에서 리허설 중이다.

KOREA

코리아W필하모닉의 프로필을 보면 작년에 창단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매주 화요일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를 열면서 1년 동안 자그마치 25회의 공연을 가졌다. 창단 초기에는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2주 만에 5회에 걸쳐 선보이기도 했다. 김남윤 상임지휘자의 말처럼 코리아W필하모닉은 늘 도전과 열정으로 뭉쳐있다.

코리아W필하모닉은 '오케스트라의 대중화'를 꿈꾼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포스트아트홀에서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를 열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무료 음악회다. 포스트아트홀은 원래 회의실이었다. 김남윤 상임지휘자가 직접 '아트홀'로 개명하고 음악회 공간으로 바꿨다. 올 상반기에는 매회 특정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열었지만, 9월부터는 '사랑'이라는 주제 아래 5회 동안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있었던 공연이 올 하반기의 오프닝 콘서트였던 셈이다. 원래 회의실이던 것을 공연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약 350석의 객석은 편안해보였다. "특별한 공부 없이 오셔서 클래식을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김 상임지휘자의 바람이 담겨있는 듯하다. 이날 음악회는 그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150여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빛냈다. 어린이, 노인, 친구부터 가족단위까지 다양한 관객층이 돋보였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롯시니의 '도둑까치 서곡', 하이든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C장조',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왈츠', '잠자는 숲속의 미녀 왈츠' 등 4곡이 무대에 올랐다. 2부에서는 슈만의 '교향곡 제4번 d단조'를 선보였다.

1부와 2부가 시작되기 전, 김남윤 상임지휘자의 간단한 곡 소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관객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위해 해설보다는 간단한 멘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전체 해설이 아닌 곡 제목과 분위기 정도만을 언급했다. 김 상임지휘자의 멘트는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웠다. 그는 "차이코프스키의 왈츠곡은 마치 스킨십을 하듯 낭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곡이라면, 슈만의 교향곡은 내재된 낭만이다. 쉽게 와 닿지는 않지만, 듣다보면 깊이 있는 낭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음악의 차이를 설명했다.

하이든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C장조'는 최은진양이 연주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작은 체구였지만 창연

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차이코프스키의 왈츠곡 같은 경우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곡이지만, 슈만의 '교향곡 제4번 d단조'는 25분의 길이에 다소 무거운 곡이다.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익숙한 곡을 선택함과 동시에 어려운 교향곡 역시 들려주고 싶었다는 코리아W필하모닉의 바람이 담긴 선곡이었다.

8월 한 달 동안 음악회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이날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를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 관객들이 꽤 있었다. 김 상임지휘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단골 관객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렇게 단골이 된 관객이 바로 '오케스트라는 어렵다'는 편견을 깬 장본인들이었다.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는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오는 9월 29일 음악회부터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클래식 음악 중 사랑과 관련된 곡들을 선별해 연주할 예정이다. 코리아W필하모닉이 가장 공들이는 연주회가 바로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라고 한다. 이 정도면 음악회의 질과 수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스트라와 친해지고 싶다면 주저 없이 포스트아트홀을 찾아가자.

〈오아시스 화요음악회〉
시간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장소 명동 포스트타워(중앙우체국) 10층 포스트아트홀
문의 02-3442-4285
홈페이지 www.koreawphil.or.kr

글 | 이가온(오픈리포터)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다. 서강학보사 문화부 기자,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축제통신원 외에도 서울컬처노믹스 넷포터 등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조건 도전하는 대학생이다.

사진 | 김도훈

김남윤 상임지휘자 인터뷰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를 만든 계기는?
우리의 목표는 오케스트라의 대중화다. 우리나라 국민의 95%가 오케스트라 음악회를 안 가봤다고 들었다. 적어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한 번씩 가봐야 하지 않겠나. 처음에는 영화음악을 실황으로 들려주면서 관객들이 오케스트라를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다보면 교향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오아시스 화요음악회'가 있다면?
6~7월에 했던 태교음악회다. 임산부라는 특정 관객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가졌는데, 무척 반응이 좋았다. 기회가 된다면 특정계층을 위한 스페셜 연주회를 또 열고 싶다.

매주 정기공연을 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외국의 경우 매주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팬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기연주회를 한다. 팬이 없다면 무료공연을 해서라도 관객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료공연이라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초청공연보다 더 많이 준비하는 연주회가 바로 '오아시스 화요음악회'다. 그만큼 애착이 많다.

오케스트라나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는 관객들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그냥 오셔서 클래식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특별한 공부가 없어도 3번만 오시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 계속 듣다보면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한 장의 쉼표

세 '한스'들의 지난한 성장기

본 꼭지는 필자가 직접 꼽은 세권의 책으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다 여기던 말들이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언어라는 도구를 새삼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뜻을 되새기기도 한다.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그 문장이 모여 글이 되는 구조 아래 놓인 언어. '행간을 읽는다'는 말은 이런 구조를 벗어난 언어를 파악하라는 뜻이 아닐까.

연초엔 오은이 첫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2009)을 상재했다. 그와는 작년부터 더러 만나 함께 차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오은은 내가 잘 모르는 팝(pop)이라든지 문학 이외의 예술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서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다. 3월까지 함께 출판이나 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덕분에 즐거웠는데, 첫 시집을 내놓고 호사다마라고 그가 그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몇 번인가 수술을 받고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다시 활동하고 있지만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연실색했다.

첫 번째 뇌수술 이후 동료 시인들 몇이서 문병을 갔다. 그날 김언 형의 울상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아마도 김언 형과 오은은 술친구 이상의 각별한 사이라고 짐작된다. 오은이 몇 번인가 김언 형의 시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또 여러 모로 참고가 되는 이야기들을 김언 형이 들려주더라는 것도 들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인지 두 시인의 시는 '언어파'라고 할 만한,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촉발된 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시인이고 자신의 언어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그들 두 시인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을 띤 창작 방법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내심 경탄하게 된다. 올 여름엔 김언 형도 세 번째 시집 『소설을 쓰자』(2009)를 출간했다. 언어파 대세라고나 할까. 그러나 이 두 명의 언어파는 닮아 있으면서도 분명히 구분되는 뚜렷한 개성을 뽐낸다.

김언 형의 『소설을 쓰자』는 독자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은유에 익숙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는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 언어들이 생성되는 순간에 대해 쓴다. 돋보기에 돋보기를 가져다대면서 언어를 일그러뜨린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언어들이 팝콘처럼 터진다. 독자들이 당황하게 되는 지점은 「입안에 담긴 사람들」 「사건들」에서처럼 언어의 핵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언어는 '빅뱅'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관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려고 한 것은 시가 만들어지는 장관이 아니라 어쩌면 그 궁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미확인물체」 「리얼 스토리」를 읽다보면 언어의 잉여가 의미의 궁지를 만들어내는 지점들이 보인다. 그는 "의심이 만들어 놓은 나의 매력"(「반(反)하는 이유」)이라고 자화자찬한 바 있는데, 그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언어, 바로 그것인지도 모른다. 언어의 의미, 그 궁지를 의심하는 것이 그의 '취향'이 아닐까. 『소설을 쓰자』에는 다양한 대화체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대화들은 소통보다는 소통의 불가능성을, 만남보다는 결렬을 보여준다. 「인터뷰」 「당신은」 「헬렌, 무엇이 들립니까?」의 블랙 유머가 나는 마음에 든다. 그는 기성 시단에 "시, 그게 뭘까?" 하고 밉지 않게 시비를 걸며, 때로는 우리들의 속물근성을 우아하게 희화화한다. 이 모든 언어의 증식들은 결국 '소설'로 귀결되는 것일까. 「꼬마 한스 되기」는 어떤 징후적인 드라마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톰의 혼령들」 「톰의 혼령들과 하품하는 친구들」 「유령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육체 없는 유령으로서의 언어가 마구 증식하여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시발점을 보여준다.

오은의 『호텔 타셀의 돼지들』 역시 은유나 상징보다는 언어 자체에 호소한다. 그는 의미가 삭제된 기표로서의 단어들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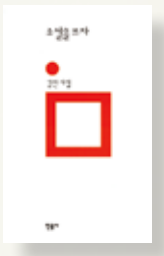
놀이의 향연을 펼친다. "내면의 아름다움 따위는 관심 없어요."(「보카 델라 베리타」)라고 당돌하게 말한 바 있듯이 관용구와 속담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시를 '구성'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존재하는 방식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개성은 심층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표층을 데이터 차원으로 분해하고 재배치하는 '연산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그 존재 방식을 찾기 위한 절치부심을 「한스」「이상한 곱셈」 등의 시에서 고백했던 게 아니었을까. 「존재하려는 경향」에 등장하는 조숙한 소년 역시 또 다른 '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빨리 어른이 되려는 '21세기 어린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차원에서 흥겹게 놀다가 방심 하는 순간 우리의 허를 찌른다. 그는 소비 중독을 야기하는 자본주의 세계를 향해 '이 식충이들아.' 하고 불현듯 면박을 준다. 그에게는 세계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득의(得意)의 화법이 있다. 그는 짐 자무시의 영화를 패러디하고 「폭력의 역사」「플럭서스의 요술사들」에서처럼 코믹 북이나 동화의 여백들에 새로운 이야기들을 채워 넣는다. 세계의 구조는 빠짐없이 연산된다. 「키스」「구체적인 밤」의 '구체성'은 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언어의 궁지를 의식하면서도 언어의 전능성에 기대어 언어의 놀이를 통해 그 궁지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쪽에 남겨두고 있다(「끌리는 모음 속으로」). 그는 '놀이로서의 시'를 거의 생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두 시인이 저마다 '한스'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자못 흥미롭다(「꼬마 한스 되기」「한스」). '한스'는 프로이트의 「다섯 살배기 꼬마 한스의 공포증 분석」에 등장하는 바로 그 '한스'이다. 그 논문에서 프로이트는 '꼬마 한스'의 거세 불안과 동물 공포증에 대해 다루었다. 그 논문은 '한스'의 아버지인 정신과 의사가 '한스'의 증례에 대해 프로이트에게 알려준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다섯 살배기 꼬마 한스의 공포증 분석」을 읽은 것은 사실 백민석 씨의 『불쌍한 꼬마 한스』(1998)를 더 잘 이해해보고 싶어서였다. 『불쌍한 꼬마 한스』는 부모 없이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소년이 '생선 가시에 가까운 형태를 한 괴물'을 볼 때마다 공간 이동과 같은 '전이감(轉移感)'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로 인해 정신병원에 드나들면서 상담 치료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었다. 프로이트의 논문이 백민석 씨의 소설을 읽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는 너무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불쌍한 꼬마 한스』의 그 '전이감'은 어떤 정신적 성장에 대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주인공이 드나들었던 도서관의 사서나 정신과 의사는 주인공에게는 없는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장면은 주인공 소년이 도서관에서 몰래 자위하던 친구 위로 넘어졌을 때 사서 누나와 두 소년이 서로를 보고 당황해 하는 장면이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 소년은 근친상간의 욕망을 들킨 것과도 같은 수치심을 맛보지 않았을까. 사서가 어머니처럼 그를 지켜봐주는 '어른'이었다면 사서의 차가운 반응은 소년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숨기고 있는 간호사와의 교감을 통해 그 상처의 치유가능성을 타진한다. 정신분석이 그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면서 세상과 교감하는 일종의 성장기를 백민석 씨는 그리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김언 형이나 오은도 '한스'를 통해 성장과 그 거부의 드라마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세 '한스'가 분석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분석가 아버지를 거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의를 지닌 교감자 독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글 | 장이지
시인. 문학박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2000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으로 등단. 시집으로 『안국동울음상점』(2007), 편저로 『이수복 시 전집』(2009)이 있다.

1 

2

3

1 김언, 『소설을 쓰자』 (민음사, 2009)
2 오은, 『호텔 타셀의 돼지들』 (민음사, 2009)
3 백민석, 『불쌍한 꼬마 한스』 (현대문학, 1998)

재단사업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예술은 스스로 발광할 것이다

대담은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문학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이 오갔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타 공공기관의 지원제도를 답습하지 않고, 서울문화재단만의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의 철학적 고찰과 함께 연희문학창작촌이 서울시 문학의 핵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에 앞서서

예술정책은 그늘진 곳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술정책이 예술가들과 예술집단을 향해 따라오라는 깃발을 흔들어도 곤란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윽박질러서도 안 된다. 정책은 선도(先導)가 아니라, 지지 혹은 응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선도하는 순간, 예술은 지리멸렬해진다. 거기에는 선도에 부응하려는 얄팍한 눈치만 남게 된다. 흔히 말하는 예술혼이 담긴 창조적 상상력은 숨어버린다. 그러니 이때 만들어진 예술품들은 자칫 허접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십상이다.

예술정책은 이처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끊임없이 숨겨야 하는 역설적 과제를 떠안고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예술정책이 다른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타의 행정과는 다르게 예술정책은 예술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지향이나 제도적 변환 등과 관계없이 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예술창작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아주 오랫동안 상상력이 숙성되어야 창작품이 탄생한다. 그러니 예술이 스스로 발광(發光)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정권이나 제도가 바뀔 때마다 예술정책도 따라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예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나는 문학 지원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 또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간접 지원 방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창작지원금을 주는 직접 지원 방식도 물론 중요하다. 생활

보조의 측면으로 보면 이것이 창작을 견인하는 주요기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작실을 운영한다든지, 일정 분량의 작품집을 사서 도서관에 보급한다든지 하는 간접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창작 매개공간이나 소통 공간이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흔히 사람들은 문인은 펜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곤 한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다. 문인은 작품 속에 전인(全人)과 전생(全生)을 담는다. 펜 하나가 아니라 온 세계를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영화로 말하면 각본과 연출, 카메라, 미술, 편집 등을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문인이야말로 눈과 귀, 그 모든 것을 열어 세상을 찾아야 하는 자이다. 이것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 예컨대 외국 체재라든지 오지 체험, 극지 탐방, 해양 항해 등과 같은 간접 지원들을 다채롭게 개발해야 하는 소이(所以)이다. 일각에서 펼치고 있는 한중 문인 교류와 같은 외국 문화재단과의 인적 교류 방안 등도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지양해야 할 것은,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름의 편향이다. 집중 지원과 배분 지원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문학 엘리트를 키워 인류에 보탬이 되는 작품을 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를 호흡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집중이든, 배분이든 어느 일방만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은 전체에서 반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양성과 집중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지원정책을 기대한다.

실천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모든 모색과 기획은 실천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문학 관계자들이 이렇듯 한 자리에 모여 문학 지원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것은 그 실천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 좌담의 중지(衆智)가 예술정책을 밝혀 예술창작력을 드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정우영**
1960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으며 숭실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9년 〈민중시〉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시집으로는
〈마른 것들은 제 속으로 젖는다〉(문학동네), 〈집이 떠나갔다〉(창비)가 있다.
시평에세이 〈이 갸륵한 시들의 속삭임〉(랜덤하우스)을 펴냈다.

사진 | **정강**
현재 사진과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전시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생들도 만난다. 카메라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 즐겁다.

재단사업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현장에서

8월 28일 오후 3시,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문학 창작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서울문화재단의 문학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2010년 재단의 문학지원을 위한 세부 자문과 함께 새롭게 마련된 '연희문학창작촌'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대담은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에 참가한 문학 및 문학예술 행정 관계자는 다음과 같다.

은희경 소설가,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위원
정우영 시인, 한국도서관협회 문학나눔사업추진반 추진반장
곽효환 시인, 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위원
오현종 소설가, 2008 문학창작활성화지원 지원작가
신용목 시인, 2008 문학창작활성화지원 지원작가

출판에서 홍보까지, 지원의 다각화를 꾀하다

사회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문학지원에 대한 비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인들과의 활발한 교류 및 문학 향유자와의 실질적인 만남을 위해 연희문학창작촌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출간 후 다음(daum) 등 파급력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도 시행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해갈 생각입니다.

은희경 지금의 출판환경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신문광고 같은 간접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방법의 홍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일부 스타작가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진작가에게는 홍보의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홍보까지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니 반갑습니다. 인터넷 웹진이나 포털 사이트를 통한 홍보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은희경

오현종 그런 행사들은 출판사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담을 들을 수 있으니, 문화 향유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정우영 포털사이트와의 연계를 봐도, 몇몇 스타 작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젊은 작가와 포털 사이트와의 연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도서 출판이 전년대비 30%정도 줄었습니다. 특히 단편 소설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단편 소설집과 시집을 출판해오던 메이저 출판사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거의 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소설을 콘텐츠화 하여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게 되니, 문학 출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우영 인터넷에서 잘 읽혔다고 해서 오프라인 판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단편 소설집의 출판이 줄어든 것은 단편 소설의 짙은 문학적 예술성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급 출판사들이 요즘 매우 어렵죠. 그들이 그나마 단편 소설집과 시집의 출간을 담당했었는데, 예전만큼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회자 최근 전문성에 대한 구분이 많이 없어지면서, 진짜 프로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비 출판이 증가하면서 결국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를 허물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우영 예전에는 등단 절차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었으나, 요즘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등단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책적으로 전문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우영 예술이라는 건 자유롭습니다. 공공성의 잣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란 앞에 나서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예술의 뒤에서 지원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자 예술지원을 할 때 우수한 몇몇 인재를 키우는 것과 예술 분야를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둘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우영 전문예술가 지원이 단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5년의 지원기간을 두고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집필, 출판, 번역 그리고 외국에서의 출판과 유통까지 책임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작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의 동일한 비율에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지원을 받은 전과 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현종 저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기 전 이미 출판사가 정해진 상태여서, 출간 자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비 출간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출간이 어렵던 책이 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도움이 큰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할 때는 지원금에 대한 지출 부문을 정확히 정산 받는데, 창작 과정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는 문학은 사실상 지출 산정이 어렵습니다.

오현종 출판 이후 독자들과의 대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후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견 작가 선생님과 신진 작가들이 모여 독자를 직접 만나는 행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판사들은 중견 작가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신진 작가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도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괄하던 지원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시민과 만나는 것을 지원사업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우영

재단사업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정우영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매주 테마를 가지고 '금요문학강좌' 를 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민만 참여한다는 형평성의 문제로 폐지됐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시민 향유의 차원과 사후 작가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위 재단과 가까운 작가들만 참여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작가들을 상대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현종

예술로서의 문학,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회자 예술지원 정책은 예술가 지원이 아니라, 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술이 일반 시민들에게 '가치' 로 화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지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목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술지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원조와 다릅니다. 정책이 바뀌면 문화예술지원 자체가 바뀝니다. 먼저 정책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일 뿐입니다. 프랑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학이 팔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융성하는 이유는 오로지 예술 하나의 가치만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원에 있어서 개념과 철학의 문제를 같이 안고 가야 합니다.

은희경 문학은 종합예술입니다. 저만 해도 작품 하나 쓰려고 하면 취재비, 자료비 등 돈이 상당히 듭니다. 효과적으로 글을 쓸 공간도 확보해야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신용목 단순히 한 작가에게 개인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예술행정의 불완전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 울프를 보면, 그녀는 거액의 유산을 받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라는 현실적인 조건과 최대한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에 대한 지원의 형태여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효환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건은 어렵습니다. 확실히 과거보다 지원이 늘었으나, 문학출판사가 대부분 사라졌고 메이저 출판사만 살아남았습니다. 궁극적인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계 지원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수준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가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 향유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원 제도에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방식에 대한 고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은희경 안이한 지원이 창작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원을 받은 이후 창작 경쟁력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현종 십 년 동안 전업 작가로 생활하며 두 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작가들이 저처럼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저의 경쟁력을 무너뜨렸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도움은 많이 되지만 이것이 저의 생계 전반을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작지원금'입니다. 덧붙여 공공도서관에서 일정 부수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해준다면, 팔리지 않는 순수소설이라 해도 출판사에서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곽효환 오 선생님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작가들은 창작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창작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출판이 안 되고,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새롭고 세련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층을 다양화 하고, 신진이나 중견작가 이외에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 연희문학창작촌과의 연대도 좋은 지원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난 30년간 지원을 했으나,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작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영 지원 이후 성과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곽효환 프랑스 같은 경우 작가는 중고등학교에서 객원교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작가가 작품을 지도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가 없어서, 작가에 대한 지원금이 마치 생계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내 작품에 대해 지원하면 나도 사회에 환원한다, 라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원방식을 세련되게 바꾸는 것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희경 무엇보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작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독일은 지방에서 작업하는 작가에 대해 그 지역사회가 세금 감면, 장소 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작가는 그 지역에 문화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충분히 공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목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문화부에서 관리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작가들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두고 차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작가 쪽으로 지원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작품이 사회의 공공자산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자 모든 문화 가치가 공공의 가치로 환산되면, 그 돈의 주인인 시민에게도 떳떳할 것입니다.

재단사업
2010 문학지원제도
개선대담

신용목

창작자와 향유자 모두를 위한 지원을 꿈꾸다

곽효환 지금까지의 작가에 대한 지원은 창작지원금 형태로 모두 비슷합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우영 왜 항상 같은 방식이냐 하면, 어찌 보면 문학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속성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각 단체에서는 문학 창작 지원을 하고 평가 및 점검을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자 문학 분야만 뚜렷한 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지원 방식이 좋은지, 나쁜지 추적하는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 쪽에 계속해서 몇몇 지원을 했고,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도 지원했었는데, 그 작가의 추후 활동에 대한 사후 관리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기존 예술정책은 평가가 없어서 성과가 드러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지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가 예술가인가는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가 실제로 늘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어렵습니다.

곽효환 우리가 하는 모든 지원이 공공의 성격을 띤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창작자와 향유자에 대한 지원이 같이 가야 합니다.

신용목 생산자와 향유자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입니다.

정우영 서울문화재단은 창작촌이 있습니다. 창작촌을 빌려주고 이곳이 서울문화재단의 문학 공간의 중심으로,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끝나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와 향유자를 분리하지 않고, 생산자가 작업하는 공간은 분리하되 실행되는 공간은 생산과 향유가 같이 이루어지는 식이 되는 겁니다.

사회자 창작공간을 만들 때 창작 공간과 향유 공간을 합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예술가와 시민이 공유하는 체계로 가면서 지속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우영 연희문학창작촌이 서울시 문학지원의 중심공간

곽효환

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내고, 다른 창작공간 역시 그곳에 맞는 장르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행정의 중심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소화해낸다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 또한 유효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을 대표하는 문인들을 지정해서, 서울 시민이 도서관에 가면 작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도서관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역할들을 서울문화재단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경 지원 단체별로 성격이 뚜렷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소설 부문 지원에 있어서 최근의 장편 선호 경향을 따르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 단편으로만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또한 외국의 번역가나 작가가 한국을 경험하는 건 한국 문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르 클레지오가 한국을 자주 와서 겪고 갔습니다. 그가 한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이 그의 작품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전 파리에서 한불 교류 문학행사가 열렸는데, 그가 참여함으로써 한국문학에 대한 대접이 다른 나라에서의 행사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외국에서 높아진 한국 문학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효환 외국 작가들이 한국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무분별한 교류 행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우영 그 동안 해외 교류에 참여했던 문인들의 명단을 보면 겹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대외 영향이 강화되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조금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심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신용목 텍스트를 앞에 놓고 하는 문학 심사는 작품성이 우선이지만, 지원 단체별로 차별화하는 시도가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문화재단은 텍스트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작품성 30%, 가능성 70%와 같은 방법처럼 말이죠. 지원 단체별로 지표의 차별화가 분담된다면, 굳이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한 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은 작가에 대한 지원 배제는 없어도 될 듯합니다. 단순한 논리로의 중복지원 배제는 결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작품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우영 타 장르의 경우 활동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의 경우 원로의 텍스트와 신인의 텍스트가 현재형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예술지원은 다른 방식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술의 경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술의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자
긴 시간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글 | **정주영(오픈리포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 과정에 있으면서,
〈문화+서울〉 오픈리포터로 활동 중이다.

사진 | **손승현**

재단사업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 그 첫 발걸음을 내딛다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 때로는 슬픔, 때로는 기쁨의 감정을 안기지만 결국 '감동'을 전한다는 점에서 예술은 늘 사람을 즐겁게 한다. 이런 감동이야말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의 대안을 찾겠다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들의 생각이 모여 장차 어떤 선물꾸러미가 만들어질지 기대된다.

지난 9월 17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크링에서 기업 사회공헌 및 홍보마케팅 담당자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회공헌 전략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문화예술로 사회공헌 대안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존의 복지나 단순 후원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접목한 콘텐츠형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매직플레이〉의 손 그림자 쇼

세미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의 주제별 발제에 이어 2부에서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특별 초청한 파리신포니에타의 자선공연이 있었다. 세미나의 첫 문은 〈매직플레이〉의 손 그림자 쇼로 열었는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공헌'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이야기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를 잘 나타내는 창작 공연이었다. 손 그림자로 동물과 사람, 악기 등을 표현했는데, 산업폐기물이 악기로 변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이어서 사회공헌컨설팅기업 라임글로브의 최혁준 대표가 '2010년 신 사회공헌 전략 찾기'라는 주제로 사회공헌의 트렌드와 문화예술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적 제언을 하는 것으로 1부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 조재현이 그간 청소년 비전 Arts-TREE의 연극 분야 PM(Project Master)으로 활동하였던 경험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후 쉬는 시간에는 청계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거리아티스트 〈마블러스 모션〉팀의 마임, 〈캐리커처클럽〉과 〈쌈순캐리커처〉의 캐리커처 시연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딱딱한 이론 중심의 세미나에서 벗어난 이번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발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Change Maker'라는 주제로 서울문화재단 오진이 경영혁신기획

세미나 현장

무대로 올라와 파리신포니에타의 연주를 듣는 어린이들

본부장이 국·내외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례를 통해 본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지연 문화사업팀장은 서울문화재단과 현대건설이 MOU를 맺고 3년 째 진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서 마케팅 전문잡지 유니타스브랜드의 권민 편집장이 문화예술을 활용한 브랜드 스토리텔링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고객과의 관계구축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2부 자선공연은 세미나 참석자 외에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을 특별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제 2번 D장조'를 시작으로 카나리아 제도 출신 작곡가들의 이국적인 곡 연주가 80여 분간 이어졌다. 이날 관객으로 초대된 예비 음악꿈나무들은 잠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공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자 무대에서 연주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이올린 솔리스트이자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인 다비드 발레스테로스(David Ballesteros)가 어린이들을 무대로 초대하여 가까이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깜짝 제안을 하였다. 연주자들은 일제히 무대에서 의자를 치우고 객석에 있는 아이들을 무대로 불러 마지막 곡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을 연주하였다. 런던 및 보스니아 등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다비드 발레스테로스는 기량교육보다도 미적체험을 통한 감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같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는 것에 즐거워했다.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무대에서 함께 한 어린이들 역시 새로운 경험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는 노원구에서 온 김주성 어린이(가명, 10세)는 이처럼 가까이에서 많은 종류의 악기 연주를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몇 년 뒤에는 꼭 파리신포니에타와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말하기에 앞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감동을 전하고 그 가능성과 기회를 자발적으로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글 | 김민지(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사진 | 이대영
제일기획 사진팀, 이미지컴 스튜디오 등에서 일했고 현재 NormalStory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CJ인터넷, 금호건설, 한국가스공사 등 다수의 사보 및 브로슈어의 사진을 담당했다.

SFAC News

64주년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
내년 1월까지 연장 전시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8월 시민과 함께 광복절의 뜻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선보인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를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공공미술의 거점 마련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11만 5천개 모빌아트는 각각 지름 11cm의 타공 패널로,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치듯 작품의 웅장함과 경건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10월과 12월에는 한국전통의 조각보와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및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할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2010세계디자인수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서울광장의 공공미술 랜드마크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본 프로젝트의 행보가 주목된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2009 드림콘서트' 티켓 수익금 후원 약정체결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G마켓에서 주최하는 '2009 드림콘서트'의 티켓 수익금 전액을 사업에 후원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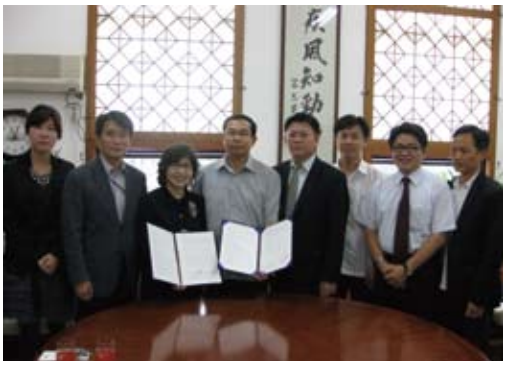
드림콘서트는 1995년 시작해 총 15회에 걸쳐 진행 중이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문화로 꿈을 키우는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와도 그 의미가 상통한다. 티켓예매는 9월 10일 시작되었으며, 공연은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기가수들의 출연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9월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향후 전국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업무를 전산망으로 통합하고 관련정보와 통계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지원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예술가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국가문화예술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 중 최초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향후 타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참여가 예상된다.

한편, 재단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참여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2010년도 예술지원 정기공모 신청사업을 전산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형 예술지원을 위한 대화

'예술지원 체계 개선 세미나' 개최

지난 9월 18일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에서 예술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형 예술지원을 위한 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서울문화재단은 그동안 9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예술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주요 예술단체, 정부 및 학계 예술지원 관계자 등의 의견은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되어 올해 말 '예술지원 체계 개선 전략보고서'에 실린다. 또한 2010년 예술지원 정기공모부터 실제로 적용되며 2012년까지 중기과제로 추진 완료될 예정이다.

서교예술실험센터 외부 사인물

서울시 '좋은 간판' 금상 수상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개관시기에 맞춰 제작, 설치된 외부 사인물이 '2009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에 선정되었다. 2009년 6월 15일~7월 15일까지 서울시내에 설치된 적법간판 사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창의적이고 디자인적인 간판,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간판,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수 간판, 광고물과 건축물이 조화롭게 설치된 건축물 등이 공모대상이었다.

마포구청에서 선정한 좋은 간판 3위 안에 들어 서울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외부 사인물은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총 21개팀 중 금상작으로 선정되었다. 9월 말 경 진행되는 시상식 이후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9'(10.9~10.29)에 간판 사진이 전시될 예정이다.

'예술교육 파트너 데이' 로 문을 열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개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난 9월 26일 남산예술센터 예술교육관에서 '열린 예술교육 파트너 데이'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달콤한 선물을 나르는 행복배달부'라는 내용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교육관계자 및 강사들을 초대하여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을 소개했다. 또 '서울문화예술교육 현장과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문화예술교육기관 및 단체의 예술교육현장을 전시하고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교육정보자료관에 대한 자세한 공간설명과 함께 앞으로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역문화예술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설립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행복찾기(가교), 행복전하기(만남), 행복나누기(소통), 행복더하기(나눔)를 주제로 삼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거리아티스트 사진공모전
10월 온라인 접수마감

서울거리아티스트는 서울의 주요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거리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2회 온라인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10월 31일(토)까지이며, 2005년 10월 이후 촬영한 미 발표작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거리아티스트 온라인 공식카페를 통해 접수받으며 규격은 디지털 사진으로 1,024 Pixel 이하(온라인 업로드 시) 4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시상금은 총 1,000만원이고, 입상작은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거리아티스트 공식카페(http://cafe.naver.com/seoulstreetart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리, 다리, 팔, 몸통, 입으로 놀아요!
'문화가 있는 놀이터' 10월 이야기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시민들과 함께한 '제 4회 문화놀이터디자인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 중 6개의 모델을 개발하여 10월 9일 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에서 선보인다. 또한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 기간 중 주말에는 이 문화놀이터를 배경으로 극단 이레, 극단 성시어터라인과 함께 〈애벌레 엄마를 찾아주세요!〉와 〈머리, 다리, 팔, 몸통, 입으로 놀아요!〉의 두 가지 문화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민 공모를 통해 개발된 '미로 속 공간 놀이터'에서 펼쳐지는 〈머리, 다리, 팔, 몸통, 입으로 놀아요!〉는 극단 성시어터라인이 진행하며 '편지 전달 대작전', '심부름 대작전' 등 매주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찾아간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심부름 대작전'(14일 오후 4시, 상계동아불암 아파트)은 아이들이 경제 활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연산 능력과 협동정신 그리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놀이이며 '생일파티 대작전'(21일 오후 4시, 봉천우성 아파트)을 통해 마법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미역국, 케이크, 꽃 등 생일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만의 풍부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래가사를 찾아라'(28일 오후 4시, 구로두산아파트)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보고 노래하며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3290-7144)에 문의 바란다 .

문화놀이 프로그램	운영장소	운영일시
애벌레 엄마를 찾아주세요! (진행 : 극단 이레)	2009 세계디자인올림픽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내 "문화가 있는 놀이터"	10/10(토) 10/17(토) 10/24(토)
머리, 다리, 팔, 몸통, 입으로 놀아요! (진행 : 극단 성시어터라인)		10/10(토) 10/11(일) 10/18(일) 10/25(일)

행복한 문화선물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서울사랑의문화나눔 10월 공연 일정

서울시가 소외지역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복지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사랑의문화나눔' 사업이 8~9월에 이어 10월 말까지 서울 소재 문화예술 소외기관 및 공연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극, 국악, 음악, 무용·일반 분야 총 30개 순회공연단이 찾아가는 곳은 주로 장애인복지시설, 양로원, 지역복지관 등의 문화소외시설로 공연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소외계층에게 보다 만족도 높은 맞춤형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총 153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사업은 9월까지 총 99회의 공연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63회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오는 10월 3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는 전석 무료로 '서울사랑의문화나눔 추석맞이 특별공연'이 열리며, 본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야외행사와 부대행사가 함께 하는 종합적인 축제를 벌일 예정이다.

날짜	시간	공연단명	수혜기관
10/1	10:00	소리조아예술단	성민종합사회복지관
10/1	11:00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10/1	14:00	국악그룹 느낌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10/1	14:30	SC ENT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10/3	16:00	청배연희단	추석특별공연
10/3	16:00	사람과 음악(솔리스츠)	추석특별공연
10/3	16:00	SC ENT	추석특별공연
10/5	11:00	메이트리	남부여성발전센터

10/6	11:15	국악그룹 느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10/6	14:00	소리조아예술단	미소들 실버케어센터
10/7	11:00	한빛예술단	송석문화재단
10/7	13:30	김뻑국 예술단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사회복지관
10/7	14:00	극단 손가락	가락종합사회복지관
10/8	14:00	전통타악연구소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10/8	14:00	정명숙 전통춤 예술단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10/8	14:00	SC ENT	구립동작실버센터
10/8	15:00	김뻑국 예술단	시립중랑노인종합사회복지관
10/8	16:00	서울인형극회	중계종합사회복지관
10/9	19:00	㈜ 파임커뮤니케이션	성내도서관
10/9	10:00	극단 이레	서울명일유치원
10/9	11:00	소리조아예술단	강남종합사회복지관
10/9	11:00	김뻑국 예술단	창동노인복지센터
10/9	13:00	아르스커뮤니케이션	금천노인종합복지관
10/9	15:00	청배연희단	강북노인종합복지관
10/9	16:00	극단 손가락	사랑의전화이동복지관
10/10	10:00	극단 이레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10/10	10:00	청배연희단	금천청소년수련관
10/10	11:00	극단 성시어터라인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0/10	13:00	SC ENT	SDO 야외무대
10/11	13:00	국악그룹 느낌	SDO 야외무대
10/11	14:00	㈜ 파임커뮤니케이션	구립증산정보도서관
10/13	11:00	PAN Dance Company	서울노인복지센터
10/13	12:00	사람과 음악(솔리스츠)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10/14	11:00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	강서노인종합복지관
10/14	11:30	전통타악연구소	능인종합사회복지관
10/14	14:00	매직플레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10/14	16:00	어린이문화예술학교	강동구립해공도서관
10/15	11:00	매직플레이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15	15:00	극단 성시어터라인	동작이수사회복지관
10/16	11:00	한국 판소리보존회	장위종합사회복지관
10/16	15:00	극단 이레	유락종합사회복지관
10/16	16:00	극단 손가락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0/17	13:00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	SDO 야외무대
10/18	13:00	청배연희단	SDO 야외무대
10/21	11:00	제의와 놀이	성동노인종합복지관
10/22	14:00	한국창극원'한음실내악단'	성북장애인복지관
10/22	16:30	서울인형극회	삼성소리샘복지관
10/23	12:20	메이트리	보라매병원
10/23	14:00	서울인형극회	샘물지역아동센터
10/23	14:00	정명숙 전통춤 예술단	혜명양로원
10/23	16:00	극단 이레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10/23	17:00	㈜ 파임커뮤니케이션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
10/24	13:00	국악그룹 느낌	SDO 야외무대
10/24	14:00	청배연희단	월드컵공원
10/24	14:00	한빛예술단	보라매공원
10/25	13:00	청배연희단	SDO 야외무대
10/26	15:00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10/27	11:00	제의와 놀이	도봉동노인복지센터
10/27	13:30	아르스커뮤니케이션	도봉노인종합복지관
10/28	14:00	평양예술단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10/28	10:30 11:20	현대인형극회	영림초등학교
10/31	14:00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	월드컵공원
10/31	14:00	국악그룹 느낌	보라매공원

2009년의 마지막 기회

10월의 서울문화예술탐방

아직 서울문화예술탐방에 참여해보지 못했다면 이번 달을 놓치지 말자. 10월, 2009년의 마지막 탐방이 진행된다. 9일 문학 탐방에서는 망우산 공원을 방문하여 문인들의 마지막 안식처를 탐방하며, 10일 디자인 탐방에서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열리는 잠실 주경기장을 찾아가 다양한 디자인 작품들을 관람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10일 역사유적 탐방에서는 강릉과 태릉을 돌며 조선시대 명종, 인순왕후 및 문정왕후의 삶을 되짚어본다.

이번 달 외국인 탐방은 총 2회가 준비되어 있다. 외국인들은 10월 탐방을 통해 대학로 및 신촌 일대에서 서울의 젊은 청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청계천에 숨어있는 문화의 모습을 만나는 우리동네문화탐방, 가을 저녁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카페와 문화공간을 방문하게 될 건축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www.sfac.or.kr) 혹은 전화(02-555-6450)로 가능하다.

일시	탐방명	테마	탐방지
10/8(목)	미술관 탐방	숨어있는 미술관 찾기	김종영 미술관
10/9(금)	문학 탐방		망우산 공원 등
10/10(토)	역사유적탐방		강릉과 태릉
10/10(토)	디자인탐방	서울디자인올림픽	잠실주경기장
10/11(일)	The Present of Seoul (Foreigners only)	Feel the youth through street performance	Daehangno, D-Festa
10/22(목)	창작스튜디오 탐방	젊은 작가들의 창작 공간	장흥 아틀리에
10/23(금)	박물관 탐방	화장의 오랜 역사	코리아나 화장 박물관
10/24(토)	우리동네문화탐방	도심 속 쉼터	서울문화재단 북카페, 청계문화관 등
10/24(토)	건축 탐방	아름다운 카페와 문화공간	부티크 모나코, 청담 T-라운드
10/25(일)	서울연극센터와 함께하는 대학로 연극투어	미정	대학로 일대
10/25(일)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	홍대 앞 문화	홍대 앞 일대
10/25(일)	The Present of Seoul (Foreigners only)	Feel the style-fashion	Sin-Chon, Hong-Dae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를 찾아서

제1회 서울문화예술탐방 여행기 공모전

서울문화재단에서 제1회 여행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재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문화예술탐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민들이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들을 직접 찾아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스스로 찾아낸 서울 문화예술 탐방 코스를 제안하는 '서울 산책 코스 대발견'과 서울문화예술탐방 참여 후기를 제출하는 '시민 탐방가의 산책 일기' 두 가지다. 서울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시민 탐방가의 산책 일기'는 서울문화예술탐방에 참여한 시민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cafe.naver.com/

walkingseoul)'에 사진과 글, 찾아가는 길을 포함한 여행기(블로그 형식)를 올리면 되고, 접수마감은 10월 18일까지다. 관련 문의는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walkingseoul) 게시판과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팀(02-3290-7145)에서 받고 있다.

'책으로 만나다' 10월의 이야기

'책, 놀이와 만나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문화재단의 '책多방'에서는 동화놀이 프로그램 '책, 놀이와 만나다'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달 첫째 주인 7일에는 동화 속 등장인물을 페이스페인팅으로 그려 주어 아이들이 인물들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내 얼굴이 반짝! 페이스페인팅 동화놀이'가 펼쳐진다. 14일에는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열려라! 내가 만든 책 세상'이 열리고, 셋째 주인 21일은 풍선을 이용해 동화를 듣고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보는 '풍선 들고 훨훨~풍선 동화놀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주인 28일에는 동화 속 사건을 마술과 관련지어 재미있게 표현하는 '얍얍! 신기한 마술동화놀이'가 아이들을 기다린다.

'책, 영화와 만나다'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대해 전문가나 감독을 모시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책, 영화와 만나다'. 9월은 영화평론가 유운성 선생님의 강연 "밀란 쿤데라의 영화화 : 〈프라하의 봄〉, 〈농담〉"을 주제로 젊은 영화학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 10월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원작으로 한 〈밀양〉을 가지고 글이 영화화되면서 원작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영화평론가 이동진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다. 만남은 10월 27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서울문화재단 1층의 책사랑으로 오면 된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화공간 〉 책사랑-책다방 〉 책으로 만나다 신청게시판에서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을 위한 10월의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는 오는 10월 25일(일) 12시 30분 〈10월 외국인을 위한 대학로 연극투어 -드로잉쇼〉를 운영한다. 연극배우 오지혜의 진행으로 대학로 속 일일사색 만남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메카, 대학로의 우수한 공연문화를 소개하며 이번 투어에서는 영어 통역서비스가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재외국인 및 외국인을 동반한 내국인이며 9월 20일(월)~10월 11일(일)까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daehangno.or.kr) 또는 이메일(doci@sfac.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자 발표는 10월 12일(월)이며 참가비는 1인 1만원이다.

一日四色 하나	서울연극센터 및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소개
一日四色 둘	아르코예술극장의 백스테이지 투어
一日四色 셋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산책
一日四色 넷	드로잉 퍼포먼스 〈드로잉쇼〉

서울연극센터 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극센터와 네이버는 지난 9월 1일(화) 서울연극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대학로 공연정보 콘텐츠를 바탕으로 네이버 대학로 공연정보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은 보다 신뢰도 높고 편리한 대학로 공연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10월 대관 안내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대관의 신청기간은 10월 1일에서 7일까지이고, 수시대관은 사용예정일 최소 7일전까지이다. 승인 여부는 매월 10일 발표되며, 수시대관은 신청 2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좌석 수	대관시간	비고
서울연극센터 세미나실	12석 (보조의자 24개)	화~토요일 10:00 ~ 20:00 일, 공휴일 10:00 ~ 19:00 월요일 휴관	*기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날은 휴관입니다.

대학로연습실 Ⅱ (5관, 6관) 추가 개관

서울문화재단은 공연예술분야의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 활성화를 위해 대학로문화공간 2층((現) 문화공간 이다건물 2층) 대학로연습실 II (5관, 6관)를 오는 10월 5일(월)에 공식 개관하여 총 6개 연습실과 1개의 세미나실을 운영한다.

연습실은 2개월 단위로 정기대관이 진행되며, 연속 20일 이상 장기 대관을

원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기대관 공고 및 접수는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2개월 전 15일부터 진행된다.

세미나실은 매월 정기대관이 진행되며, 연속 2일 이상,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만 접수가 가능하다. 정기대관 공고 및 접수는 매월 1일부터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및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학로연습실(02-747-7805)로 문의 바란다.

대관장소	대관종류	신청자격	신청 접수기간
연습실 (1~6관)	정기대관	• 해당 정기대관 기간 내 연속 20일 이상 장기대관을 희망하는 단체 • 1주일 이내로 다음 정기대관 기간까지 이월 대관 희망 시에는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함	•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2개월 전 15일부터 30일까지
	수시대관	• 대관신청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전 월 15일부터 사용희망일 1일전까지
세미나실	정기대관	• 연속 2일 이상, 주 1회 이상 정기적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	•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1개월 전 1일부터 7일까지
	수시대관	• 대관신청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 해당 정기대관 시작일 1개월 전 15일부터 사용희망일 3일전까지

서울열린극장 창동의 가을맞이 공연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공연나들이

'추석맞이 특별공연 -한가위 큰잔치'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시민들을 위한 가을맞이 공연을 마련했다. 먼저 10월 3일 오후 4시에는 대명절 추석을 맞아 2009 행복충전프로젝트인 '추석맞이 특별공연 -한가위 큰잔치'가 시민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다. 개그맨 장동민의 사회로 전통음악, 비보이, 아카펠라, 난타 등 추석을 더욱 신명나게 해 줄 공연들을 모았다. 무료공연으로 관람연령에는 제한이 없으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천원의 행복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이번 천원의 행복 공연은 국악방송과 함께 젊고 실력 있는 국내 국악 뮤지션들을 모아 가을 음악회로 준비했다. 청명한 가을하늘처럼 맑은 연주를 통해 다가온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10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며, 시간은 미정이다. 만 7세 이상이나 취학아동부터 입장 가능하다.

'주크박스 뮤지컬 -젊음의 행진'

90년대 인기 애니메이션 영심이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 '젊음의 행진'은 성인이 된 영심이와 왕경태가 우연히 일터에서 만나 겪게 되는 해프닝과 그들의 추억 이야기로 꾸며졌다. 7080 세대라면 누구나 하나쯤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을 음악들과 함께해 더욱 즐거운 공연이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만 7세 이상이나 취학아동부터 입장 가능하다. 각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994-1469에서 받고 있다.

문화도시 서울의 대표 문화상품
고궁뮤지컬사업 대상 작품 공모

서울문화재단은 2010년도 고궁뮤지컬사업 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고궁뮤지컬사업은 서울의 고궁에서 공연될 뮤지컬작품의 창작(또는 각색)에서부터 실제 공연까지 전문가 컨설팅과 제작비 지원 등 종합적인 제작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도시 서울의 대표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2010년 5월 쇼케이스 공연, 9월 고궁에서의 본 공연 등 지속적인 제작 지원을 통해 서울의 대표 무대작품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재능 있는 공연예술인과 제작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조하거나 축제제작팀(3290-7161~7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문화재단
10월의 문화 캘린더

10

October

■ 생활속예술지원사업
■ 시민축제지원사업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비고
생활속예술지원사업					
연극	나눔,희망환타지공연(휘휘락락이야기보따리)	마네트,상사화	02-593-2122	4/25 ~ 10/08	9/5, 9/12, 9/19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만드는 신나는 연극프로젝트 "으랏차차"	으랏차차	070-8183-7466	4/13 ~ 12/14	매주 월요일
무용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한국무용	유미별무용단	02-955-0086	4/18 ~ 12/19	10/17, 10/31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엿보기〉	유니버설문화재단 소속 유니버설발레단	070-7124-1733	2/1 ~ 12/31	
시각	골목길 프로젝트-효자동에서 길을 찾다	갤러리 쿤스트독	02-722-8897	3/15 ~ 12/14	
	Art Recycle 홍대앞	FREE PLAYER DESIGN GROUP	02-325-8251	6/1 ~ 10/10	2009-09-19
	아트메신저-가상공간을 매개로 한 예술체험과 소통	현시대미술발전모임	-	5月 ~ 12月	2009-09-12
	문래3가,독립영화 정기 상영회	이소주		1/31 ~ 12/19	2009-10-18
	다이애고날 필름 아카이브 실험영화	다이애고날	02-3141-1841	1/1 ~ 12/1	
	"09년 발달장애인의 웃음이 넘치는 풍경"	사단법인 한국 제나가족지원센터	02-742-0142	5/14 ~ 12/31	
	국영문 미디어아트 웹 EYEBALL 정보화사업	이안	031-521-0717	1/1 ~ 12/31	매달 10일
음악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통기타이야기	통기타이야기	02-446-3542	5/13 ~ 12/31	매주 수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밝고 아름다운 음악회	해피드림밴드	02-3436-7509	4/1 ~ 10/31	매주 목요일
	샬뤼모클라리넷앙상블의 '찾아가는 클라리넷'	샬뤼모클라리넷앙상블	02-430-0574	1/1 ~ 12/31	
	프랑스 궁정의 음악회	古앙상블 타펠무지크	02-3487-6898	5/22 ~ 10월	화요일
전통	북촌에서 한옥 배우기	(사) 한옥문화원	02-741-1441	4/3 ~ 11/24	매주 화, 금요일
	찾아가는 참소리 소리마당	참소리 국악 전수원	02)711-9395	1/1 ~ 12/31	
	'2009년 하늘땅門 열려라~' 지신밟기교육	하늘땅 어린이 국악 예술단	02-3409-5600	3/10 ~ 12/20	10/13
	신명나눔으로 찾아가는 사회 소외계층 방문 공연/연희	신명나눔	02-742-7959	5/27 ~ 12/31	
	전통예절(강좌/교육)	성의순	02-822-9186	4/1 ~ 11/30	
	독거노인 및 장애인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우리춤	박명옥	02-2066-2555	5/2 ~ 11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마을 풍물패 워크숍	성미산풍물패	02-338-3337	7/1 ~ 12/31	
	2009 살판나는 세상	풍물굿패 살판	02-338-3337	6/12 ~ 11월	10/7
	우리동네 전통 상설 놀이판-쉬었다 가자!	봉천놀이마당	02-878-5573	3/28 ~ 10/24	10/24
문학	제10권 예띠 시낭송 회원 사화집 발간 및 시낭송회	(사)가족아카데미아	02-732-8144	1/1 ~ 12/20	
	매월정기 시낭독회	공간시낭독회	02-2274-1340	1월 ~ 12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삼각산 비둘기 타고 흐르는 문학	한국문학작가협회(구,서울성북문인협회)	02-924-0001	5/9 ~ 10/24	10/17
	시민 시조문학강좌와 시민 시조백일장	한국시조시인협회	02-886-6081	7/17 ~ 10/11	10/11(9시 ~ 13시)
	디지털문학공연시리즈(공연/발표)	문지문화원 사이	02-323-4207	6/20 ~ 11/14	
문화일반	사진 갤러리 레이소다(정보화,웹사이트)	㈜레이소다	02-508-5063	1/1 ~ 12/31	
	꿈꾸는 작은나무- 생활속 문화예술 만들기 프로젝트	문화예술기획네트워크'작은사람들'	010-9982-0125	2/1 ~ 11/30	
	이웃과 함께 하는 잔치마당 "나랑 같이 놀자"	어린이 도서관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02-2297-5935	7/1 ~ 11/15	
	고령화 사회의 문화복지를 위한 노인 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02-773-5465	9/3 ~ 11/12	10/8, 15, 22, 29
	'한국전통기본무' 책발간(출판/강좌/교육)	안춘자(개인)	02-525-5080	4월 ~ 12월	
	대안공간 풀 저널-6페이지 발간사업	대안공간 풀	02-396-4805	1/15 ~ 12/15	
	'창립 20주년 기념' 2009년 고전문화강좌	(사)전통문화연구회	02-762-8401	1/5 ~ 12/30	
	서울지역 역사 및 전통문화연구 보존	서울문화사학회	02-762-0155	2/1 ~ 12/30	
	'2009 지하철예술무대 "SUBWAYTHEATER"	지하철예술인협회(구. 공연예술기획 이일공	02-3477-1531	3/1 ~ 12/31	
	시민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종이문화재단	02-2279-7900	6/22 ~ 12/30	10/19 ~ 10/25
	다문화 이해를 위한 영상교재개발과 순회강연	이주 노동자의 방송 MWTV	02-776-0416	5/1 ~ 12/31	
	홍대 지역 월간아트 맵 "쓸모있는 종이" 발행	이스트 브릿지	02-333-0955	1/1 ~ 12/31	10/23, 10/25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실	신나는 문화학교 교사협회	02-334-8209	3/16 ~ 12/19	
	찾아가는 아트플라이 문화예술워크숍	문화우리	070-7563-6911	5/12 ~ 10월 중	10/13, 10/27
	Play-ing 2009_Open the Source!	토탈미술관	02-379-7037	7/1 ~ 11/15	
	2009 지하철은 내 친구 - 시민노래자랑 대회	(사)철도,지하철 예술진흥 연구원	02-3472-0797	5/9 ~ 12/5	
시민축제지원사업					
시민축제	2009 택견배틀- 천하제일 결련택견패 결정전	(사)결련택견협회	02-722-2469	5/9 ~ 10/31	2009-10-31
	Jazz Park 공연	컬처마케팅그룹	02-528-3355	1/21 ~ 12/16	
	대학로 페스티벌 D.FESTA "무아지경"	(사)한국소극장협회	02-741-4188	10/10 ~ 10/18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현대무용	Post Ego Dance Company 'The Condition of Balance'	포스트에고무용단	02-514-2047	10/1~10/2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전통무용	2009 지구댄스씨어터의 춤	지구댄스씨어터	02-760-4104	10/7~10/8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정극	시동라사	극단 이와삼		10/5~11/1(28회)	나온씨어터
	128회 정기공연 〈나, 포이어바흐〉	극단 로얄씨어터	02-358-5449	10/1~10/14(19회)	엘림홀
	마지막 20분 동안 말하다	투비컴퍼니	02-744-7304	10/8~2010/1/3	아츠플레이씨어터 2관
	뜰앞에 잣나무	극단 완자무늬	031-965-6414	10/14~10/25	대학로극장
	서른, 엄마	달과아이극단	02-6080-8955	10/21~11/1	대학로 나무와 물
창작극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 : 날개	극단 그림연극	02-945-7518	10/9~11/1	상명아트홀 2관
	윤이상, 나비 아마주	극단 은세계	02-747-2250	10/22~11/8	엘림홀
창작창극	닭들의 꿈	바닥소리	02-338-2025	10/1~10/3(5회)	대학로 정미소극장
뮤지컬	우리연극 만들기, 여덟 번째	극단 작은신화	02-745-2016	9/2~9/27	정보소극장
관현악	미소 놀다	극단 시선	031-716-7715	10/7~11, 25	별오름극장 우석레퍼토리
	서울뮤즈플룻앙상블 제 15회 정기연주회	서울뮤즈플룻앙상블	02-592-5174	10/16	장천아트홀
실내악	플룻티스트 박현정의 음악여행 I: Brazilian Air	박현정	031-263-7366	10/18	금호아트홀
실내악	앙상블 프리즈마 정기연주회	앙상블 프리즈마	02-790-0132		
성악	Alla Napoletana 바로크소프라노 이선영 독창회	이선영			
	2009 신작가곡음악회 우리 시 우리 노래	한국예술가곡진흥위원회	02-2235-9135		
실내악	조윤정피아노독주회 "여러시간속에서"	조윤정	010-7242-4748	10/11	금호아트홀

구분	사업	단체	연락처	일시	비고
실내악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SIMM) "보는 소리, 듣는 영상" 음악회**	한국멀티미디어음악학회	02-2260-3762	10/7	문화일보홀
기악	**소리길을 찾아서2**	성금연가락보존회	02-418-9034	10/7	국립국악원 우면당
	구교임 거문고 매력 6	구교임		10/30	한국문화의집 KOUS
음악	**옛 선비노래를 인접장르로 푸는 문현의 음악회 "아자(我者)"**	문현	02-842-7980	10/1	서울 남산국악당
	박병오 작곡발표회, '종묘제례악' 주제에 의한 변주곡	박병오	070-7538-6543	10/21	국립국악원 우면당
	안은경 피리 콘서트 'Sound Painter'	안은경	02-454-0555	10/30	DS홀
	2009 노름마치 콘서트 "soul Trap"	노름마치	02-323-2257	10/13	서울 남산국악당
전통음악	**2009한국민속음악제 제17회 전국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02-935-5880	10/24~10/25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
국악	**2009 Tea Music [다악]- 벗을 그리며**	한국창작음악연구회	02-2272-2152	10/6	남산국악당
다원예술	**빨간방**	유진규네 몸짓	033-243-9015	10/7	인사아트센터
영상그림자극	**이슬람 수학자**	극단 수레무대	02-909-2515	10/9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축제	**(사)한국복식학회 Kosco 전시**	(사)한국복식학회	02-324-1511	10/14	국립고궁박물관
전통	**茶.禮.樂과 함께하는 가족놀이 한마당**	(사)예명원	02-324-1511	10/31	운현궁
시각	**구본아 개인전**	구본아	02-736-1020	10/7~10/13	인사아트센터
	2009 BE SE TO 미술제 북경전(제15회전)	사단법인 국제미술교류협회	해외전시	10/17~10/22	북경노동인민문화궁(태묘)
	곽호진 개인전	곽호진	02-720-1020	10/21~10/27	가나아트센터
	2009 유아트스페이스 기획 공모 개인전 Sleepless Night	김지희	02-544-8585	9/24~10/10	유아트스페이스
	제2회 서울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사단법인세계미술연맹	02-723-2491	10/1~10/15	서울시립미술관경희궁분관
	전시그룹 글책말의 우리말 전시	전시그룹 글책말	02-330-6200	10/8~10/22	홍대 상상마당
	정고요나 개인전	정고요나	02-733-6469	10/14~10/20	관훈갤러리
	플렉시블 아우라 (Flexible Aura)	변현주	02-725-9520	10/15~11/1	브레인팩토리
	해외전시 (개인전) 및 창작활동	김진란	해외전시	8/1~11/30	Gallery Robrecht, St-.Matthaeus
	신진 작가 릴레이 쇼 지원 프로젝트	언더그라운드		5/1~2010/1/31	오프도시
	마음의 손으로 보는 것	석재영	580-1300	10/7~10/13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제3전시실
	FEAR-극복의 도구들	윤상열	02-733-6469	10/28~11/10	관훈갤러리
	더 북 소사이어티 The Book Society	미디어버스	02-733-8945	10/23~11/5	아트선재센터 1층 서점
	Living In Seoul 구성수 사진전	구성수	해외전시	9/22~10/5	Galerie 89, Paris
	트라이앵글프로젝트(전시)	할아텍	031-774-4147	10/14~10/30	상명대학교 스페이스원, 제로
	이형욱 개인전(금호 영아티스트 展)	이형욱	02-720-5114	9/3~10/3	금호미술관
	박능생 개인전	박능생	02-641-8840	9/23~10/4	꽃+인큐베이터
	오혜선 제 3회 개인전 '마음을 열 • 다'	오혜선	02-733-6469	10/21~10/27	관훈갤러리
	미술과 도시 (Art & the City)	CA group	02-720-9282	9/28~10/18	갤러리175
	바틀로직스, 이준 개인전	이준	02-735-9277	10/17~10/23	송원아트센터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연극	**누가 왕의 학사를 죽였는가**	극단독립극장	02-704-9566	9/22~10/11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극단이루	02-704-9566	9/25~2010/1/03	선돌극장
	뱃사람 (The Seafarer)	극단컬티즌	02-765-5475	10/8~10/1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마라/사드	극단풍경	02-453-0255	10/5~10/18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극단 창파 정기공연 〈출구와 입구〉	극단창파	02-599-7740	10/7~10/25	정보소극장
	텐포우12년의 세익스피어(가제)	극단미추	02-747-5161	10/19~10/23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연희단거리패 23주년 기념 〈원전유서〉공연	연희단거리패	02-763-1268	10/24~10/26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음악	**목관5중주 I-Group 만남시리즈 V "Wind meets String"**	목관5중주I-Group	02-521-1446	10/18	세종체임버홀
	여성국극 Gala	(사)발탈전통극보존회	02-921-3288	10/10~10/11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다원	**Post Ego Company and COLLECTIVE Mayhem**	포스트에고무용단	02-514-2047	10/15~10/16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09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업					
뮤지컬	**뮤지컬 〈빨래〉**	명랑씨어터수박	02-929-3335	7/24~2010/1/3	학전그린소극장
서울열린극장 창동 공연					
	2009 행복충전프로젝트 '추석맞이 특별공연 -한가위 큰잔치-'		02-994-1469	10/3 4시	서울열린극장 창동
	2009 천원의 행복 '국악방송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02-994-1469	10/10 시간 미정	서울열린극장 창동
	도봉청소년오케스트라 가을맞이 Music Festival		02-3494-2020	뮤지컬 '젊음의 행진'	서울열린극장 창동
남산예술센터 극장 공연					
	바다거북의 꿈	박근형(극단 골목길)	02-758-2150	9/26~10/4	남산예술센터
	Festival 場		02-758-2150	10/7~10/16	남산예술센터
	The Blue	4관객 프로덕션	02-758-2150	10/7~8	남산예술센터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김윤진 무용단	02-758-2150	10/13	남산예술센터
	허기진 휴식	극단 몸꼴	02-758-2150	10/14	남산예술센터
	로미오와 줄리엣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도쿄데스락	02-758-2150	10/16	남산예술센터
	선비와 망나니	상해연극예술센터	02-758-2150	10/19~10/20	남산예술센터
	길삼봉뎐	안경모(극단 연우무대)	02-758-2150	10/27~10/31	남산예술센터
	정말 별 일 없었는지	장기하, 지영	02-758-2150	11/24~11/29	남산예술센터
	운현궁 오라버니	이성열	02-758-2150	12/4~12/13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연 및 전시					
	한-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시		02-2287-1115	9/23~10/10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시		02-3216-1185	10/13~16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인디음반 제작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018-332-7414	10/19~11/2	카바레사운드
	상상마당과 함께하는 홍대 앞 재발견		02-3141-7030	10/25	KT&G상상마당, 서교예술실험센터
	서교음악싸롱		02-333-0246	매주 월요일 14:00~16:00	센터프로그램
	서교음악싸롱		02-333-0246	9월중순~12월(예정)	센터프로그램
	헛소리 드로잉		02-333-0246	매주 화요일 19:00~21:00	일상예술창작센터

극단 골목길, 남산예술센터 공동주최

남산아트센터 2009 시즌 프로그램
2008 창작팩토리사업 - 우수 연극 제작지원 선정작

바다거북의 꿈

2009. 9. 26(토) ~ 10. 4(일) 남산예술센터

일 반 25,000원, 중고생 15,000원

화, 수, 목, 금 저녁 8시 • 토 오후 3시, 저녁 7시 • 일 오후 3시 • (월 공연 없음) 예약 및 문의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작 | 김민정 연출 | 박근형 출연 | 윤제문 • 주인영 • 이달형 • 조덕제 • 고수희 • 박수영 • 이승준 • 김주완

주최 | 극단골목길, 서울문화재단 제작 | 극단골목길 후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私的山水 한지에 디지털프린트, 100x40cm, 2008

홍 경 미

2009
NArT2009 젊은예술가지원사업 선정작가(서울문화재단)

2009
개인전 〈風景과 記憶〉 토포하우스, 서울

2009
동강국제사진제 거리설치사진전 〈영월 마주하기〉, 영월

2008
〈마음의 정원〉 신세계 문화홀, 서울

2008
〈사진, 풍경을 읽다〉 아트비트 갤러리, 서울

2006
〈영포트폴리오전〉 키요사토 포토아트 뮤지엄, 야마나시, 일본

우연히 접하게 된 옛 그림들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 풍경을 엿보았다.
그들의 기억이 만들어 낸 흔적을 따라 나의 기억 속 풍경을 또 하나 만들어 간다.
그리고 나의 오래된 기억 속 풍경을 다시 찾아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 간다.
본 작업은 나의 풍경과 이 땅의 산수와 그것을 먼저 체험한
그들과 나의 기억이 얽혀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i Seoul SOUL OF ASIA
ISSN 1739-7740